영가천도 영험도량 · 지장도량 성거사
단일 · 합동천도 봉행 조상령 천도전문 · 낙태아 수자령 천도
무료책자신청 문의상담전화 041-567-6820

현대불교

고객의 행복한 여행을 추구하는 여행사
제주도 · 중국전문 성지순례 여행사
(주)행복만선
Tel. 02)720-8489

www.buddhanews.com ☎구독신청 02)737-0090 · 대표 02) 737-8881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8년 (서기 2004년) 9월 22일(음력8월 9일) 수요일 (주간) 제492호

‘연수’로 맺은 인연 ‘불자’로

기업 템플스테이 포교 호재 … 프로그램 개발 · 시설확충 나서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사찰체험 프로그램으로 활용 돼 오던 템플스테이가 최근 삼성SDI, 현대자동차 등 국내 유수기업의 교육 및 연수프로그램으로 각광받고 있다.

올해 초 삼성SDI 부산공장이 통도사에서 기업연수를 한데 이어 현대자동차 울산공장과 굿모닝 신한증권, LG투자신탁 등이 범어사와 구룡사, 내소사 등에서 기업연수를 진행하며, 기업 내 템플스테이 붐을 확산시키고 있다.

그러나 기업체의 요구에 의해 수동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포교효과가 반감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즉, 템플스테이를 기업체 포교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종단과 사찰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 마케팅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도자 양성,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만한 시설확충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왜 ‘템플스테이’인가?

템플스테이는 사찰수련회와 달리 새벽예불 및 독경, 염불 등 프로그램에 강제성을 띠지 않는다. 따라서 불자는 물론 개신교인, 천주교인 등 다양한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업체가 별다른 거부감 없이 직원들의 신입사원 교육 및 직원연수 프로그램으로 템플스테이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산사라는 지리적 이점과 명상과 참선을 강조하는 프로그램의 특징들은 최근 기업연수의 흐름인 ‘자기성찰’과 맞아 떨어지며, 연수를 통해 직원들의 심신정화와 심기일전을 원하는 기업들의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템플스테이 연수를 기획한 현대자동차의 이효성 씨는 “기존의 기업연수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교육에 치중했다면, 요즘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참나를 찾는 자기성찰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떻게 활용해야 하나

기업 템플스테이는 불자위주의 소규모 템플스테이와 달리 기업의 목적에 따라 적게는 50여명, 많게는 400~500명의 인원이 일괄적으로 참가하는 조직적 형태를 지닌다.

기업 템플스테이 참가자 절반 이상이 불교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무종교인들과 불교에 대해 거부감이 있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타종교인이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를 잘 활용하면 별도의 포교활동 없이도 사회 전반적인 불교이미지 개선과 영향력 증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사찰과 기업의 연대강화를 통해 사찰의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문화활동 콘텐츠 강화 등의 부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특히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는 구성원들이 산업과 문화를 생산하는 주된 계층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대이상의 포교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해결 · 보완할 과제들

현재 기업 템플스테이는 기업체 개별의 요청에 의해 이뤄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교계는 템플스테이 등 좋은 포교 콘텐츠를 가지고도 ‘좋으니까 찾아오겠지’하는 수동적인 생각으로 기업체와 공공단체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조계종이 주5일제 근무를 대비해 지난 5월 한국불교전통문화사업단을 발족하고 템플스테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방안마련은 미흡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템플스테이를 운영사찰 관계자들과 기업체 직원연수 관련 담당자들은 기업을 찾아가는 적극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은 물론, 기업의 교육 및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별도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템플스테이를 활용한 기업연수가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산돼 나가려면, 고학력과 타종교인이 다수인 참가 구성원들의 특징과 위계체제가 분명한 기업조직체의 특징 등이 프로그램에 적절히 반영돼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참가자 성향에 맞춰 교육을 효과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도자 양성과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등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한국불교전통문화사업단의 윤영희 총괄팀장은 “종단차원에서도 노력을 하겠지만, 사찰들은 마곡사 등 템플스테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찰들을 벤치마킹해 개별 사찰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설을 확충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社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명실공히 교계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으며 불자들을 실천수행의 장으로 이끌어온 현대불교신문 신행수기 공모가 올해로 10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 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귀중한 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큰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지 4장)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붓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시상내역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상 -태고종 총무원장상
- 천태종 총무원장상 - 관음종 총무원장상
- 총화종 총무원장상 -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상 -신수회장상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돈) 열쇠를 각각 수여합니다.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붓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맹란자 선생(수필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 이렇게’를 연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불교 달라져야 한다’ 원고 모집

독자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국불교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불교계 곳곳의 고질병에 할 말은 없으십니까? 한국불교의 문제점과 개혁방안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량: 200자 원고지 10매
■접수 마감: 9월 30일

■접수 : 우편 (110-170)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 bypark@buddhapia.com
■문의전화: (02)722-4162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원고에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사자암 3층 석탑 “보물급”
전북도 훼손 심해 “지정 못해”

지난달 옥개석 발굴후 ‘가치판단’ 엇갈려

보물급 유물로 추정되는 고려시대의 사자암 3층 석탑(전북 익산)이 사장 위기에 처해 있다. 이 탑이 처음 세상에 알려 진 것은 1993년. 하지만 10년이 넘게 관할 지자체의 무관심과 허술한 문화재 관리 및 보존대책 등으로 지금껏 방치되고 있다.


방치되고 있는 사자암 3층 석탑의 옥개석(점선안).

이러한 사실은 지난 8월 20일 대웅전 기단공사 중 연꽃문양이 새겨진 옥개석이 돌더미 속에서 다시 발견됨으로써 드러났다. 이 옥개석은 1993년 이 절 요사채 불사 중 이미 출토되었지만 문화재적 가치가 희박하다는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다시 묻어뒀던 것이다. 이 옥개석을 발견한 사자암 관계자는 정확한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8월 23일 석탑전문가인 원광대 前 총장 김삼룡 박사와 단국대 박물관장 정영호 교수 등 5명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전남문화재위원은 “다시 발견된 이 옥개석은 사자암 3층 석탑의 1층부의 것이 확실하고, 잊혀 졌던 문화재적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 석탑은 도피안사 3층 석탑(보물 제223호)의 기단부 8각모양 탑신과 같은 형태로서 보물급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북문화재위원회는 ‘석탑의 기단석에서 상층의 옥개석 부분의 정형성이 없고, 훼손이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정문화재등록 부결처리 결정을 내려 학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13면에 계속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신계사 가는 대웅전 목재들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 복원불사에 사용될 목재를 실은 차량들이 9월 17일 금강산을 향해 출발했다. 목재들은 금강산 현지에서 조립될 예정이며, 대웅전은 11월 19일 완공된다. 여주=고영배 기자

수요일은 1080 누르고 福 짓는날!
우리이웃
전국어디서나 일반전화 · 휴대폰으로 1080 누르면 ‘관음손’이 됩니다
나눔의 손잡기 기금모금
ARS:060-700-10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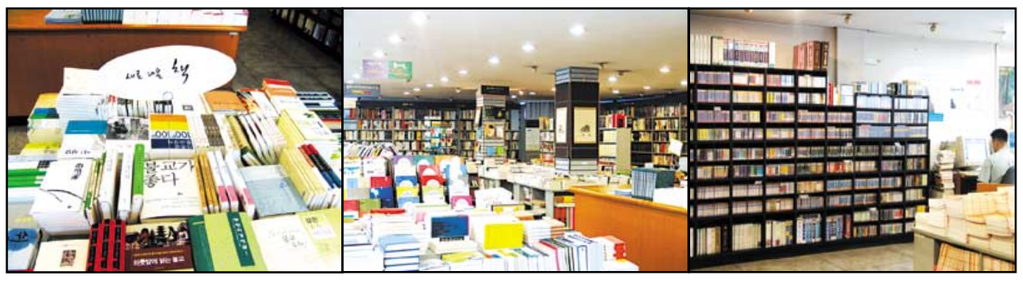
‘할’



그림 · 조태호

인환 스님 법문에서(법문은 24, 25면에서 만나세요)

불교서적의 요람으로 불자들과 함께한 10년!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Hot!
국내 모든 불서를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주문으로 빠르게 받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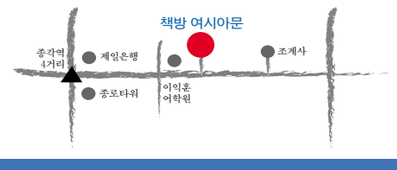


불교의 기초부터, 선지식 이야기까지!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여시아문’과 만나십시오

“여시아문 책방은 불교책으로 장엄된 장경각과 같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으로 책 구하기가 편리하고 모든 정보가 전산처리 되어 편리하지요. 특히 장서의 진열도 출간연대별로 구분돼 있어 나온 지 오래된 희귀본도 만날 수 있더라구요.”
불교TV 큰스님과의 대담 프로그램 ‘뜰앞의 잣나무’ 진행자였던 중진 판화가 황남채씨는 여시아문을 사랑하는 단골 고객의 한 사람이다.
교계 신문에 나온 ‘불서 베스트 셀러’ 집계를 참고로 여시아문 매장에서 직접 책을 보면서 고르고 있다는 황씨는 불서 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미술, 여행, 건강 분야의 책들도 즐겨 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 황남채씨 (판화가)

불교 서적 전문서점인 ‘여시아문’은 1994년 8월 24일 전문매장을 오픈하였으며 첨단시대에 발맞추어 2000년 10월 1일부터 ‘온라인 여시아문’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약 30,000여 종의 불교서적 타이틀 약 80,000여 권을 구비하여 불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불교정보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주)현대불교신문사의 출판부와 불교서적센터를 운영하여 도서출판 및 도서관리 그리고 도서유통까지 통합업무 운영을 통해 올바른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책방 여시아문 약도



대한민국 대표 불교서점 책방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여러분의 개인 법당입니다.
인터넷 도서주문 yosiamun.com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법공양 상담합니다>



청정환경 사찰이 먼저 지켜야

오늘날 한국불교는 어느 종교나 단체보다 친환경적 가르침과 생활양식으로 유지해 왔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가르침과 생활양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일반사회와 마찬가지로 생활 활동의 부산물로 여러 가지 환경오염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중의 대표적인 문제가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사찰오수와 쓰레기, 분뇨 등의 적절한 처리문제다. 원칙적으로 사찰내에 발생하는 환경오염물질은 그것이 사찰내의 스님이나, 종무원, 그리고, 신도 등 사부대중에 의한 오염이건, 아니면, 탐방객에 의한 오염이건 간에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의 주체는 당연히 사찰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찰내에서 주도적으로 환경오염물질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오염방지 및 처리시설 의무화
환경인식 제고·상시관리 필요

그러기 위해 해야 하는 대표적인 일중의 하나가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사찰오수의 적절한 처리와 관리문제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산중에 위치한 사찰은 청정지역이거나, 상수원의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기에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청정한 지역이므로 이를 유지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 몇 년 동안 조계종 총무원과 환경부 등과의 협의에 의하여 사찰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리하여 국립공원지역과 도립공원 등 공원지역을 중심으로 한 오수처리사업이 추진돼 왔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산중사찰의 경우 오염되지 않은 상류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찰오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인근 계곡으로 방류하고 있다.

그리하여 인근계곡의 유량이 많지 않거나, 갈수기인 경우에는 계곡을 오염시키게 됨으로써 청정해야 할 사찰지역이 환경오염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러기에 사전예방적인 관점에서 사찰내에서 발생하는 오수처리에 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우선 사찰내 오수처리시설을 적절하게 처리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찰지역의 특성에 관한 오수특성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처리시설의 설치가 이루어 져야 한다.

또한 사찰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서 오히려 사찰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와 같을 때도 있다. 결국 적절한 처리시설의 설치와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나, 실제적으로 이에 대한 관심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사찰 또한 오염물을 배출시키는 오염원이라는 인식하에 사찰내 오염물질을 적절히 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의 설치와 함께, 처리시설이 설치된 이후에는 적절한 상시적인 관리가 이루어짐으로서 사찰이 주변 계곡오염의 주범이라는 오명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이병인(국립 밀양대 환경공학과 교수)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 쇄 인 : 채수삼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구독료: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멸빈제도 폐지 추진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종회의원 면책 조항도

승가 사회에서 일종의 사형제도인 '멸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법안, 이하 호법분과위)는 멸빈제도를 폐지하고, 제적을 복적이 불가능한 '무기제적'과 10년후 복적 신청이 가능한 '유기제적'으로 구분해서 운용하는 것으로 입법을 추진중이다.

이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무기징역으로 대체하자는 최근의 사회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열린 선우도량에서 멸빈제도는 스스로 참회하고 수행하게 하는 율장 정신에도 어긋난다는 지적과도 연관이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입법이 되면 종헌 128조 '징계를 받은 자로서 비행을 참회하고 특히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집행중이라도 징계를 사면, 경감 또는 복권시킬 수 있다. 다만, 멸빈의 징계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는 조항도 삭제된다.

호법분과위는 또 중앙종회 동의 없이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며, 종헌 개정 투표를 공개하는 등의 입법도 추진한다.

호법분과위는 종헌 제3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과 관련, 독립된 사법부가 입법기구 구성원이라고 중앙종회 동의없이 징계판결조차 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중앙종회법 제18조 2항 '중앙종회의원의 징계는 중앙종회의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도 징계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종헌 개정과 같이 종단의 근간을 변화시키는 경우 투표자의 투표내용이 공개돼야 책임 정치, 여론을 반영하는 정치를 실현시킬 수 있다며, 무기명 비밀투표로 종헌 개정을 결정하는 종헌 130조 3항 삭제도 이 법안에 포함돼 있다. 단 인사에 관한 안건은 제외할 방침이다.

종헌 제99조 '주지는 징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기중 해임되지 아니한다'는 것도 재산범죄나 항명죄의 경우 범죄자를 직위에 유지시키면 범죄의 피해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초심호계원의 결정으로 일정기간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호법분과위는 이 외에도 집행유예제도, 선고유예제도, 단기자유형제도, 선택형제도, 사건배당제도, 간이심판제도, 민사심판제도, 재심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호법분과위원장 법안 스님은 "올 11월 열리는 정기중앙종회 상정을 목표로 관련 조항들을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호법부장 임명동의 등 '통과'

조계종 제164회 임시종회

조계종 호법부장 진원 스님(부안 내소사 주지) 임명 동의의 건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또 재심호계위원에 정념 스님(평창 월정사 주지)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지하)는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1층에서 제164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중앙종회는 또 법산 · 혜국 · 무관 · 미산 · 지현 · 지안 · 지욱 · 성진 · 지형 스님을 고시위원으로 위촉하는데 동의했으며, 청우 · 선광 · 원소 · 혜자 · 철웅 · 성효 스님을 소청심사위원으로, 도공 · 범해 · 범여 · 적광 스님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각각 선출했다.

중앙종회는 이 외에도 학교법인 동국학원 감사 후보로 일면 스님 후임에 성월 · 성운 스님을, 범여 스님 후임에 범여 · 상운 스님을, 박도근 씨 후임에 박도근 · 이홍섭 씨를 각각 추천하는데 동의했으며, 불기2547년도 중앙종무기관 세입 · 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제164회 임시중앙종회는 중앙종회의원스님 25명과 집행부 8명이 포함된 종정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뒤 하루만에 폐회됐다.

한편 종정감사는 10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간 88개 사찰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남동우 기자

위기의 사찰학생회… 눈높이 프로 절실

지도교사 간담회 개최

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원택)가 사찰 학생회 현황 점검 및 대안마련을 위해 9월 1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진행한 간담회에서 사찰학생회 지도자들은 영어, 다도 등 문화포교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찰학생회 지도자들은 예년에 비해 학생회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흥미롭게 다가설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았으며, 부처님오신날, 여름수련회, 가을 체육대회 등 학생회별 연중행사도 과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유철주 기자

'문화재청 지방청 설치 연구중"

유홍준 청장 법장스님 예방해 밝혀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9월 13일 국보 84호 서산 마애삼존불에 백화현상이 일어나는 것과 관련 "보존을 한다는 명목으로 세운 보존각이 통풍을 가로막아 문화재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이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법장 스님은 유홍준 문화재청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이 같이 지적하고 "성보박물관 건립비뿐 아니라 운영비 또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 청장은 "성보박물관 지원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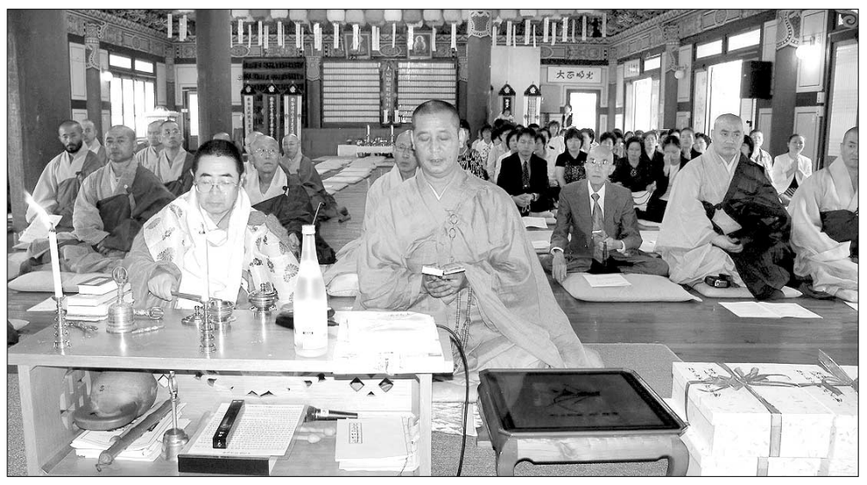
한편 유 청장은 "문화재청장에 취임 해 보니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문화재청 산하에 지방청이 없는 것"이라며 "지방청을 만들지 않으면 지방문화재 관리는 어렵다. 3곳의 지방연구소를 지방청으로 만드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청장은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소장 문화재의 보존관리를 위해 '국립문화재 종합병원'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동우 기자

종무원법 개정청원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참여불교재가연대 부설 교단자정센터(원장 김희욱)를 비롯 불교계 8개 단체가 조계종 중앙종회 호법분과위원회에 '직위의 해제'와 '일반직 종무원 임용규정' 조항을 신설하는 종무원법 개정을 청원했다.

단체들은 "재직 중 형사사건으로 피소된 자에 대해 현행 종무원법에서는 어떠한 관련 조항도 두지 않고 있다"며 "최소한 '국가공무원법' 이상의 관련 규정이 마련 · 적용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남동우 기자



9월17일 남양주 봉선사에서 열린 임진왜란 희생자 영령위한 한 · 일합동위령재'에서 일본 고야산 연화사 태청 히가시야(앞줄 왼쪽)스님의 집전으로 진혼기원법요식이 진행되고 있다.

400년전 원혼들이여! 극락왕생 하소서

봉선사서 한·일 합동 임란위령재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한 한 · 일 합동위령재가 9월 17일 남양주 봉선사(주지 철안)에서 봉행됐다. 봉선사와 일본 연화사(태청 히가시야마), 전국 일궁 순례회 세화인(대표 이리에 고우이치로우)가 공동으로 주최한 위령재에서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은 "오늘 위령재를 통해 400여년전의 원한을 모두 청산하고 한 · 일 양국의 긴밀한 교류와 발전을 이끌어내자"고 법문했다.

이리에 고우이치로우 대표 인터뷰 14면

봉선사=김은경 기자

단양 도락산 광덕사선원 산사음악회와 단풍문화축제

산사음악회 (10월 9일 오후 5시)

• 장소 : 광덕사선원 특설무대

1부 - 프롤로그
· 법 고(진공스님 - 전국 법고대회 대상 수상)
· 삼 귀 의
· 반야심경
· 축 사(혜인 큰스님)
· 축 사(데이빗 테일러 Taylor David-현, 주한 뉴질랜드 대사)
· 인 사 말(무허 큰스님)
· 축 가 (석가사 합창단 - 어디로 가야하나, 향을 사뤄 몸을 태워, 일천강에 비치는 달)

2부 - 산사음악회
· 사 회 : 진명스님(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
1. 타악연주 : 국립국악원. 솟대패사물놀이 협연
2. 오프닝 팡파르 : 대구 팝스오케스트라
3. 김난영 - 살랑살랑, 가인, 이룰 수 없는 사랑 외
4. 심진 스님 - 무상초, 몰라몰라, 대망
5. 이인철(바리톤) - 그리운 마음, 투우사의 노래
린다박(소프라노) - 그리운 금강산, 오미오밤비노까레
경북불교대학 합창단(보리심 외)
6. 강산에 - 라구요,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외 2곡
7. 색소폰 솔로 : 김영찬 교수 - 칠갑산
8. 성악듀엣 - 사랑을 위하여
9. 설운도 - 누이, 갈메기 사랑 외
10. 엔딩 연주 : 대구 팝스오케스트라

단풍문화축제 (10월 9일 오후 2시 ~ 8시)

• 장소 : 광덕사선원 극락보전, 경내 전시장

1. 초대 도자기전시회 - 서동규 (방곡도요 대표)
2. 초대 전시회 - '연꽃 만나러 가는 날' - 최성환 (전업화가)
3. 서예시연 타묵(打墨) 퍼포먼스 - 율산 리홍재 (율림서도원 원장) • 서예시연 : 오후 4시 ~ 4시 30분
4. 도자기 전시와 체험마당 - 방곡 도예촌 • 단양 지역의 도자기 작품 전시 및 도예 체험 한마당
5. 한지공예 전시와 체험마당 - 정순천 (한국미술인협회 운영위원, 정순천 한지공예연구원장)
6. 불교꽃꽂이 전시와 풍선 놀이 체험마당 - 박필상 (일송 불교꽃꽂이 연구소장)
7. 다도시연과 시음 한마당 - 한국홍익茶文化연구원 • 다도시연 : 오후 3시 30분 ~ 4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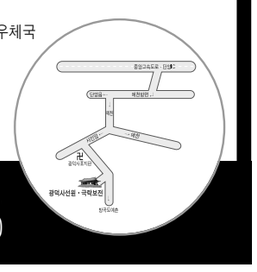


광덕사선원 오시는 길

개별 출발
• 버 스 - 동서울 → 단양(고속버스 1일 12회)
강남터미널 → 제천(고속버스 25회) → 단양
대전 → 청주 → 단양(직행버스 1일 25회)
안동 → 영주 → 단양(직행버스 1일 44회)
• 기 차 - 서울 청량리역 → 단양역(1일 새마을호 2회, 무궁화호 6회, 통일호 1회) ☎ 1544-7788
※ 단양 → 단양시외버스터미널에서 대강면 버스 승차(30분 간격 운행) → 대강면에서 택시 이용(약 10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 승용차 - 서울 출발 : 영동고속도로 → 남원주IC(만종JC) → 중앙고속도로 → 단양IC → 단양방면(우회전) → 예천 · 사인암 방면(좌회전) → 사인암 방면(우측도로) → 광덕사 표지판(좌회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대구 · 부산 출발 : 경부고속도로 → 서대구(금호JC) → 중앙고속도로 → 단양IC → 단양방면(우회전) → 예천 · 사인암 방면(좌회전) → 사인암 방면(우측도로) → 광덕사 표지판(좌회전) → 광덕사 표지판 지나서 → 광덕사 선원 극락보전

단체 출발
• 서울출발 - 석가사 일각스님 ☎ (02)354-1141, 011-9960-7978
• 대구출발 - 금강문 김만삼 ☎ (053)651-6523, 011-817-7752

행사 당일 셔틀버스 운행
단양 고속버스터미널 → 단양역(경유) → 대강면 대강우체국 건너편(경유) → 광덕사 선원
[정오부터 30분 간격으로 운행]
※ 행사당일은 상당히 혼잡하오니 산사음악회 시작 1시간전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추운날씨에 대비해 방한복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주최 · 주관 광덕사선원
● 후원 단양군청, 불교TV, 청주불교방송, 현대불교신문, 불교신문, 대한불교신문, 불타사, 석가사, 붓다의 호흡 금강문
● 협찬 대성기획, 해조음, 방곡도요, 방곡도예촌, 갤러리 미루나무, 율림서도원, 정순천한지연구소, 일송 불교꽃꽂이 연구소, 한국홍익 茶文化연구원, (사)솟대패 사물놀이 예술단
● 문의 광덕사선원 (☎ 043-421-7000, 421-6900, 011-9960-7978) www.ibmtemple.org (한글주소 : 광덕사선원)

고속철 천성산구간 현장 검증 연기

시설공단 '법원감정' 반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철도시설공단)이 고속철 천성산 구간에 대해 '법원감정'을 실시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9월 20일로 예정됐던 현장검증은 9월 말 이후로 연기됐다.

철도시설공단은 9월 16일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김종대)에 보낸 '법원감정'에 대한 공문에서 "환경부와 시민행동 간에 있었던 전문가 검토를 그냥 진행하는 편이 법원감정보다 좋겠다"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이 이를 수용해 법원감정을 보류했다고 도룡농 소송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9월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산고법이 9월 13일 재개한 도룡뇽 소송 3차 심리에서 결정된 천성산 구간에 대한 '법원감정'은 사실상 실시 여부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불교단체와 환경단체, 환경부와 철도시설공단은 9월 말까지 부산고법이 제안한 '전문가검토'와 '법원감정'을 두 가지 방안을 놓고 밀고 당기는 협상을 진행한다. 환경부는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9월 말 재판부에 알려야 한다. 현장검증의 구체적 실시는 그 이후에야 가닥을 잡게 될 전망이다.

시민행동 측에서는 철도시설 공단의 이의 제기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의 참여를 배제하고 환경부 산하기관만으로 현장검증을 실시하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법원감정'을 할 경우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가 현장검증에 상당부분 참여하게 되기 때문이다.

천미희 · 강유신 기자

한-중불교 선수행 체험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법장)는 조계종 교육원과 함께 제4회 한 · 중불교 선수행 체험 행사를 9월 16일부터 열흘간 중국 복건성 일대에서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종단협이 매년 실시하는 한중일 3국 불교지도자대회의 교류 사업으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종단협은 한 · 중 양국간의 선 수행 전통을 교류를 위해 조계종 교육원 사업으로 전환해 실시한다.

주요내용은 중국불교 선체험, 중국불교에 대한 이해 등으로 현대 중국불교의 전반을 이해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된다. 우리측 방문단은 해인사 강원 법진, 오성 스님 등 주로 강원 교직자 스님들을 위주로 구성됐다. 조용수 기자

직지엔 무관심… '자리'엔 큰 관심

市 흥덕사지 복원 계획에 "운영권 달라" 경쟁만

청주 불교계, 직지 세계화 축제에 참여 외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기록유산이자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인 불교문화유산 '직지심체요절'(이하 직지)을 세계화하기 위해 청주시가 모든 힘을 쏟아 붇고 있는 반면, 불교계는 오히려 뒷짐을 지고 있다.

특히 청주 불교계는 직지 세계화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 9월2~5일까지 청주예술의 전당, 고인쇄박물관, 한국공예관을 비롯한 청주시 일원에서 열렸던 '2004 청주직지축제'에서는 전시, 공연, 연극, 체험학습, 세미나 등 수많은 프로그램이 펼쳐졌지만 불교가 주최한 행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열렸던 제1회 대회 때 '직지 설명 강연회'를 열어 체면치레를 했지만 호응이 없었다는 이유로 올해는 이마저도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주시가 시민프로그램까지 공모했지만 사찰 수가 100여 개나 넘는 청주 불교계의 응모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청주시의 한 관계자는 "몇 차례나 참여를 요청했지만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주사암연합회의 관계자도 이 같은 사실을 시인했다.

직지축제는 직지가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하고, 직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청주시가 마련한 행사. 현재 청주시는 직지상을 제정하고, 시 의회 차원의 '직지 세계화를 위한 특별위원회(직지특위)'를 구성했는가 하면, 직지세계화추진단을 발족시키는 등 모든 인적 · 물적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청주 불교계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있는 이유는 지역 사찰 간 단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데다, 이해 관계가 맞물리면서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청주 사암련의 한 관계자는 "작년 직지 설명 강연회 때 사암련 합창단 외에는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 창피해서 얼굴조차 들지 못할 지경이었다. 자기 사찰 행사 외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다"며 자조 섞인 한탄을 늘어놓았다.

심지어는 청주시가 직지를 간행했던 흥덕사지 복원을 추진하자 일부 스님들이 "복원되면 사찰 운영권을 달라"며 경쟁(?)을 벌여 지역민들로부터 비난을 듣기까지 했다. 그러면서도 일부 스님들은 "청주시가 불교계를 소외시키고 있다"는 헛소문까지 퍼뜨리고 있다. 이처럼 불교계의 몰상식이 극에 달하자 아예 시 관계자들 입에서 "스님들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청주시 직지축제추진단 관계자는 "지난해 시 차원에서 조계종 총무원을 방문해 직지의 한글번역과 영문화 작업을 요청해, 현재 동국역경원에서 한글번역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직지 세계화는 청주불교 뿐만 아니라 불교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마땅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mwhan@buddhapia.com

달마마라톤 3천여명 '하나로'

'탕~!'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 소리와 함께 1200여명의 마라토너들이 일제히 뛰기 시작한다.

밤새 내린 폭우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고 땅이 질퍽하게 젖어 달리기에 좋은 상황은 아니었지만, 참가 출전자들은 신발 끈과 함께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 매며 힘껏 달리기 시작했다.

9월 1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 서울광역신도회(회장 김진관)가 마련한 '제1회 달마마라톤대회 및 행복문화축제'는 3000여명의 사부대중이 함께 한 가운데 1부 마라톤대회와 2부 행복문화축제, 3부 연예인과 함께하는 '오늘은 좋은 날', 4부 회향의 마당으로 진행됐다.

연령과 성별만큼 마라톤에 출전한 이유가 제각각인 선수들은 번호표와 기록측정계를 몸에 부착하고 실력별로 하프코스와 10km, 5km로 나눠 달리기 시작했다.

40여분이 지나자 단거리 코스인 5km 완주자들이 속속 골인점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행사장을 가득 매운 관객들은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완주자들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고, 완주자들은 환한 미소와 함께 두 손을 번쩍 들고 박수에 화답했다.

개막식은 조계종 원로의원 성수 스님과 포교원장 도영 스님, 종회의원 일면 스님을 비롯해 중앙신도회 백창기 회장, 대한불교청년회 정상옥 회장,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 등 2000여 사부대중이 함께 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 · 사진=김은경 기자



9월 12일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달마마라톤대회에는 3000여 사부대중들이 동참했다.

조건부 복지시설 대책마련 시급

미신고 복지시설의 조건부 전환 만료기간이 내년 7월로 다가오면서 불교계 조건부 복지시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조건부 시설로 바뀐 불교계 복지시설은 30 여곳. 이들 시설에는 지금 장애인 노인 노숙자 청소년 아동 등 6백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 시설 대부분은 수용자의 인적사항 등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양성화에 따른 재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해 문제의 심각성으로 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도 이 같은 상황을 감안, 올 6월에 △2006년 6월까지 시설장 자격요건 충족 △ 2007년 6월까지 종사원 자격요건 충족 등을 골자로 한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 보안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미신고 시설 운영자들에게 와 닿는 실감지수는 턱없이 낮다. 실질적인 재정지원책이 미비하고, 자격선정 기준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불교계 복지 전문가들을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건비 및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외 △시설의 증개축 지원 △종사자 자질향상과 프로그램 개발 후원 △일반적인 입소기준 현실화 △소규모 가정 그룹홈으로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철우 기자



정토회 대표 유수 스님을 비롯한 정토행자 100여명은 9월 14일 부산 롯데호텔에서 빈그릇운동 10만인 서약 캠페인을 전개했다.

"빈그릇운동 동참합시다"

정토회 전국돌며 10만인 서약 거리캠페인

정토회가 빈그릇운동 전국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정토회는 9월 13일 서울역 광장에서 빈그릇운동 전국 캠페인 발대식을 가진데 이어 14일 부산, 16일 대구, 17일 울산, 20일 마산, 21일 마산에서 빈그릇운동 거리캠페인을 전개하고, 22일부터는 대전, 23일 광주 등에서 서약운동과 거리캠페인 운동을 펼치고 있다.

14일 부산에서 열린 부산지역 선포식 및 기자회견에는 한국불교환경교육원 원장 유수스님, 허남식 부산시장과 부산 정토회 주부 활동가, 회원 등 1백여 명이 동참했으며 기자회견 후 거리 캠페인을 통해 부산시민들의 서약 받기에 나섰다.

유수 스님은 "빈그릇운동은 내 건강, 지구 환경을 지키고 굶주린 이웃을 살리는 실천"이라며 "빈그릇 운동이 오늘 부산 선포식을 계기로 폭넓게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 혹은 단체 서약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단체 서약을 원하면 전국 정토회 법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정토회는 빈그릇운동의 실천 항목으로 △재료를 온전히 써서 요리하기 △적당량 요리하기 △1식 3찬의 소박한 밥상 차리기 등을 제안했다. (02)587-8990 글 · 사진=천미희 기자

목탁소리

'폭력'은 이제 그만

불교 현대사에서 큰 오점으로 남은 '폭력성'이 여전히 우리 내부에 잔존하고 있다. 최근 큰 사찰 주요 소임자 스님들과 관련된 두 건의 폭력사건 소식이 들려와 충격을 주고 있다.

전라남도의 한 유력 사찰에서 한 스님이 술을 마신 뒤 재가종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일이 발생했다. 그 스님은 이후 참회를 하고 피해자에게도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힘없는(?) 사찰 종무원에게 폭력을 가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

경상북도 소재한 큰 사찰의 스님도 최근 경내에서 다른 스님에게 폭력을 가해 코뼈를 부러뜨렸다고 한다.

지난 2001년 조계종 내에 '종단폭력 근절대책 소위원회'가 꾸려져 자성의 목소리가 드높았지만 여전히 불교계 내에서 폭력이 '현재진행형'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불교계의 한 관계자는 "불교계가 폭력문화에 길들여져 '폭력불감증'에 걸려있을 뿐 아니라 같은 절집식구라는 삐뚤어진 공동체의식이 폭력을 은폐하거나 비호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내 안의 폭력이 우리안의 폭력이 되고 우리안의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낳는다면, 폭력 앞에 불교계 모두 공범자일 수밖에 없다.

불교계와 폭력, 이제 서로 차디찬 결별의 말을 내뱉을 때다.

남동우 기자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

'찾아가는 포교, 지역사회로의 회향'을 지향하고 있는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월정사와 강원일보사는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오대산의 개산일에 즈음하여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 강원도의 대표적 축제'라는 모토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대산 월정사를 국민문화 · 수행공간으로 개방하고, 지역주민의 문화체험 기회로 마련한 제1회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어 오색 가을 단풍과 더불어 다양한 문화행사를 한껏 향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행사는 문화관광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평창군, 탄허불교문화재단이 후원하고 있습니다.

제2회 산사영화제

문화와 웰빙의 시대에 찾아가는 영화시사회를 통해 문화 향유의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활동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제 2회 산사영화제를 개최합니다.

- 상영영화 : 초승달과 밤배
- 작품소개 : 정채봉선생의 "초승달과 밤배"을 원작으로 궁핍한 삶 속에서 무공해 소년이 그려가는 천진난만하고 따뜻한 이야기로서 몬트리올 국제영화제 본선출품작
- 감 독 : 장길수 출연배우 : 이요섭, 한예린, 장서희 등
- 일 시 : 2004. 10. 8.(금) 19:00 ~ 21:0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앞
- 주 관 : 월정사

제2회 산사음악회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확대하고, 2014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오대산에서 제 2회 산사음악회를 개최합니다.

- 출 연 진 : 벨라트릭스, 첼로사랑, 이정, 영턱스클럽, 정민, 남상우, 김병조
- 일 시 : 2004. 10. 9.(토) 19:00 ~ 20:30
- 장 소 : 월정사 적광전 앞 야외무대
- 주 관 : 월정사

한 · 중 오대산 사진전

한 · 중 불교문화교류의 일환으로 문수성지인 오대산의 자연풍광과 사찰들의 일상을 담은 한 · 중 오대산 사진을 천년의 전나무 숲길에서 전시합니다.

- 일 시 : 2004. 10. 8. ~ 11. 30.
- 장 소 : 전나무 숲길 및 용금루 상설전시장
- 주 관 : 월정사 성보박물관

※ 이 외에 부처님 진신사리 이운의식 및친견, 보살계법회, 헌다례 및 육법공양,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특별전, 오대산 청소년 백일장 및 사생대회, 오대산 사진 공모전, 국제 불교문화공연, 영산작법 및 학춤 시연, 오대산 등반대회, 지역주민한마당, 강원도 특산물 전시, 장애인돕기 주봉스님 서묵전, 서각전, 티벳탕카전, 서예전, 예술연등전 등의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기 2548. 9.

대한불교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 **주지 퇴우 정념**

강원일보사 **사장 최 승 익**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

TEL 033-332-6664~5

< 신행기획 >

㊤ 이 시대의 화두 '실천'

㊦ '포교열정' 은 계속돼야 한다

활동지침 · 지원제도 필요



노인복지시설 화성 자제정사에서 봉사하고 있는 불교대학 졸업생들. 현대불교 자료사진

일부선 대외활동 하려면 주지 · 학장 눈치보기 일쑤

봉사 의무화 · 관련기관과 연결 등 모범사례 배워야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활약이 대단하다. 소규모 신행모임에서 목욕, 장의염불, 복지시설 봉사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영역이 폭넓다. 재가불자 신행패턴을 바꿔놓을 만큼 활동력도 크다.

하지만 이들의 열정적인 신행활동이 제대로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일부 불교대와 사찰 등의 '무관심' 은 현장포교 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재가불자들이 지속적으로 펼치려는 신행의지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H불교대학을 운영하는 모 스님은 "당초 불교대학을 설립한 이유는 사찰 신도회원을 다수 확보해 신도회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였다"며 "아무리 대외사회봉사활동도 좋지만 그래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사찰 일을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이러다보니 불교대학 재가불자들의 신행의식도 어정쩡하다. 배운 것을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데 머뭇거리게 하고 있다. 또 대외봉사활동을 계획해도 소속 사찰의 주지나 학장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비일비재 하다.

최근 경북 G불교대학을 졸업한 한 불자는 "졸업 동문들과 발마사지 봉사활동을 계획했었는데, 시큰둥한 학장 스님의 반응에 어쩔 줄 몰랐다"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생각지도 못한 일로 아직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불교계 재가불자 신행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려면, 먼저 소속 사찰과 불교대학이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봉사분야별 전문 강사 지원을 비롯한 인적 · 물적 자원 지원과 활동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또 졸업생들이 자발적인 신행 ·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불교대학의 재가불자 신행활동 권장은 서울 정토불교대학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찾을 수 있다. 정토불교대학은 지난 91년 문을 연 이후, '자원봉사' 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교과과정에 규정했다. 2년 과정 동안 학기당 총 16시간의 봉사활동을 펼치게 하고 있다. 봉사기관도 사회단체 길거리 모금, 환경운동 등 다양하게 선정, 활동범위도 넓혔다.

이 대학 성영진 씨(40)는 "처음에는 특별한 사명감 없이 봉사활동을 시작했지만, 대학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나를 '봉사마니아' 로 만들었다"며 "이제는 대학동문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신명나게 봉사의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한다.

대구영남불교대학도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신행 ·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다. 현재 이 대학에서는 무의탁 노인돕기, 병원봉사단 활동, 상담전화 운영 등 10가지 정도의 봉사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특히 1가지 이상의 봉사모임에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신행공간을 마련해, 조직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이외 전북불교대학은 경전독송회, 문화재 답사회 등의 동아리 활동을, 부산불교교육대학은 군병원, 군부대 법회 지도, 수화반 출신 심여회 등이 청각 장애인법회에서 수화통역을 맡는 등 재가불자들에게 다각적인 활동무대를 제공해주고 있다.

대구 영남불교대학 학장 우학 스님은 "불교대학을 졸업한 불자들의 상당수는 봉사활동과 신행활동에 대한 의지가 대단하다"며 "일부 사찰과 불교대학 스님들이 불자들의 '포교의지' 를 뒷받침해 이들을 불교발전에 '포교자양분' 으로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우 · 유철주 기자

"나는 동국 독서퀴즈왕"

동국대 도서관 책읽기 권장 퀴즈대회 열어

1등 경찰행정학과 곽상탄 씨 100만원 받아

"35번째 문제입니다. 불교가 숭상해야할 삼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보는 무엇일까요? 5초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이내 사회자가 다섯을 모두 샜다. 사회자는 흰 칠판을 번쩍 든 두 명의 학생 가운데 한 명의 칠판에 적힌 글자를 읽었다.

"부처님 · 경전 · 스님 네, 불 · 법 · 승 정답입니다."

이렇게 이날의 퀴즈왕 곽상탄(경찰행정학과 3)씨의 우승이 결정됐다. 곧이어 환호와 박수, 함성 속에서 시상식이 이어졌다.

동국대 중앙도서관(관장 최인숙)은 학생들의 책 읽는 습관을 키우고 도서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9월 15일 '제1회 동국 독서퀴즈왕 선발대회' 를 개최했다. 다른 대학에서 시도 하지 않았던 독특한 방법으로 도서관 이용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 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팔정도 불상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지난 1학기 대출횟수가 많은 다독자들 가운데 50명을 우선 선발했다. 도서관 측이 무려 200만원의 장학금을 상금으로 내걸었을 만큼 경쟁률 또한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모 방송사의 '도전 골든벨' 형식으로 열린 이번 퀴즈대회의 문제는 불교, 인문, 사회, 자연 등 각 분야별 관련 도서의 제목과 내용, 저자 등을 중심으로 출제됐다.

이날 우승자 곽상탄 씨는 총장 장학금 100만원을 상금으로 받았다.

곽 씨는 "이번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는데 실제로 우승까지 하게 되니 너무 기쁩니다. 장학금으로 이번 겨울에 계획했던 유럽 배낭여행을 하고 싶어요"라며 우승 소감을 밝혔다. 이날 문제는 의외로 까다로웠다. 실제로 난이도 높은 문제보다는 긴장하지 않고 차분하게 풀어야만 하는 상식적인 수준의 문제가 많아 참가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2등은 북한학과 4학년 이재현 씨, 3등은 문예창작학과 1학년 최윤현 씨가 각각 수상했다. 3등을 차지한 최 씨는 최근 유행하는 '올챙이송' 을 깜찍한 율동과 함께 선보여 참가자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 덕분에 패자부활에 성공해 3위 입상한 행운아다.

이날 참가자 가운데는 유일하게 승복을 입고 참가한 학생도 있었다. 불교학과 3학년 보원 스님은 22번 문제에서 아깝게 탈락해 주변을 아쉽게 했다.

대회를 준비한 도서관장 최인숙 교수는 "인터넷 문화에 젖어 책 읽기에 소홀한 요즘 대학생들에게 상당히 유익한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 매학기 마다 대회를 개최해 학생들의 책 읽는 시간을 늘려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용수 기자 pressphoto@buddhapia.com



'동국 퀴즈왕 선발대회' 에서 대상을 차지한 곽상탄 씨의 기뻐하는 모습.

한국의 비구니 스님 <23> 수현 스님

새싹불자 양성 20여년 헌신



복지 · 남북교류 등으로 활동영역 확장

결단력 · 단호함 갖춘 '계룡산 호랑이'

"70년대말 미국과 캐나다를 잠시 방문 했을때 모국어를 못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불교도 어린이들을 교육하지 않으면 훗날 어떤 모습일까 걱정스러웠죠. 그래서 시작한 교육 활동이 벌써 20년이 넘었네요."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안흥사 주지 수현 스님은 어린 새싹들에게 불교적 소양을 길러주는 것이 불교계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다. 1981년 새마을유아원을 맡으며 불교유아교육에 헌신해 온 스님. 불교의 미래를 걱정하는 스님의 모습에서 진정한 수행자의 향기가 느껴진다. 지금은 상좌 지언 스님(군포 연꽃어린이집 원장)과 지오 스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문화대학 겸임교수) 등이 스님의 뜻을 받들어 선재동자를 길러내고 있다며 밝게 웃으신다.

1940년 충남 연기에서 태어난 스님은 1955년 법주사 수정암에서 보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고 같은 해 대원스님을 계사로 사미니계를 수지했다. 57년 동학사 강원에 입학해 경학을 공부한 스님은 66년 해인사에서 자운 스님으로부터 비구니계를 받았다. 불교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해 73년 동국대 불교대학에서 근대식 교육을 받기도 했다.

스님에게는 계룡산 호랑이라는 애칭이 따라다닌다. 어린 시절 호랑이에게 물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개인적인 이력과 함께 74년부터 4년동안 동학사 주지로 재임할 당시 보여준 스님의 결단력과 단호함 때문에 붙혀진 별명 아닌 별명이다.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70년대 후반 강원에서 궁여지책으로 약간의 쌀을 양식비로 받았던 것이 스님들이 공부를 포기하게 만든 요인임을 알고 과감히 이를 없애 학인들이 공부에만 전념하게 했고 계룡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서 지방단체와 협조를 통해 지금의 동학사 사세를 갖추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 실천에도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목동청소년수련관에서 광우 스님을 모시고 8년동안 실무책임자로 불교복지에 첫 발을 디딘 스님은 97년 군포시 매화종합사회복지관을 시로부터 위탁, 지금까지 관장으로 재직하며 지역복지에 헌신해왔다.

올해에는 경기도로부터 'WE START 마을' 로 지정 받는 등 대외적으로 복지관의 모범운영에 대한 인정을 받고 있다. 그외에도 연꽃마을 이사, 군포시 복지협의회장 등 사회복지분야에서 많은 활동을 펼치고 있다.

3선 종회의원, 전국비구니회 부회장 등 불교계 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스님. 최근에는 남북불교교류에도 관심이 높다. 북한 신계사 복원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부처님 법아래 하나 되는 남북' 이 되길 기원하고 있다.

권양희 기자

전생, 사주팔자, 빙의에 얽힌 삼각관계를 아십니까?

전생의 성적표인 사주팔자(四柱八字)는 빙의(憑依)와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전생빙의연구원에서는 강의과정을 대폭 개편하여 금번 13차 전생, 빙의 워크샵을 통해 그 신비스러운 해답을 통쾌히 풀어 드립니다.

교육내용 본 교육내용을 보다 자세히 알고싶으신 분은 안내자료와 자료 비디오를 발송하여 드립니다. (발송비 5000원)

빙의 치유법	◎ 빙의 진단법 → 확인 → 영가와의 대화 → 영가천도 → 천도확인 → 재접신 방지 치유법 ◎ 악령제압법, 제3자를 통해 빙의된 사람의 영가를 불러 대화를 통한 원격제령 천도법 ◎ 사례 중심의 시청각교육 등 많은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철저한 실기위주로 지도.
전생요법	◎ 전생과 현생은 천륜보다 질긴 연결고리로서 전생체험을 통한 인과응보의 핵심원인을 찾아 전생의 업장을 해소하여 현세에 얽힌 인간관계와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고통의 단서를 찾아 스스로 지혜로운 미래의 삶을 찾게 한다.
정통 명리학	◎ 사주로 조상 영가, 빙의 보는 법..... "귀문관살"은 정신병이 오기 쉽고..... "백호대살"은 횡사, 악사로 저승사자가 따라 다니며, "허약한 사주"는 빙의되기 쉽다. ◎ "사주팔자"는 "전생의 업보"로 정해 지는데.....전생에 남의것을 많이 빼앗은 자는 이생에서 재물도, 마누라도 빼앗기는 팔자이니 이런 사주 "군겁쟁재요"..... 전생에 남자를 많이 만난 여자는 이생에서 내 남편 하나 없는 기생, 소실 팔자이니 이런 사주 "관살태왕자요".....
최면학	◎ 최면학 총론, 최면의 원리와 이해, 자기최면, 타인최면 유도법, 최면 명상법 등

빙의(憑依)란? 흔히 귀신들림으로 말해지며 영혼이나 강력한 힘, 절대적 신의 힘이 사람에게 침투하여 삶의 전반이나 특정 증상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흔히 "내 안에 누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나를 조정할 수 없다", "누군가 내 머리 속에서 뭐라 얘기하는 것 같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데 세계 보건기구(WHO)국제 질병 분류에는 이를 포제션(Possession)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빙의장애현상 빙의된 사람의 경우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심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한 행동, 괴벽, 정서불안, 우울증 등의 증세를 보이기도 하며, 때로는 환청이나 환각, 악몽, 가위눌림 등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빙의 영가의 생전시 질병이나 사고 부위에 같은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한다. 또한 원인 모를 불임시에도 낙태 영가를 의심해봐야 한다.

정통 명리학 30여년 동안 많은 역학자를 배출한 고은(高恩) 이화정 선생 직접 강의!!

故 이석영 선생의 사주첩경을 바탕으로 "생극제화"의 원리를 아주 쉽게 지도하여 초보자라도 명쾌하게 상담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교육과정 및 일정 각 과정별 교재 및 실습 테잎 제공

과 정 명	교육비	교육시간
빙의치유•명리학 과정	100만원	총 48시간
전생•빙의•명리학 과정	200만원	총 63시간
♣10월 6일 개강 (매주 수요일 오전10시~오후8시까지) 7회 과정		



주최 : 한국 전생·빙의 연구원

주관 : 한국 최면 아카데미 WWW.HYPNOS114.COM

• 전 화 : (042) 255-0734~5
• 장 소 : 대전시민회관후문 청운빌딩 (2층 본원 강의실)
대전역에서 택시로 5분거리
• 홈페이지 : www.hypnos114.com

[특 전] 이수증 수여
[수강신청] 전화 접수 및 방문신청
개인 및 소수 특별지도 (출장강의 가능)
[기타문의] 초청 강연 및 개인문제 상담 별도 문의
[입금계좌] 조흥은행 591-01-008086 (예금주: 한국의식개발원)
(교육이수 후 무료 재수강 및 지속적인 자문 지원)

大野 임 재 형 상담학 박사
한국생활최면실천학회 회장
대한 최면심리학회 부회장
한국교육최면학회 부회장
SBS백만불 미스터리, Vi세상 속으로, iTV,CMB등 출연
인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청주대학교 외 다수 대학에서 강의

동국대 경주캠 '외국인 존' 설치 세계로 점프

불교국가 출신 유학생 100여명 유치
내년부터 … 방학때 사찰생활로 불교이해
문화 · 어학 · 국제적 감각 공유 기대

동국대 경주캠퍼스에 100여명의 유학생이 생활하는 '외국인존(Zone)' 설립이 추진된다.

동국대(총장 홍기삼) 경주캠퍼스는 최근 불교국가출신 우수 유학생을 선발해 '외국인존'을 만드는 것을 골자로하는 세계화전략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 같은 계획은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존 설립 프로그램은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를 비롯해 네팔 몽고 등 10여개 불교국가의 종단 및 사찰과 자매결연해 매년 10~20명씩 유학생들을 추천받아 5년간 교육하는 과정으로 꾸며진다.

첫해는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4년간은 학부에 입학해 원하는 전공을 선택케 한다는 것. 유학생들에게는 학비와 체류비 전액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유학생들에게 불교적 심성을 길러주기 위해 국내 각 종단과 교구본사 등과도 1:1 자매결연을 추진해 방학 동안에는 사찰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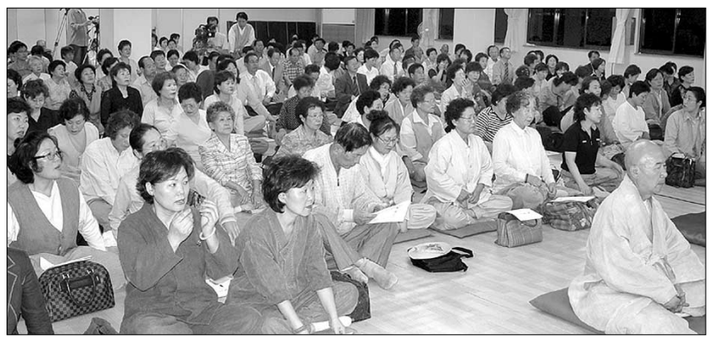
유학생들이 졸업할 경우 불교국가에 진출해 있는 국내 대기업에 취업을 의뢰해 모국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또 이들이 생활하는 외국인존에는 서구의 유학생들도 유치한 뒤 경주캠퍼스 재학생들이 함께 생활하며 어학을 비롯해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는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동국대 경주캠퍼스 한 관계자는 "이사장과 총장의 최종 결제가 남아 있으나, 지방대학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종립학교의 특성을 살린 차별화 전략이 절실한 만큼 실행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매주 화요일 고우 스님 만나세요"



고우 스님의 '선요' 특강을 듣기위해 전국에서 모인 불자 200여명이 불교TV 대구지사 무상사 법당을 가득 메웠다.

대구 불교TV 12월 21일까지
'선요' 통한 선의 진수 특강

대구에서 선가의 지침서인 '선요'를 통해 선의 진수를 소개하는 귀한 자리가 마련됐다.

불교TV 대구지사 선불교대학 무상사가 '내가 부처'라는 화두로 널리 알려진 선원장 고우 스님(각화사 선덕)을 초청해 9월 14일부터 12월 21일까지 매주 화요일 14회에 걸쳐 '선요' 특강 법회를 개최한다.

'선요' 특강 첫날은 불교TV회장 성우 스님, 동화사 부주지 진담 스님을 비롯해 250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해 법회의 열기를 더했다.

고우 스님은 먼저 "왜 불교를 믿어야 하는가?"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시종일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에 대해 법문했다.

스님은 "부처님이 찾아 나선 행복은 외적 행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매일 매일 좋은 날이며, 하는 일마다 행복한, 생로병사까지도 받아들이는 것이라며, 앞으로 3개월간 이어질 법회에 빠짐없이 온다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스님은 "'참선은 문자를 세우지 아니하며 닦고 깨달음을 빌리지 않는 것으로 종지를 삼는다'는 구절에 불교가 다 들어있다"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가운데 보고 듣고 하는 귀한 자리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상 모든 것은 연기로 존재하니 자유자재하고 비교하지 않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행복하게 살라고 법문했다.

고우 스님은 1968년부터 69년까지 문경 봉암사 선원을 재건해 종립특별선원의 기틀을 다지고 축서사, 김용사, 용주사, 각화사 등 제방 선원에서 정진한 이 시대 대표적인 선원장 스님으로 봉화 각화사 서암에 주석하고 있다.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연화사 중심 불교테마공원 조성

통영시, 성지로 집중 육성

통영시가 연화도를 불교성지로 집중 육성,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방침이다.

통영시는 9월 13일 '통영시 중 · 장기발전계획' 중 문화관광분야에 오는 2010년까지 욕지면 연화도의 연화사를 중심으로 '불교테마공원'과 '해양 체험공간' 등을 조성해 전국 불자들의 순례지 및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연화사가 최근 대웅전, 요사채, 진신사리탑 등 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곳에 해수관음상을 봉안하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보덕암 불사가 회향되면 연화도를 찾는 불자들은 물론 외지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연화도 관광개발계획은 시가 청주대학 산업경영연구소(소장 박호포)에 의뢰해 수립한 것으로, 연화도 일대를 불교테마공원과 쇼핑공간, 해양체험공간, 해양레포츠 공간 등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골격으로 하고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연화도의 불교테마공원 조성계획이 마무리되면 연화도가 전국적인 불교성지이면서 유명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배움 · 상생의 도량으로…"

대구 지장선원 만불보탑 낙성

대구 동구시장에서 포교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온 지장선원(선원장 지공)이 팔공산 진인동 갓바위 인근에 육각 만불보탑 도량을 조성하고 9월 13일 낙성법회를 봉행했다.

동화사 주지 지성 스님을 비롯해 사부대중 200여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선원장 지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지장 도량을 넘어 나눔의 도량, 배움의 도량, 함께하는 복지 도량으로 자리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지 240평에 연건평 100평 규모로 건립된 만불보탑은 지난 3월에 착공해 지하 1층 지상 2층의 육각 탑 모양으로 조성됐다. 1층에 법당, 2층에 시민선방이 마련된 만불보탑의 8m 높이 외곽 지붕에는 13자의 대불 지장보살을 비롯해 5자의 6지장보살과 30Cm의 1만 지장보살을 봉안할 예정이다.

한편 1급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추고 노인요양복지시설인 '붓다의 집' 원장을 역임한 경력이 있는 지공 스님은 '100만명이 동참해 소외된 이웃을 위한 보살행을 실천하자'는 뜻으로 '1인 1지장 갖기 백만 지장보살 봉안 운동'을 벌이고 있다. 스님은 이 운동을 통해 적립된 복지 불사 기금을 실비 노인 요양원을 건립하는 데 출연할 방침이다.

배지선 기자

가르침 얻고 올바른 불자 되길…

대구 · 부산 파라미타 청소년포교 활발

파라미타청소년협회 대구지부와 동화사가 덕원중학교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동화사 템플스테이' 첫 닻을 9월 11일 올렸다.

9월 11~12일 동화사에서 보낸 하룻밤은 학생들에게 짧지만 특별한 경험이었다. 친구들과 산사에서 머물며 발우공양을 배우고, 동화사 팔공다회 황명화 회장이 직접 우린 차를 음미하며 스님의 법문도 들었기 때문이다. 또한 학년 구분 없이 6개조로 나눈 조별활동시간에는 동화사에 근무하는 분들을 취재해 발표하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가르침을 얻고, 참회발원을 한줄 쓰고 3번 절을 하면서 앞으로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시간도 가졌다.

덕원중학교 파라미타 부장 정민창(덕원중 3년) 군은 "파라미타 전국수련회에 참가할 때는 사람 수도 많고 복잡해 잘 몰랐는데, 우리학교만 따로 템플스테이를 하니 스님에게 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주말도 반납하며 템플스테이를 지도한 신연섭 대구교사불자회 회장은 "학생들 중에서 한명이라도 올바른 불자가 나온다면 그것이 보람"이라고 밝혔다.



9월 11일 동화사에서 열린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학생들이 신연섭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차를 마시기 전 합장의 예를 올리고 있다.

한편 파라미타 부산지회는 9월 12일 부산 초읍 어린이대공원내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파라미타 청소년회원들을 위한 청소년예술제를 열었다. 파라미타 창립 8주년 기념 대회와 함께 열린 이날 예술제에는 파라미타 회원들이 직접 준비해 무대에 올린 승무, 부채춤, 북, 마술 등이 펼쳐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는 파라미타 부산 청소년협회 총재 대성 스님,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범어사 포교국장 무관 스님을 비롯 20여개 중 · 고등학교에서 8백여 명의 청소년들이 참석했다.

천미희 · 배지선 기자

부산 성불사 중창 불사 회향



부산 성불사 중창 불사 회향법회에서 주지 혜원 스님을 비롯한 대중스님들이 테이프를 커팅하고 있다.

본원종 부산 성불사(주지 혜원)가 9월 12일 중창 불사 회향법회를 갖고 지역민을 위한 포교, 수행도량으로 새롭게 탄생했다.

성불사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만을 사용해오던 건물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하 1층, 지상 4층의 현대식 건물 안에 대웅전, 독성각, 관음전, 삼성각, 공양실, 요사채 등을 고루 갖춘 도량으로 거듭났다. 도심 사찰로서의 포교 기능을 배가시키기 위한 이번 불사 회향을 계기로 성불사는 시민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향법회에서 성불사 주지 혜원 스님은 "성불사가 사하구민의 기도 정진 도량으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의 수행 정진을 이끌어가는 포교도량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환희불교복지대학 입학식

아픈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봉사하겠다는 원력을 세운 사람들에게 전문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교양대학이 문을 열었다.

전문적인 호스피스를 양성하기 위해 부산 관음사(주지 지현)가 9월 14일 관음사 원통보전에서 50여명의 신입생이 참석한 가운데 입학식을 갖고 3개월 과정의 교육을 시작했다. 환희불교 복지대학 수강생들은 3개월동안 생명의 의미과 가치, 말기 환자 간호 및 통증관리, 치매환자 관리, 경락, 심신이완요법 등의 전문 교육을 받게 된다. 수료 후에는 각 병원과 연계 자원봉사 활동이나 간병인으로 활동하게 된다. (051)294-9300

천미희 기자

2004 실버일자리 박람회 열려

불교사회복지회 남구노인인력지원기관은 대구2004실버일자리 박람회의 원활한 준비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9월 13일 건들바위 네거리에 박람회 사무국을 열었다.

사무국 개회식은 지도 스님(불교사회복지회 대표이사)을 비롯한 시청관계자, 관련 복지단체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0월 19~20일 대구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대구 2004 실버일자리박람회에서는 1500여명의 대구지역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배지선 기자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노인전문요양원』 건립을 위한

고승초청 선 · 서화전

모시는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한 알의 씨앗이 복밭에 떨어져 만 알의 곡식을 거두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불가의 스님네들은 먹과 붓을 가까이 하여 수행의 한 방편으로 삼아 선 · 서화 작품을 가까이 해 오셨습니다. 산사의 작은 방에서 세속을 떠난 옛 선사의 체취를 느낄 수 있는 "고승 초청 선 · 서화전"이 노인 복지에의 원력으로 부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길이자, 불교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뜻이리라 확신하며, 다시 만나기 어려운 고승들의 주옥같은 작품으로 여유 있는 가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9월
통도사 자비원 대표이사 현 문 합장

초청스님

· 월하대종사(전.조계종 종정)
· 원명큰스님(비로암)
· 중광큰스님
· 수안큰스님(축서암)
· 성파큰스님(서운암)
· 석정큰스님(단청 인간문화재)
· 상우큰스님(시탑전)
· 동원큰스님(사명암)
· 원산큰스님(백련암)
· 청운큰스님(취운암)
· 중선큰스님(수도암)
· 관우큰스님(무량암)
· 무주스님(선방수좌)

-무 순-

부산전시 일시 : 2004. 10. 4(월) ~ 10. 8(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 국제신문사 제1전시실(4층)

울산전시 일시 : 2004. 10. 11(월) ~ 10. 15(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 불보신문 사옥(1층)

통도사전시 일시 : 2004. 10. 21(목) ~ 10. 22(금) 오전 10시 ~ 오후 7시
장소 : 통도사 경내 (개산대재 기간)



주최 : 영축총림 통도사 주관 : 사회복지법인 통도사 자비원

후원 : 통도사 신도회, 지장회, 관음회, 사리탑봉찬회, 통도사자비원후원회, 불교TV, 불교방송, 불교신문, 법보신문, 현대불교, 불보신문 문의 : 055)383-3999,381-3999,6500

"孝실천·봉사의 도량 될것"



9월15일 열린 신안 불교노인전문병원 개원식에 참석한 내빈들이 개원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신안에 불교노인전문요양원 개원

지역민에 건강검진
기초생활자 무료 입소

남도 땅 서쪽 끝 신안군에 불교노인전문요양원이 개원됐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목포지부(지부장 법정 스님)는 9월 15일 신안군 압해면 바닷가에 자리한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해남 대흥사 조실 천운 스님, 대흥사 주지 몽산 스님을 비롯한 관내 사암 스님들과 고길호 신안군수, 고판술 신안군의장 등 지역 기관장, 사회복지 관계자,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몽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 요양원은 불교의 효 사상을 실천하는 도량으로 오늘의 우리를 있게 한 어르신들을 소중하게 모셔 잊혀져가는 효를 되살리자"고 말했다.

개원식에 이어 몽산 스님과 고길호 군수는 원내에서 요양원 개원을 축하하는 기념식수를 했다.

이번에 개원된 신안군 노인전문요양원은 부지 1600여 평, 지하 1층 지상 2층 연건평 400평 규모로 물리 · 심리 치료실과 세탁, 목욕, 이 미용실 등 현대식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다. 요양원에는 65세 이상 치매, 중풍 등 만성노인성 질환을 앓는 노인들이 입소할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다.

또한 요양원에서는 입소자를 대상으로 각종 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지역민을 위해 정기 건강검진과 생활환경개선 프로그램도 가동하고 있다.

초대 요양원장을 맡은 성원 스님은 "불교복지 불모지나 다름없는 오지에서 첫 발을 내딛게 되어 불자들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며 "자원봉사는 물론 정기 후원회에 많은 동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신안군 노인전문 요양원은 지난해 12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목포지부가 신안군으로부터 위탁받아 현재 51명의 노인이 입소해 있으며 이들을 위해 간호사, 복지사 등 29명의 요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노인전문 요양원(www.yoyangwon.or.kr. 061-271-6100)

후원: 농협 653026-51-034071 (예금주)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

이준엽 기자

관세음 보살상 진위 결론 못내
절차없이 이운 복장 개봉 수난



최근 진위여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순천 선암사 원통전 관음보살상 감정(사진)이 선암사 대중과 순천시 관계자, 감정위원이 참가한 가운데9월 10일 선암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렸다.

이 과정에서 관음보살상이 의식절차도 없이 감정실까지 이운되고 복장(腹藏)이 개봉되는 수난을 겪었다. 이날 감정위원들은 불상의 진위여부를 가리지 못하고 각자 감정소견서를 순천시에 제출키로 했다.

순천시 문화관광과 양동의 과장은 "소견서에서도 상반된 의견이 나오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 수사기관에 의뢰해 재감정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 관음보살상은 선암사 원통전(유형문화재 169호) 주불로 18세기 중엽 목조로 조성되었다. 최근 일부 스님들이 '원통전 불상이 바뀌었다' 고 주장해 이날 전문가 감정이 이뤄졌다. 이준엽 기자

송광사 영산전 부식심해 보수

해충과 습기로 부식이 진행 중인 순천 송광사 영산전(보물 제303호)이 내년 초 전면 해체보수공사에 들어간다.

송광사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영산전 바닥과 천정이 부식으로 변색되고, 단청이 훼손되고 있어 보수를 위한 현상변경 허가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했다"며 "내년 초 전면 해체보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송광사 영산전은 조선 인조 17년(1639년)창건, 1963년 보물 303호로 지정됐으며, 조선 전기 건물의 기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준엽 기자

'보조국사 지눌' 엽서로 화현

보조국사 지눌 스님이 엽서로 화현해 대중 속으로 다가간다.

순천 송광사는 1세 보조국사를 비롯해 2세 진각국사, 14세 정혜국사 진영을 엽서로 제작해 보급하고 있다. 일반인에게 송광사 문화재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작한 이 엽서는 '법열에 뜨는 탱화' '성보' '조계종림의 우아한 자태' 등 3종류로 각 10매씩 3000조를 제작했다. 이준엽 기자

"선운사의 가을엔 음악이 활짝"



전통 불교문화와 현대 대중음악이 만나 한바탕 '야단법석'을 펼쳤다.

고창 선운사(주지 범여)는 9월 11일 대웅전 앞마당에서 '마음과 마음으로 천년을 잇는 소리제전, 산사음악회(사진)'를 개최했다.

개산 1427년을 기념해 마련된 이번 산사음악회에는 전국에서 찾아온 1000여 대중이 함께했다.

음악회에 앞서 주지 범여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마음과 마음이 하나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산사음악회를 마련했다"며 "세속의 묶은 찌꺼기는 남김없이 버리고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기 바란다"고 말했다.

산사음악회 천여명 동참

이날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특설무대에는 사중 스님들이 직접 출연해 법고, 대금독주, 3중 합주를 선보였다. 또한 한영애, 권인하, 주병선, 한서경 씨 등 국내 정상급 라이브 가수들이 나와 대중과 하나 되는 시간을 꾸몄다.

한편 선운사는 산사음악회에 앞서 영산전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사진작가 전제우 씨의 '선운사 사계 사진전'을 만세루에서 개최했다. 이준엽 기자

하은혜·박준 등 6명에 치료비
생명나눔본부, 소아암 기금

생명나눔실천 광주 전남지역본부(본부장 현장, 이하 생명나눔본부)는 지난 15일 화순 전남대병원 원장실에서 소아암 백혈병 환우 치료기금 1000만원을 강형근 병원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생명나눔본부가 '삶을 나눕시다, 생명을 나눕시다'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것으로 소아암 백혈병을 앓고 있는 하은혜(5), 김용태(7),박준(17)군 등 6명의 환우 치료비로 지원된다.

한편 지난해부터 소아암 환우 돕기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생명나눔 본부는 금년들어 3차에 걸쳐 16명의 소아암 환우들에게 총 47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062)234-6602 이준엽 기자

마라도 기원정사 봉불점안

우리국토 최남단 마라도의 해수관음성지인 기원정사(주지 혜진)는 9월 12일 송광사 회주 법흥 스님 등 5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해수관음전 봉불점안법회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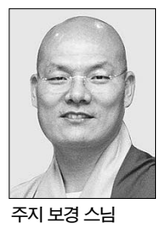
이날 법회에서 법흥 스님은 "이번 해수관음전 신축불사를 계기로 기원정사가 최고의 해수관음기도도량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한명우 기자

지금, 우리 절에서는…

서울 사간동 법련사

"포교 30년 노하우 보여줄 것"


주지 보경 스님

"법련사가 도심 포교를 시작한지 벌써 30년째입니다. 이제 한 단계 품격 높은 불교, 불자들이 참여하는 불교를 준비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1974년 개원 이래 삼보회 보림회 등과 함께 대표적인 신행단체로 꼽히는 불일회의 활동 무대 서울 법련사(주지 보경). 도심 포교의 중추 역할을 해 온 법련사가 최근 제2의 도약기를 맞고 있다.

이는 인근 인사동 삼청동 지역이 수도 서울을 대표하는 문화촌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있다. 지난해 주지 소임을 맡은 보경 스님은 급격히 변화하는 주변 상황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다면 30년 넘게 쌓아올린 '저력'이 그만큼 빛을 바래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법련사는 문화 포교의 전진 기지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미술관 · 서점 · 출판사 갖춘 문화공간 활성화

문화포교 도량을 만드는 일에 불자들의 동참을 이끌어냄과 동시에 절이 보유한 미술관과 서점, 출판사, 학술단체를 120% 활용하는 지혜를 모으는 것도 시급했다.

올해 초 불일미술관에서 연 칼라차크라 만다라 전시회도 그런 목적으로 열렸다. 티베트 불교의 진면목을 불자는 물론 일반인들에게 알리자는 목표에서 치뤄졌다. 각종 불교 문화강좌들도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법련사는 내년 활동을 목표로 경희대 자연사 박물관과 함께 어린이 환경교실, 생태기행, 불교문화학교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어린이 요가교실, 사찰 음식 강좌 등 포교 프로그램을 꾸리는 것도 검토 중이다.

올 6월에는 군 포교를 위해 호신불 30만개를 군법사단을 통해 지원하는 군포교도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군데 불교 복지시설 등에 의류 2000점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랜 연륜을 가진 신도회의 재정비 역시 중요한 일이다. 조달공 성균관대 교수, 재가법사 여진거사, 수관 거사, 신영훈, 최완수 문화재전문위원 등 기라성 같은 신도들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도회를 재조직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법련사는 불교계 대표적인 학술단체 보조사상연구원의 논문집 <보조사상>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해 공신력도 높일 계획이다. 한 · 중 · 일 불교학자 50여명을 연구원으로 임명하고 제2기 연구위원회가 올해 내로 발족되면, 연 8차례 진행되는 월례 발표회와 정기학술대회를 한층 내실 있게 만들기 위한 장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법련사는 이를 뒤에서 지원하기 위한 재정 확보에도 노력하고 있다.

보경 스님은 "도심사찰들은 신도를 찾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을 타종교에 빼앗기는 것 같다"며 "학교 육영 사업 등을 지원, 거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교신자로 만드는 활동을 펼쳐 서울의 불교문화를 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02)733-5315 강유신 기자



법련사는 보조사상연구원의 내실을 다지기 위해 논문집 <보조사상>을 학술진흥재단에 등록할 예정이다. 사진은 보조사상연구원이 제57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하는 모습.

www.bbsfm.co.kr


BBS FM 101.9MHz

큰스님! 불교방송 맞아요?

다양한 프로그램 다양한 즐거움, BBS 불교방송

세상 이야기, 음악 이야기, 문화 이야기, 시사 이야기...
부처님 가르침은 물론, 다양한 즐거움을 선사하는 BBS 불교방송 -
듣고 있노라면 어깨가 들썩이고, 가슴이 훈훈해집니다.
귀를 뗄 수 없는 즐거움, BBS 불교방송에서 한번 웃어보세요.

서울 FM-101.9MHz
부산 FM-89.9MHz
광주 FM-89.7MHz
대구 FM-94.5MHz
안동 FM-97.7MHz
포항 FM-105.5MHz
청주 FM-96.7MHz
춘천 FM-100.1MHz

BBS 불교방송

화합이 발전의 열쇠

세대·계층 구별없는 전천후·전방위 포교 '가동중'

경남 마산·창원·진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화합과 단합의 중요성은 두 번 강조할 필요가 없는 덕목이다. 마산과 창원 불교는 '뭉치면 산다'는 모범을 그대로 보여주는 전형이다. 전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마산과 창원의 각 종단, 신행단체, 법인 들은 똘똘 뭉쳐서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는 마산을 중심으로 한 인근 지역의 폐사지와 고찰에서 보듯, 이 지역이 융성한 불교 자산을 갖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마산과 창원 불교를 생생하게 살아있게 하는 저력은 바로 마산창원불교연합회라는 단합된 힘에서 기인한다.

더욱이 마산 창원 불교의 단합은 결코 오합지졸의 뭉침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오히려 마산 창원 개개의 사찰들이 갖고 있는 포교 역량들은 개별적인 힘만으로도 충분할 만큼 돋보이는 것이다.

#마산

바다를 끼고 있는 마산불교는 기복 신앙의 성격의 짙다. 그러나 정법사, 정인사 등 정법을 펴고 있는 사찰들을 중심으로 중부경남권의 중심다운 불교세를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일제 강점기를 보내며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정법사는 그 전통에 걸맞은 중창불사를 발원하고 불법홍포와 중생구제에 적합한 21세기형 도량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웅보전, 시민선방, 극락전, 신행단체 사무실 등을 갖춘 도량을 건립, 시민들의 수행, 휴식 공간으로 활짝 열어놓겠다는 포부다.

또한 '사회 환원이 곧 포교'라는 신념으로 무료급식, 불우이웃돕기 등 복지 사업을 펼치는 한편, 영축불교대학을 설립하고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래불교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마산 불교계에서는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마산중리복지관의 활약도 돋보인다. 마산 지역의 복지시설은 천주교가 17곳, 기독교가 22곳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 불교계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마산중리복지관 단 한곳뿐. 불교 복지 사업의 대표주자인 셈이다.

이 밖에도 해인사 백련암 포교원인 정인사는 매월 초 7일간의 참회기도, 매주 능엄주 독송 법회, 철야 3천배기도, 철야 참선 정진 등으로 수행의 향기가 높은 도량.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한자 교실과 역사탐방은 침체된 청소년 불교에 활로를 열어놓고 있다.

#창원

마산이 오랜 연륜으로 안정적인 불교세를 과시한다면 창원불교는 새로운 변화와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1980년 창원시가 분리되기 전 하나의 도시였던 마산과 창원. 창원 불교는 창원사암연합회를 결성, 형님격인 마산불교를 뛰어넘기 위한 발전적 경쟁을 도모하고 있다. 그 선의의 경쟁, 맨 앞에 창원 성주사가 있다.

성주사는 창원불교에 큰 그늘을 드리운 거목이다. 성주사의 지원을 받는 단체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며 대우자동차, 두산중공업 등 창원 지역 불교 모임의 법회가 열리는 창원불교의 산실. 또한 매년 가을, 산사문화축제를 일주일동안 열어 지역민과 함께 호흡하고 있으며 불모학당, 불교대학을 운영하며 신도 교육의 체제를 확고히 하고 있다.

39사단 내에 있는 군 법당 안국사도 군 포교와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두루 하고 있다. 군 포교 전진 기지인 동시에 민간 불자들의 신행도량. 법해 법사는 창원불교청년회의 지도법사로 활동하며 지역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원정 스님, 도성 스님, 원행 스님, 해초 스님 등 마산, 창원, 진해의 스님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 수련, 자원봉사, 문화캠프 등을 열며 청소년의 미래를 열어가고 있다.


마·창 불교연합회는 매년 이웃사랑 자비나눔한마당 행사를 열고 4천만원을 불우이웃에게 전달해 오고 있다.

마산 '사회환원이 포교다' 사업활발
창원 수행·복지·축제 시민과 함께
진해 연합활동으로 '활력' 찾기 분주

정화를 겪으며 갈등의 골이 깊었던 사찰들이 힘을 모으기 시작한 것은 1990년 마·창불교연합회가 결성되면서부터다. 이후 연합 봉축 대법회, 시민 연등제, 시민 탑돌이 법회, 경남불교지도자 기원법회, 시민불교문화상,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불우이웃돕기 등의 사업으로 '불교'라는 이름을 드높여 왔다.

이 과정에서 창립 때부터 마·창불교연합회 사무국장을 맡아온 박수철 사무국장은 스님과 스님, 사찰과 사찰간의 윤활유로 화합의 단추를 끼워온 숨은 일꾼으로 스님들 사이에 칭찬이 자자하다.

#진해

반면 진해불교는 '흩어진' 개개의 사찰로 위축된 불교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

정암사, 심원사, 대광사, 성흥사 등을 비롯한 몇몇 사찰들의 활발한 활동과 진해사암연합회의 무료급식소 운영이 묻혀 버릴 만큼 진해불교는 구심점을 잃은 채 고전하고 있다.

마산, 창원, 진해가 함께 참여하는 마산창원진해불교연합회 결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마·창불교연합회의 주도하에 마산 창원 진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합체를 만들고 각 지역의 고른 발전을 꾀하기 위한 것. 마산, 창원, 진해에 별도의 사암연합회를 두되, 각 사암연합회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을 정하고 각 사업을 지역별로 배분, 진행함으로써 시대가 요구하는 불교 역할에 세 지역의 힘을 결집시키자는 것이다.

마·창불교연합회 회장 원정 스님은 "마산과 창원불교의 단합된 힘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고 마산, 창원, 진해 불교의 고른 발전을 위한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마·창·진불교연합회가 창립으로 수행, 포교, 통일, 환경, 복지 등의 분야에서 앞서가는 활동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마산·창원·진해=천미희 기자

시민불교문화상

문화예술로 부처님 가르침 생활화
14년역사, 마산·창원 문화 견인

한해의 성과와 결실을 정리하는 연말, 마산 창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 예술인들을 위한 각별한 자리가 마련된다. 마산창원불교연합회가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제정한 '시민불교문화상' 시상식이 바로 그것.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 불교계가 제정, 시상하는 상이지만 종교와는 무관하게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10년 이상 꾸준히 활동해 온 문화인, 예술인, 언론인 등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향토문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문화예술인과 언론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문학, 예술, 지역개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는 시민불교문화상 수상자들에겐 상장과 함께 각 300만원씩의 상금이 창작 지원금으로 지원되고 있다.

그동안 문학부문에서 김열규 계명대 석좌 교수, 경남시조문학회 이사 이처기 시조시인, 예술분야에 조순자 한국여창가곡기능보유자, 경남도자기예술협회 회장 진종만 도예가, 지역개발부문에 이순항 경남도민일보 사장, 이점호 경남신문 전 편집국장 등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수상자의 면면도 다양하다.

특히 전국연극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극단 '마산'이 문화단체 상을 수상하기도 하는 등 시민불교문화상은 지역 발전에 기여한 개인은 물론 문화단체에도 힘을 보태주며 침체된 지역문화에 활기를 불어넣은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1990년 마산창원불교연합회 창립과 더불어 제정된 시민불교문화상은 올해로 14회째를 맞으며 권위 있는 문화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끝없는 나눔으로 정진

지태 스님
마산 정법사 주지



8년 전 정법사로 부임한 스님은 곧바로 불우이웃돕기를 시작했다. "먹고살기도 빠듯한데"라는 신도들의 반대를 잠재운 것은 스님의 솔선수범. 사찰 재정을 신도들이 직접 관리하면서 사찰의 주인이 된 신도들은 무료급식, 결식아동, 독거노인 돕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특히 스님은 마·창불교연합회 회장직을 맡으면서도 사회화원이 곧 포교라는 소신으로 종파를 초월, 불교 힘 모으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총 150억 규모의 정법사 중창불사를 진행하고 있는 지태 스님은 마산 최고의 포교, 수행, 복지 도량 건립을 추진 중이다.

무료급식으로 노인공경

원행 스님
마산 정인사 주지



원행 스님은 자가용이 없다. "일부러 운동도 하는데, 차가 없으면 오히려 편하다"는 게 이유다. 차가 없지만 복지를 향한 스님의 행보는 고속으로 나아가고 있다. 봉화어린이집, 금강어린이집 등을 운영하며 교육 불사에 관심을 기울여온 스님은 이제 노인복지로 영역을 넓혔다. 복지를 지향하는 스님의 원력이 신도들을 움직여 무료급식소 대중공양의 집을 운영하고 있고, 10년 준비 끝에 기숙사를 인수, 노인 이용 시설을 개원하게 된다. 늘어나는 노인 인구를 위해 불교가 해야 할 일을 모색하고 실천하기 위해 10월 경 금강경로센터(가칭)를 개원할 예정.

'서원곡 지킴이'로 불려

월봉 스님
마산 석봉암 주지
태고종 경남종무원장



월봉 스님은 마산중학교,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한 마산 토박이다. 마산의 명소로 꼽히는 '서원곡유원지'에 위치한 석봉암 주지를 맡은 이후 '서원곡 지킴이'로 불린다. 자상하게 지혜를 일깨우는 월봉 스님의 원력 덕분에 석봉암엔 2~3대를 이어 다니는 신도가 많다.

특히 직접 도안, 설계한 납골 시설을 갖춘 관음영현전은 스님의 장례문화개선 의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스님은 앞으로 합포만이 훤히 내다보이는 석봉암에 해수관음상을 봉안하고 4대 관음기도도량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원력을 세워놓고 있다.

'불모산 영산재' 기능 보유자

석봉 스님
마산 백운사 주지



통영과 고성지방을 중심으로 계승 발전된 불모산 영산재의 맥을 잇고 있는 석봉 스님. 경상남도를 대표하는 무형문화재 제 22호로 전국민속예술축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불모산 영산재 범패, 작법무 기능보유자인 스님은 범패의 내용 속에 선리와 교리가 모두 들어 있어 기도와 정진이 없으면 범음범패의 완성은 어렵다며 수행에도 철저하다. 현재 스님은 불모산 영산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제대로 보존하기 위해 영남범패의 전승과정, 악보, 춤사위 등을 담은 책자 발간을 추진 중이다.

경남 불교사회복지 선구자

진홍 스님
마산중리복지관 관장



불모지나 다름없던 불교사회복지 분야를 개척한 선구자. 부산 경남 일원에서 불교계 최초로 위탁받은 마산중리복지관 관장을 11년째 맡고 있다. 복지, 자원봉사, 후원 등에 대한 불교계의 인식 부족으로 늘 재정적 어려움에 시달리며 달려온 10년이었다.

마산중리복지관을 운영하며 '밥 주는 복지'가 아닌 '어려움을 해결하고 나누는 복지'를 배우게 된 스님은 지금도 마을의 해결사로 통한다. 때론 자식처럼, 때론 친구처럼 마을 어르신들의 고충을 알뜰하게 챙기느라 스님의 하루해는 짧기만 하다.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사회참여·포교에 탁월

원정 스님
창원 성주사 주지
마·창 불교연합회 회장



한가람청소년문화재단 이사장, 마·창 지역 교도소 법사단 단장, 맑고 향기롭게 경남모임 대표, 마·창 환경운동연합 고문 등 일일이 셀 수 없는 원정 스님의 숱한 직함들은 마산 창원 지역에서 성주사와 원정 스님이 차지하는 역할과 위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사회에서 필요로 할 경우, 종교인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하나둘 직함을 수락하게 된 것이 창원 불교에서 원정 스님과 성주사를 빼놓을 수 없게 된 이유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스님은 불교의 자기 정립이 확고해야 대사회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며 수행자 본연의 모습을 강조했다.

30년 자리지킨 '터줏대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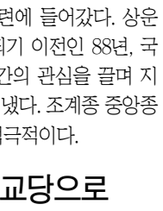
도흥 스님
창원 불곡사 주지
창원사암련 총무



창원불교의 터줏대감. 고등학교 졸업 후 30년 동안 줄곧 불곡사에 머물며 불사, 포교에 매진해온 스님을 모르는 사람이 드물다. 마산, 창원의 불교 사정에 밝고 스님간의 유대가 각별해 마·창 사암련 사무총장, 창원사암연 총무를 오랫동안 맡아왔다. 불곡사에서 이뤄진 불사 모두에 스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부지런하기도. 노인들을 위한 휴식 공간 마련과 은사이신 취봉 스님의 뜻을 받들어 장학회를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약사여래 원력 실천

도근 스님
진해 심원사 주지
진해사암련 회장



도근 스님은 토끼와 각별한 사랑을 나누는 스님이다. 어느 날 새벽 차고에서 목숨을 구해준 토끼 '토솔이'이와의 인연을 계기로 생명의 지중함을 깨닫게 된 스님은 "진정한 방생이란 어려운 처지의 사람이나 병든 동물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평범한 실천에서 시작된다"고 강조한다.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해 사암련 차원에서 봉축행사, 문화 행사가 마련돼야 한다는 게 스님의 생각. 동산 스님의 상좌인 스님은 당초 100여 평 뿐이던 심원사를 2천여 평 규모의 도량으로 일신했듯 진해불교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고민이 깊다.

어린이포교 열정

상운 스님
진해 정암사 주지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



정암사 부설 연꽃 어린이집을 운영중인 상운 스님은 어린이집을 직접 설계했을 정도로 어린이 포교에 대한 관심이 남다르다. 특히 스님은 맞벌이 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영아전담반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땅 한 평 사기운동을 펼치며 부지 마련에 들어갔다. 상운 스님은 산사 음악회가 보편화되기 이전인 88년, 국악인 초청 경로잔치를 열어 세간의 관심을 끌며 지역민과 사찰의 어울림을 이끌어냈다. 조계종 중앙종회 사무처장으로 종단 일에도 적극적이다.

군법당을 도심포교당으로

법해 스님
창원 육군 39사단
군법당 안국사 법사



법해 법사는 6개월 전 안국사로 부임하면서 군인들뿐 아니라 민간 불자들의 신행 욕구까지 챙기고 있다. 98년 임관 군 포교에 매진했던 법해 법사는 군 법당이면서 동시에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해야 하는 안국사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법해 법사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군 장병 포교. 훈련병의 수계법회를 중요시 하는 이유다. 수계를 받은 훈련병들의 눈빛이 달라지는데다 불연을 맺어주는 첫 단추가 된다는 믿음 때문이다.

매 안거마다 2만명 동참 ·신도회가 사찰운영·입교법회…

천태종 '결속파워' 비결은?

천태종은 다른 종단과 달리 불자들의 결속력과 응집력이 유달리 강하다는 평을 듣는다. 40여년의 짧은 종단역사에도 불구하고 천태종이 제3종단으로 자리 잡은 주된 요인과도 궤도를 같이 한다. 그 이유를 따져보았다.



천태종 신도들은 강한 응집력으로 천태종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사진은 올 하안거에 동참해 구인사에서 기도수행을 하고있는 신도들.

천태종은 9월 15일 총본산 단양 구인사를 비롯해 전국 250여 사암에서 하안거 해제법회를 봉행했다. 1개월 기간으로 1년에 두차례(여름 · 겨울) 실시되는 안거 때마다 2만여명에 달하는 재가불자들이 방부를 들이고 있다. 이 안거는 천태종 신도들 사이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로 통할 만큼 천태종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 안거는 필수코스…매년 2만명 참가

안거 외에도 천태종 신도들은 총본산 구인사에서 열리는 입교법회와 4박5일 기도에 동참할 것을 권유 받는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 정식 천태종 신도로 인정받게 된다. 총본산 체제를 통해 중앙집권적인 종단운영을 기하는 동시에 신도들에게는 총본산을 매개체로 한 천태종의 신도라는 공동체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제도다.

실제로 천태종의 강력한 응집력은 상월 원각 조사와 총본산 구인사를 통해서 나오는 측면이 강하다. 지역사찰에 다니고 있으면서도 구인사 신도라고 자부하는 천태종 신도들이 많은 점은 이를 잘 보여준다. 이같은 제도를 통해 총본산 참배를 정례화 함으로써 애사심이 애종심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종단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천태종의 신도응집력에 대한 의문을 풀어주는 보다 직접적인 해답은 신도 중심의 '눈높이' 사찰 운영을 통해 신도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천태종 사찰은 사찰의 재정, 신도교육, 기도운영, 각종 불사 등 주요 사찰업무를 신도회가 직접 관장한다. 총무, 교무, 재무, 홍보, 기획 등 7개 부서로 구성된 신도회는 활동이 활발한 신도들로 구성돼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 받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신도 위주로 사찰을 운영함으로써 신도들의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신도 개개인은 신도들의 대표단체인 신도회의 활동에 힘을 보태는 상호작용이 이뤄진다.

● 불사 재정확보 · 운영 신도들이 책임져

사찰신도회 간부들의 임명장을 종정 스님이 직접 수여하는 점은 여느 종단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징 가운데 하나. 이는 신도회 간부들의 자긍심을 키워주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구인사 4박 5일 기도는 물론 안거도 성실히 참여해야 신도회 간부를 맡을 수 있도록 한 점도 천태종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사찰의 창건에 신도들이 직접 동참하는 천태종의 독특한 시스템도 애사심과 애종심을 갖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천태종 총무원은 산하 모든 사찰의 불사가 신도회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배려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사찰불사는 신도회가 재정 확보에서부터 운용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주지 스님의 관리를 받기는 하지만, 신도들 스스로 불사계획에 따라 보시와 노력봉사 등 어떤 행태로든 참여하게 된다. 이렇듯 창건불사부터 참여하다보니 신도들은 사찰을 '내 집'처럼 생각하고 각별한 애정을 쏟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밤과 낮을 구분하지 않고 24시간 열려 있는 도량으로 운영되는 방식 또한 신도들의 주인의식을 키워주는 중요한 포인트다. 상월 원각 조사의 '주경야선' 가르침에 따라 철야기도가 주요 수행으로 자리 잡고 있는 탓이다. 이 때문에 천태종의 모든 사찰은 '대문 없는' 사찰을 지향하고 있고, 신도들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찰을 찾아와 기도에 참여하고 있다.

● 24시간 열린도량…철야기도 생활화

이 외에도 신도들의 스님들에 대한 강한 신뢰, 종정 스님을 중심으로 위계질서가 확고한 종단체계 등은 '천태종도'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천태종 사찰의 주지직 임기는 4년. 연임의 제한이 없다. 신도들은 어떤 스님이 주지로 오더라도 변함없는 신뢰를 보여준다. 신도들이 구인사에서 3년간 고된 행자생활을 거치는 배출과정과 엄격한 승가의 위계질서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권영철 서울 관문사신도회장은 "상월 원각 대조사님과 총본산 구인사를 중심으로 한 종단운영 시스템과 신도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찰운영 시스템이 결합된 결과"라며 "한국불교가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른 종단들이 천태종과 같은 운영체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태고종 위성방송 사업 진출

연내 방송국 설립…내년에 정식 개통

태고종이 불교를 콘텐츠로 한 위성방송 사업에 진출할 전망이다.

태고종 산하 (재)한국불교태고원(이사장 일우)은 최근 방송위원회로부터 불교위성방송(BSB)이라는 채널명으로 방송채널 사용사업자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태고원은 올해 안으로 방송국을 설립하고 2005년 5월 시험방송을 거쳐 2005년내 정식방송을 시작한다는 기본계획을 골자로 세부계획 마련에 착수했다. 불교위성방송국 개국이 성사될 경우 불교 위성TV는 불교텔레비전과 함께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태고종은 방송국 운영에 정통한 재가불자가 참여한 가운데 올 3월부터 타당성 검토 등 방송채널 사용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교리 해설, 불교문화 소개 등 불교프로그램을 주요 편성내용으로 케이블TV 운영 기본계획을 마련해 방송위원회에 등록했다.

사업자등록을 마친 태고종은 방송국으로 사용하게 될 서울 강남 소재의 건물과 방송장비 대여 등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30억원 가량의 개국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을 세우지 못해 개국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개국준비 추진위원회 구성도 미뤄지고 있다.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은 "총무원 집행부와 원로 · 중진 스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청취해 이달 중순께 불교위성방송국 설립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봉영 기자



법상종 총무원 부원장 도일 스님

법상종 중앙종회(의장 도명)는 9월 10일 서울 망우동 총무원 회의실에서 제57차 중앙종회를 열고 총무원 부원장으로 추천된 도일 스님(사진)을 인준했다. 이날 종회에서는 또 사단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 9월 22일 안성 쌍미륵사에서 원로의원, 지방교구 종무원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기인총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총무원 부원장 도일 스님은 1987년 봉화 현불사에서 설송 스님을 은사로 득도, 통도사 강원을 수료했다. 이후 공주 대원사를 거쳐 98년 아산 불승정사를 창건해 포교활동에 매진해왔다.

천태종 인천 황룡사 22일 상량식

지상 5층 종합불교회관



9월22일 상량식을 앞두고 천태종 인천 전법도량 황룡사가 위용을 드러냈다.

천태종 인천전법도량 황룡사(주지 무원)가 높이 20여미터, 연건평 1500여평에 이르는 위용을 드러냈다.

기본 골조공사를 마무리하고 외관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황룡사는 9월 22일 오전 11시 5층에 들어서는 대웅보전 상량식을 봉행한다.

120억여원을 투입해 4600여평의 부지에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고 있는 황룡사는 1층 사무실, 공양간을 비롯해 2층 소강당(기도실)과 문화교실, 3층 대강당, 4층 객실과 신도회 사무실, 5층 대웅보전과 요사채 등을 갖춘 종합불교회관이다. 주불로는 높이 3~4m 크기의 청동으로 제작된 천수천안 관세음보살이 봉안돼 불자들을 맞는다.

무엇보다 황룡사가 완공될 경우 웅장한 규모에 어울리는 인천지역에서의 역할도 기대되고 있다. 인천 서구 백석동에 위치해 앞으로 취약지역인 인천의 포교활동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황룡사는 불교교양대학을 개설해 천태신앙의 대중화에 힘써 나가는 한편, 일요문화법회 개최, 결식아동 후원, 외국인 노동자 법회 개최 등을 통한 포교활성화에 힘써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총지종조 원정 대종사 입적 24돌 추모불사



9월8일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총지종로 원정 대종사 입적 24주년 추선불사.

총지종(통리원장 우승)은 창종조 원정 대종사의 입적 24주기를 맞아 9월 8일 서울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사원에서 추선(추모)불사를 봉행했다.

서울 총지사에서 열린 추선불사에서 종령 효강 대종사는 "한국불교를 선도하는 종단이 될 수 있도록 모든 후학과 교도들은 가일층 정진을 거듭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정 대종사는 1907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나 진각종조 회당 대종사와 더불어 진각종을 세웠으며, 제2대 진각종 총인을 역임하다가 72년 총지종을 창종했다. 이후 초대 총지종 종령을 맡아 교상과 교학체계를 세우는 데 심혈을 기울이다가 80년 9월 입적했다.

한편 총지종은 원정 종조의 사상과 교상을 잇기 위해 종조기념관을 건립, 10월 18일 개관불사를 봉행할 예정이다.

박봉영 기자

천태종, 北에 건설장비 대여

영통사 도로공사 지원

개성 영통사 복원용 기와와 단청재료 등을 지원해 온 천태종 나누며하나되기운동본부가 이번에는 영통사 진입로 및 주변도로 공사에 사용될 건설장비를 북측에 대여한다.

총 3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9월 16일 1차분으로 굴삭기, 휠로더, 브레이커, 다짐기, 평토기, 지프차량 각 1대, 불도저 2대 등을 북측에 전달했다. 이들 장비는 개성시내 북쪽에서 영통사까지 10㎞에 이르는 진입로 확장과 인근 송도호(松都湖) 주변 관광도로(14㎞) 개설 공사에 사용된다.

진각종청년회 문화포교 밴드 'J&B소울' 결성

서울청년회(회장 장우영)가 회원들로 구성된 음성포교단 '제이앤비(J&B)소울'을 결성해 문화포교에 나섰다. J&B소울은 '음악을 사랑하는 진각종 불자들의 밴드'라는 뜻을 지닌 Jingak New Buddhist band of Soundholic의 약자를 딴 이름.

J&B소울은 앞으로 국악관현악단 오느름, L.M.B Singers, 타악퍼포먼스 야단법석 등 불교계 유관단체와의 유기적으로 결합돼 연주회 활동을 펼쳐 나가는 한편, 각종 음악 동아리와도 교류활동을 갖기로 했다.

人 事 말 씀

前 禪學院 理事長이신 南山堂 正日大禪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8年 9月 11日 (陰 7月 27日) 敎團의 元老 · 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시고 法住寺 門中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8年 9月 日

四 十 九 齋 案 內

南山堂 正日大禪師 四十九齋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다 음

구 분	장 소	일 시	전 화
1재	법 주 사	9월 13일(음 7. 29.) 월요일	043)543-3615
2재	서울 보광사	9월 20일(음 8. 7.) 월요일	02)993-3808
3재	지리산 정각사	9월 27일(음 8. 14.) 월요일	055)972-1109
4재	부산 보광사	10월 4일(음 8. 21.) 월요일	051)973-7158
5재	거제도 보광사	10월 11일(음 8. 28.) 월요일	055)687-0509
6재	제천 무암사	10월 18일(음 9. 5.) 월요일	043)652-0897
49재	서울 보광사	10월 25일(음 9. 12.) 월요일	02)993-3808

● 문의 : 서울 강북구 우이동 산 63-9 보광사 ☎ 전화 : 02)993-3808 / 팩스 : 993-6981

南山堂 正日大禪師 門中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혜 정 護 喪 도 형
執行委員長 도 공 門徒 代表 대 현

무기와 번뇌의 마음을 무념과 반야로 바꾸는 수행방법과 수행단계

부산 법기불교대학 제5기 수강생 모집

귀의삼보하옵고
불교의 참뜻은 자기 스스로의 수행으로 마음의 속성을 바꾸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하여 참선수행의 입문부터 무여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수행단계와 수행방법을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부산법기선원 불교대학 제5기 과정이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부산법기불교대학 강의 일정]

차례	강 의 내 용
1주	입재 / 중생의 마음 (무기 / 번뇌, 가아 / 진아)
2주	수행방법 (관법과 염법) / 친목의 시간
3주	사찰의례 (합방, 절하는 법, 예불문, 전각 / 법당) / 법담 나누기
4주	기초교리 (4성제, 8정도, 삼법인, 오온, 12처 18계, 연기법) / 호흡점검
5주	삼매와 삼매관성, 경계와 법, 업장소멸의 원리 / 선배의 수행경험담
6주	철야정진 / 상기의 극복 (멜로디), 지식호흡과 반지식호흡
7주	수행자의 건강관리 / 반별 법담 (도반의 수행담)
8주	좌선과 행선 (1시간) / 수행단계와 수행방법
9주	유여열반과 무여열반 (돈오, 무념, 반야, 삼신불) / 이근관, 안근관 / 호흡점검
10주	기복불교, 북방불교·남방불교의 비교분석 / 멜로디 연습
11주	잘못된 불교상식 바로알기 / 설문조사
12주	회향 / 선지식 법문

[개강]
· 저녁반 : 2004년 10월 5일 (화요일) (오후 7:30 - 9:30)
· 주간반 : 2004년 10월 6일 (수요일) (오후 2:00 - 4:00)

[접수]
· 부산법기선원 (T.051-516-9104)
· www.bubkisa.or.kr (한글도메인 '법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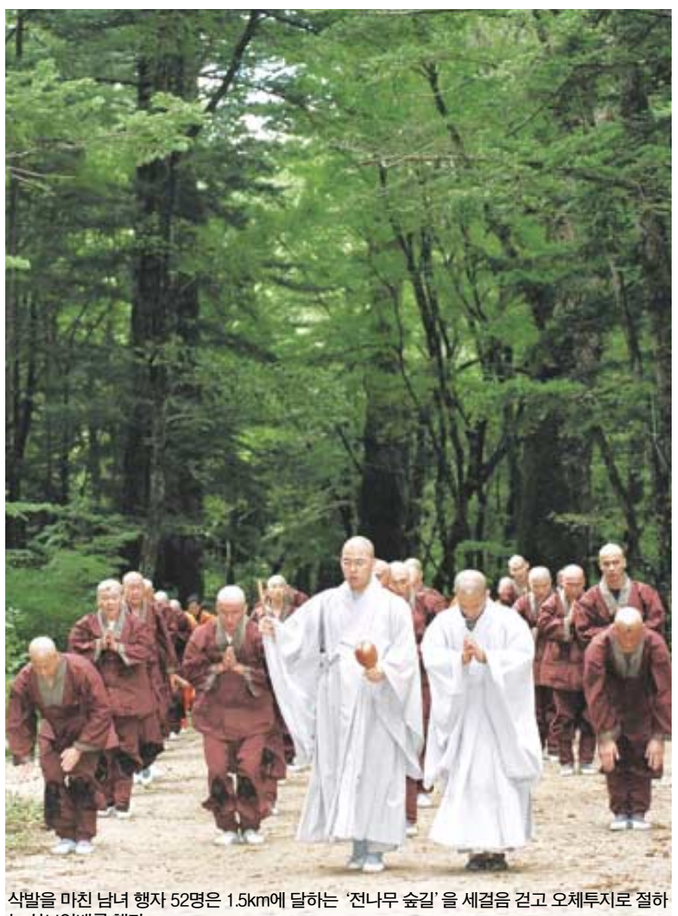
[수강료]
총 95,000원 (교재비 포함)

*서울선원 법회일정은 02-854-18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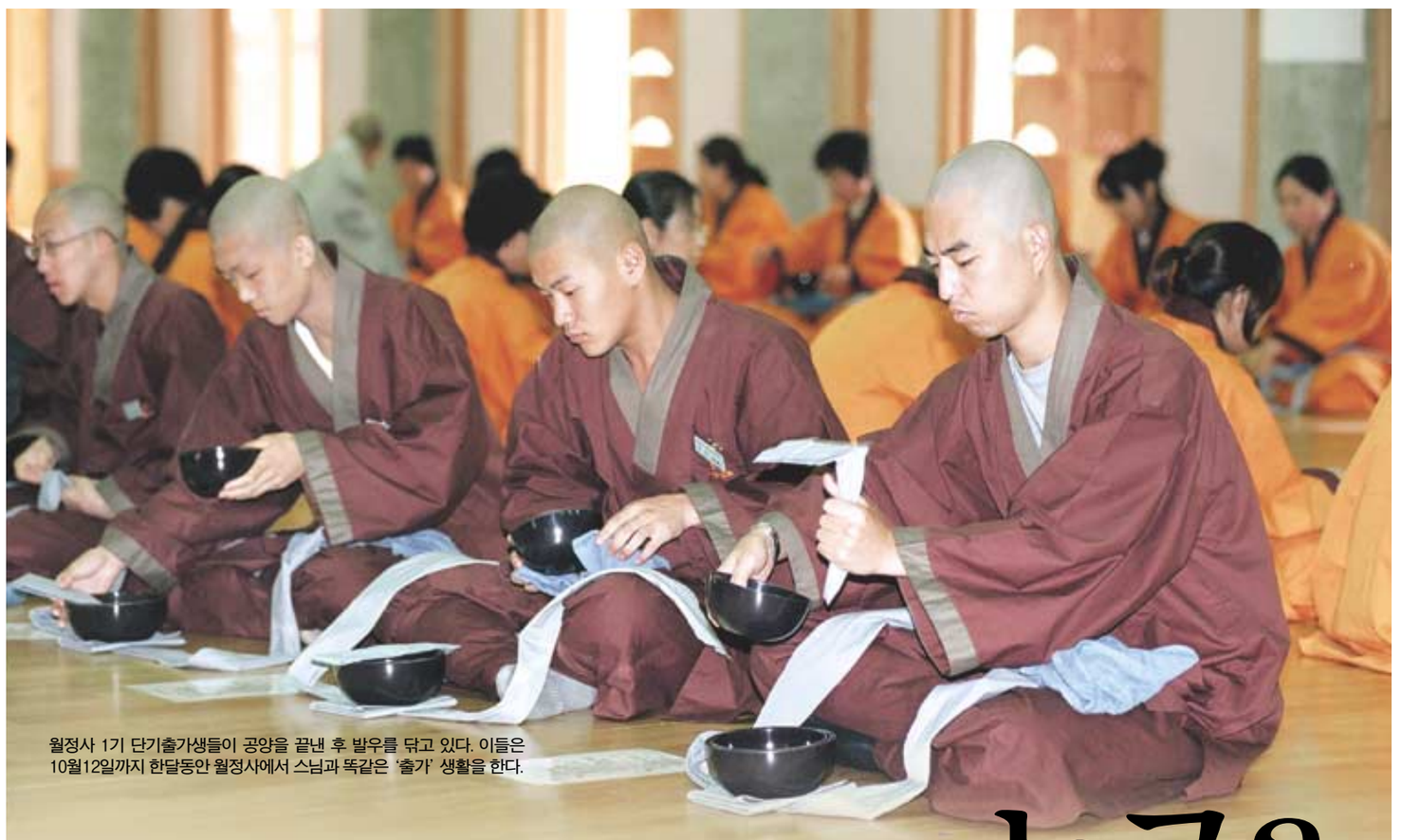
BUBKI BUDDHIST TEMPLE 바른수행 바른깨침 법 기 선 원

대구불교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무료제작
문의) 053-427-5114
대구 FM 94.5MHz
안동 FM 97.7MHz
포항 FM 105.5MHz
www.dgbbs.co.kr

BBS 춘천불교방송 FM100.1MHz
음악이 있는 오후 오후 3:05 ~ 4:00
감자바우 황금바우 오후 4:10 ~ 4:45



삭발을 마친 남녀 행자 52명은 1.5km에 달하는 '전나무 숲길'을 세걸음 걷고 오체투지로 절하는 삼보일배를 했다.



월정사 1기 단기출가생들이 공양을 끝낸 후 발우를 닦고 있다. 이들은 10월12일까지 한달동안 월정사에서 스님과 똑같은 '출가' 생활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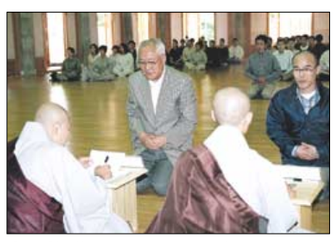
속세의 옷 벗고 돌아보니 나는 누구?

52명 재가불자 행자복에 머리깎고 한달간 수행자 생활

월정사 단기출가 입교 현장

2002년 붓다뉴스가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불자의 93%가 한번쯤은 꼭 출가를 해 수행자의 길을 걷고 싶다고 했다. 그만큼 세속 모든 것을 훌훌 떨쳐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한 수행의 삶을 사는 것은 불자라면 누구라도 해 보고 싶은 일이다. 그러나 세상에 잡혀 사노라면, 그처럼 결심하고 실천하기란 여간 힘들지 않다.

여기 남녀 26명씩 52명의 재가불자가 한달이라는 짧지만은 않은 기간 동안 출가 수행자와 똑같은 생활을 자원했다. 월정사(주지 정념)가 9월 13일~10월 12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교한 단기출가학교. 13일 입교한 제1기생은 앞으로 한 달 동안 월정사에서 행자 교육을 받는다.



9월13일 입교 후 갈마를 받고 있다.



9월14일 열린 삭발식.



오계를 받는 남녀 행자들.



발우공양을 위해 '식사작법'을 배우고 있다.

삶의 큰 변화(입교)

9월 13일 오후 오대산 월정사. 무거운 짐 가방을 들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람들이 삼삼오오 몰려든다. '누구냐?' '어디서, 왜 왔냐?'고 물어도 돌아오는 대답이 없다. 단기출가학교에 왔냐고 하면 고개만 끄덕인다.

월정사 단기출가학교. 군 제대 후 곧바로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한다는 홍인창(23) 씨는 "군에 있는 동안 꼭 한번은 스님처럼 살고 싶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렇게 쉽게 이뤄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기뻐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입학식에 참석한 심미숙(33) 씨도 "아직 진짜로 출가할지 정하지는 못했지만 스님처럼 사는 일이 내 삶에 큰 변화가 될 것 같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병아리 행자들의 생활은 그렇게 시작됐다.

출가의 첫 관문은 '갈마'다. 건강여부 인생관 신앙심 출가동기 등을 물어 절 생활 적응 가능성을 판정한다. 빡빡한 행자 생활을 견디려면 보통 정도의 건강함과 의지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갈마를 맡은 스님들이 입학생 중 3명 정도가 행자 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의견을 내놓았다. 스님들은 1시간 가까이 이들의 합격 불합격을 놓고 격론을 벌이기도 했다.

안일과 타성에 젖은 몸 '놓아라'(고불식)

13일 오후 행자로 입교했음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이 봉행됐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청나라 순치황제는 출가를 하며 '황금옷을 입고 천하를 다스리는 일보다 가사를 입고 출가하는 것이 더 어렵다'는 내용의 시를 지었다"고 출가하는 것의 소중함을 일깨우며 "삭발염의하고 스님이 되기 위한 예비과정인 행자생활을 몸으로 경험함으로써 안일과 타성에 젖은 삶의 자세를 바꿔가는 진정한 출가 의미를 가슴 속에 담는 기회로 삼으라"고 당부했다.

무명의 죄업 씻어 버리고…(삭발 · 삼보일배)

이번 단기출가학교의 특징은 스님처럼 삭발을 한다는 것이다. 출가 이틀째인 14일 새벽 4시 삭발식을 앞둔 행자들은 적광전 부처님 앞에서 새벽 예불을 올리며 무명 덩어리를 벗어 던지겠다는 다짐을 했다.

새벽 예불은 삭발식으로 이어졌다. 26명 남 행자들은 입학 때 전원 삭발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여 행자들도 4명이 삭발을 자원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남녀 행자 52명이 모두 지그시 눈을 감고 '탐진치'의 무명을 빚은 죄업을 참회하기 위한 참회진언을 외우는 가운데, 머리카락이 뚝뚝 잘려나간다.

최종대(29) 씨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드디어 내가 부처님의 길을 따라가게 됐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리는 것 같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삭발식 후 부모님과 부처님을 향해 삼배를 올렸다.

행자들은 삭발 결의를 한 번 더 다지기 위해 삭발탑을 참배했다. '무명초(無明草)'를 잘라버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는지 그것마저 삭발탑 아래 파묻었다. 행자들은 다시 헛된 망상이 빚은 내 죄업을 참회하기 위해 삭발탑에서 팔각구층탑에 이르는 1.5km의 길을 세 걸음 걷고 오체 투지하는 삼보일배로 지나갔다.

"반드시 계를 지키겠습니다"(수계)

행자들은 14일 오후 5계를 받기 위해 적광전 안에서 장궤합장을 했다. 수계법사 정념 스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부처님의 계율을 지키겠냐"고 묻고, 그때마다 행자들은 "죽는 한이 있어도 계를 지키겠습니다"며 서약했다.

정념 스님은 남녀 행자들에게 수계증과 발우를 전하며 "자기 성찰을 통해 맑고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당부했다. 연비까지 마친 남녀 행자들은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오대산 연화봉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좌선 · 독송 · 울력…번뇌 잊고 절생활(습의)

절 생활 삼일 째로 접어드는 9월 15일. 남녀 행자들은 절 생활의 수행 일과, 행동거지, 사찰 의식 등을 배우는 습의과정에 들어갔다. 간단한 예불의궤를 먼저 배웠다. 차수법, 좌법, 합장, 안행, 발우공양 한 가지도 허투루 하는 법이 없다. 소임과 울력도 각자 나눴다.

조석예불과 공양에 한번 불참하면 벌점 2점이고, 15점이면 예외 없이 퇴방을 당한다. 남녀 행자들은 10월 12일까지 새벽 4시에 기상해, 좌선 발우공양, 소임별 울력, 사시예불, 불교 교리 공부 등을 한다.

■ 취재 후기

이번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는 사회현장에서 치열한 삶을 살아온 불자들이 많다. 회사원 강진환(36) 윤여희(36) 씨를 비롯, 현직 교사인 강영훈(50) 씨 등은 특별히 1개월 휴직을 한 후 참석했고, 자영업자인 김경자(40) 씨 등도 약국 등 일터를 1개월간 닫고 월정사에 왔다.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모 건설업체 부회장을 퇴직한 송광섭(69) 거사가 최고령자로 기록됐고 가장 나이 어린 사람은 대구 오송중 문경원(14) 군이다. 이번에는 아내가 단기출가학교에 입학하고 다음 2기에는 남편이 입학하기로 약속했다는 부부도 있었다.

이번 1기 참가자 52명 중 11명은 정식 출가를 하겠다고 밝혔다. 월정사는 정식 출가를 원하는 사람을 조계종에 행자로 등록시켜 교육을 시킬 방침이다. 월정사는 매해 4~5회씩 단기출가학교를 실시할 예정이며 제2기 단기출가학교는 11월 8일 개교한다.(033)332-6661~5

월정사=강유신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www.drsaju.com
프로페셔널을 위한
역학전문 온라인 아카데미
사주박사
전문 역학인을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아카데미
프로 사주박사가 문을 활짝 열고 역학 고수를 꿈꾸는
여러분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명·미래·삶 창
프로 사주박사 (www.drsaju.com) 는...
* 프로 사주박사는 일반인들이 사주를 보는 곳이 아닙니다.
* 프로 사주박사는 역학에 대해 수준 높고 전문적인 공부를 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 각 분야의 권위있는 선생님들이 체계적인 강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역학 전문 포털 사이트 입니다.
1. 프로 사주박사가 회원님들께 드리는 파격적인 특전 – '사주박사 6.0' 사용
* 프로 사주박사의 회원(월 회비 36,000원)이 되면 지난 10여 년 동안 전문 역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역학 전문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을 사용할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됩니다.
* 역학 전문가용 최신 프로그램 '사주박사 6.0'은 현재 시중에서 볼 수 있는 여러 역학 프로그램 중 오류를 완벽하게 수정, 보완한 최신 프로그램으로 개별 구입 시 가격이 150만원이나 하는 고가 프로그램입니다.
* 프로 사주박사 회원은 '사주박사 6.0' 프로그램이 수시 업그레이드 될 때도 제한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회원님의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관리해드립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역학에 자신이 붙으면 개인 홈페이지 하나쯤 갖고 싶은 게 당연합니다. 프로 사주박사 에서는 홈페이지를 만들고자 하는 회원님을 위해 저렴한비용 (초기개설비 6만원)으로 개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드리고 정성껏 관리해 드립니다.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98-5 삼환빌딩 3층 선도텔레콤 주식회사 Tel. 02)742-3025~8 Fax. 02)742-3023

인터넷 이용 인구 3천만 명 시대. 정보의 바다에는 불교가 가득하다. 인터넷만 켜면 큰 스님의 주장자 소리를 골라 들을 수 있고 불교 관련 행사들이 동영상으로 불자들의 안방에 제공된다. 그야말로 사이버 인드라망 속에서 살고 있는 셈이다.

'일과 수행'의 두 바퀴를 굴리는 일터불자들도 마찬가지. 신행정보와 불교지식을 찾기 위해 사이버 세상에 불법의 뗏목을 띄우는 직장불자들이 많다. 인터넷에서 성지순례를 떠나는 것은 기본, 사이버불교대학에서 공부, 아예 인터넷 포교사로 나선 직장불자들도 있다. 매일매일 '신행정보의 바다'에서 불법을 낚아올리는 일터불자들. 이들의 사이버 신행 노하우를 배워본다.



없는게 없는 사이버 사찰…"사무실이 법당이죠"

30분 일찍 출근 인터넷 켜고 예불 · 명상 · 교리공부에 뉴스까지

'사이버 법당' 참배로 하루 시작

농협중앙회 불교회원 이종훈 경영검사부 팀장(48). 그의 출근 시간은 30분이 빠르다. 인터넷상에 창건한 '농협불자 사이버 법당(daum.net/nacfbuda)'을 참배하기 위해서다. 우선 농협불자 법당에 업데이트 시켜놓은 '통도사 새벽예불' 동영상으로 아침예불을 올린다. 그리고 <천수경>과 <반야심경> 동영상을 연이어 '보고 들으며' 독경을 한다. 25분 남짓, 사이버 법당에서 예불을 마치고 곧바로 명상음악을 듣는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갖는다.

이 팀장이 이렇게 사이버 법당에서 참배를 한 것은 지난 2003년 8월부터. 늘어난 업무량에 능력급 연봉제 등으로 근무환경이 꽉 조여지면서 사찰을 직접 찾을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수행의 고삐는 놓지 말아야겠고, 근무여건은 이를 허락하지 않다보니 이 팀장이 고민 끝에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사이버 법당 참배였다.

이 팀장의 기발한 발상은 최근 벌이는 '매일 농협법당에 헌향하고 꼬리말 달기' 운동으로 이어져 100여 명의 농협불교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인터넷은 직장불자들에게 참으로 유용한 '놈'입니다. 하루 종일 일에 치이고 몸과 마음이 늘 쫓기는 직장불자들에게 손쉽게 신행생활을 할 수 있게 하지요. 사이버 법당에서 갖는 예불은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기 점검을 할 수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은행 불자회원 현동관 은평구지점장(48)도 인터넷에서 불교와 만나고 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하는 현 지점장은 신행원찰인 서울 화계사 홈페이지부터 찾는다. 그날의 숭산 스님의 텍스트 법문을 읽고 감명 깊은 법구를 정리한다. 또 즐겨찾기로 모아둔 붓다뉴스(buddhanews.com) 등 불교계 언론사들의 뉴스를 보면서 교계 현안도 살펴본다. 그리고는 스님 법문과 자신이 간추린 불교계 소식들을 사내 내부 전산망에 있는 우리은행 불자회 게시판에 올린다.

"직장인들은 꿈을 꿔도 직장 일로 꾼다고 합니다. 촌각까지 아껴 쓰지 않으면 일은 물론이고 신행생활도 게을러 질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 시간을 쪼개 사이버 상에서 스님 법문을 접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청량제가 됩니다."

클릭클릭! 불교를 배운다

2003년 대구영남불교사이버대학 기초반을 졸업한 제주도청 불자회원 강대성 농경유통과 계장(52). 인터넷에서 불교 배우는 재미에 푹 빠져있다. 때와 장소와 상관없이 큰 스님들의 감로법문을 듣고 친견할 수 있어서 그렇다. 퇴근 후 1시간씩 특강 동영상을 보면서 그간 몰랐던 불교교리를 하나 둘씩 알아갈 때면, 작은 법열(法悅)까지 경험한다고 말한다.

"전에는 불상을 봐도 어떤 부처님인지 몰랐습니다. 주위 동료들이 불교에 대해 물어도 늘 머리만 긁적거렸지요. 이제는 불상의 손 모양으로 무슨 부처님이신지 단번에 안답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불교공부가 제 신행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인터넷을 통해 신행점검을 받는 일터불자도 있다. 경기 양주군청 정미자 씨(53)는 사이버 절 '열린절(cafe.daum.net/buruna21)'에서 시숍 법현 스님(서울 자운암 상임법사)에게 메일로 지도를 받으며 신심을 키우고 있다. 불교에 갓 입문한 정 씨로서는 일생생활 속에서 자기 신행 상태와 기초교리를 배우는데 귀중한 공간이 되고 있다.

"대중법회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도 남의 눈치 보느라 손들고 질문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인터넷 불교공부방을 알게 되면서 의문점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질문을 자유롭게 게시판에 올리면 수시로 스님께서 답변해 주시니까요."

아예 본격적으로 '인터넷 포교사'로 나선 직장불자도 있다. 서울도시철도공사 한범수 잠실역무관리소장(56 · 대광). 한 소장은 지난 97년 능인선원 불교대학에서 2년 넘게 배운 것을 바탕으로 올 1월 '직장불교(cafe.daum.net/officebuddha)'를 개설했다. 카페를 만든 이유는 간단했다. 불교를 처음 접한 직장불자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 발을 동동거리는 현실이 안타까웠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인터넷 포교. 때문에 한 소장이 만든 '직장불교' 카페에는 불교기본 상식에서부터 경전해설, 불교사에 이르기까지 불교의 모든 것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야무진 코너들이 수두룩하다.

맹목적인 인터넷 위주 신행은 위험

'인터넷 포교사'로 유명한 서재영 동국대 강사는 사이버상의 신행활동이 주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한다. 인터넷 신행활동은 보조 역할에 국한돼야 한다는 것이다. 사이버 상에서 떠도는 수많은 불교 관련 정보들이 반드시 '올바른 정보'가 될 것이라는 맹신을 버려야 한다고 주문한다. 불법을 가장한 타종교의 선교자료, 미신과 기복을 조장한 정보들이 불교에 처음 입문한 직장불자들에게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서 강사는 직장불자들이 바른 불교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이를 위해 불교계에서 공신력 있는 종단, 단체들이 제공하는 불교정보를 우선 취하라고 말한다.

특히 서 강사는 직장불자들이 맘 놓고 인터넷 신행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려면, 범종단 차원의 '인터넷 불교정보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신행정보를 믿고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여름특별기획-일터불심 10대 화두

① 일터, 마음 닦는 수행처
② 직장 동료 · 상사 · 후배, 모두를 도반으로
③ 아직도 출퇴근 시간에 졸고 있습니까?
④ 하루 5분 수행, 인생이 달라진다.
⑤ 스트레스, 불교에 치유법 多 있다.
⑥ 술과 담배 그리고 과식은 신행의 적
⑦ 불교 제대로 믿으면 저절로 부자 된다
⑧ 한달에 한번 집중수행 필요
⑨ 틈틈이 읽는 불서, 인생을 풍요롭게
⑩ 인터넷은 신행정보의 보고

우리불자회는요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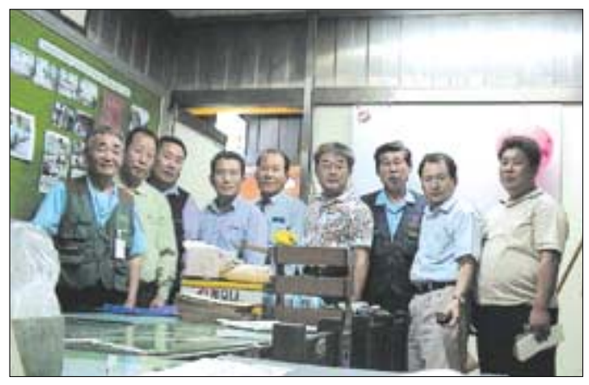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가 창립된 것은 14년 전입니다. 불교방송이 첫 시험방송을 끝내고 개국하던 날인 5월 1일. 우리 불자회도 함께 창립됐습니다. 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널리 알리자는 취지로 첫 모임을 가진 것입니다.

그 때의 환희심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포교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운수종사자 상호간의 신행생활을 증진하는 신행단체로 출범하는 순간, 불자라는 것이 너무도 자랑스러웠습니다.

월 각 사찰에서 정기법회를 열고 있으며 불우이웃돕기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달리는 큰 법당'이란 애칭에 걸맞게 인터넷 홈페이지(www.bbsfmbus.co.kr)로 만들어 매월 회원들의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불자회가 걸어온 길은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불교방송의 일체의 지원이 중단돼 일반회원의 불교방송 소속감 저하로 불자회가 정체되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불자회는 다부진 활동계획을 전개할 생각입니다. 불



불교방송 교통통신원 불자회원들이 올 부처님오신날 봉축 제등행렬 행사준비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한 모습.

'달리는 법당'에선 法音 울려 퍼지고 법우애 · 신행의지 '멈추지 않는 바퀴'

우리 불자회는 개인택시 3개조와 버스와 일반인의 1개조의 회원 500여명으로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했습니다. 뒷 유리창에 불교방송 스티커를 붙이며 '달리는 큰 법당'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특히 버스 조는 많은 승객에게 불교방송이 방송되고 있음을 알리고 승차 중에라도 불교방송의 내용을 청취하고 불교방송에 관심을 갖도록 했습니다. 또 택시 조는 불교방송의 내용으로 대화를 나누며 포교했습니다. 걸림 없는 포교를 위하여 각 사찰에 개설돼있는 불교대학에 입학하여 법사 또는 포교사의 자격을 얻어 신행생활과 함께 포교에도 적극적인 회원이 많습니다. 대원불교대학의 법사단에서, 조계종 포교사단 직장직능 팀에서 군포교와 직장포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각조별로 매

교방송과 우리 불자회원은 한 가족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방송홍보와 방송포교에 사명감을 갖고 신행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회원의 단합과 신행생활을 위한 사찰순례와 체육행사를 가질 계획입니다. 또 불교방송 각 프로그램에 능동적으로 적극 참여해 진행자와 제작팀에 힘을 실어주고 청취율을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특히 택시 조의 경우, 승객과 대화에서 불교방송을 듣고 자연스럽게 불교를 포교하고 타 종교 신도의 공격에도 비교종교학의 근거에 의거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불교교리 공부를 통해 '똑똑한' 직장불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불교방송 지방국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전국조직으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변용구 회장

석일선 스님의 합동영가천도

조상일체 선망부모 태아영가 무주고혼 특별 합동영가천도

영가천도로서 유명한 일광 석일선 스님의 10만 영가 구제서원으로 선망부모 유주 무주 태아령영가 합동 천도제를 지장도량 성거사에서 봉행하고자 하오니 그동안 영가의 장애로 많은 고통을 받고 계시는 불자님들이나 낙태 유산으로 남다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있는 불자님께서는 이번 합동 천도재에 꼭 동참을 하시어 업장소멸과 함께 여러가지 고통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시고 만사소원 성취하시어 성불의 인연과 불은(佛恩)의 가피가 각 가정마다 항상 충만하기를 비옵니다. 지난번 합동천도재때에 이미 많은 분들이 지장보살님의 위신력으로 소원성취와 함께 여러가지 많은 어려움에서 벗어났고 소원성취를 하신 불자님이 많았으며 금번에 합동천도재와 더불어 많은 불자님들이 지장보살님의 가피로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합동 천도재 때에 생긴 영험담들.

- 합동천도재 전날 어떤 불자님은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이고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기도 하였으며 합동 천도재 전날 '나를 보내달라'는 조상님의 선몽을 받기도 하였다.
-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쌀이 가득 쌓여있는 방에서 되(쌀을 푸는 도구)로 쌀을 한없이 퍼부어 담는 꿈을 꾸기도 하였고, 어떤 불자님은 천도재를 지내고 꿈에서 아궁이에 장작더미를 한아름을 집어넣고 불을 지피고 그 불길이 하늘로 한없이 올라가는 꿈을 꾸었다고 한다. (사업성취) 천도재 이후로 양식장의 사업 수입이 두배로 늘어났으며, 아들이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뽑히기도 하였고(전라도 광양시), 또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치매증세가 호전을 보였으며, 어떤분은(경기도 수원시) 매일같이 잠만자고 횡설수설하던 딸이 천도재 이후로 그러한 증세가 완전히 없어졌다한다,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반항만 하던 아이가 모범생으로 바뀌었고, 어떤불자님(천안시 봉명동)은 평소에 항상 어께가 아파서 병원에서도 못 고치는 병을 천도재 이후로는 아팠던 증세가 말끔히 사라졌고, 어떤 불자님은(경기도 의정부시) 병원에서도 못 고쳤던 허리 병이 천도재 이후로는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으며 그외에도 여러 가지 믿기지 않는 일들이 눈에 띄도록 좋아졌고, 이룰수없을것만 같았던 일들이 성취가 되어 부처님의 가피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불자님들이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다...

합동천도재 동참 일 시 : 2004년 10월 1일 오전 11시
합동천도재 동참 보시금 : 한가족 10만원 동참 (농협 485047-52-060649 성거사)
합동천도재는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에 봉행하오며, 당일 100% 천도시키오니 오시기전날 지장경독송이나 지장정근을 하시고 오시면 더욱 큰 가피를 입으실 수 있습니다.
※ 서울역에서 매월 음력 초하루, 그믐, 지장재일 7시 30분에 셔틀버스 운행합니다. (성거사 전용 버스)

충남 천안시 목천면 송전리 282 지장도량 성거사 ☎ 041)567-6820, 567-6822
전화접수로도 가능, 불참시에는 무통장에 입금하시고 인적사항(주소, 생년월일) 이름을 알려주시면 동참을 못하시더라도 100% 천도 시켜 드립니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제정

대원상(大圓賞)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자 추천 접수 안내

▣ 시상요강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에서는 설립자이신 고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한국 불교의 대중화, 생활화, 현대화를 위하여 불교 포교에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불자 및 단체를 선정, 제2회 대원상을 시상합니다. 이는 모든 불자들에게 귀감이 되어 불법 홍포와 진흥의 바탕이 되도록 함이고, 또한 젊은 불자들에게 불교 포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마음으로 신행과 수행에 정진토록 하기 위함입니다.

▣ 시상부문
-. 대 상 : 승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재가 부문 1인 – 상패 및 상금 1,000만원.
단체 부문 1곳 – 상패 및 상금 1,500만원.
-. 특별상 : 신행, 학술, 교육, 복지 부문 약간 명, 각 상패 및 상금 500만원.

▣ 수상자 선정 기준
① 대상 승가 부문은 수상 후보자 추천을 받지 않고, '대원상심사위원회'에서 직접 추대하여 시상합니다.
② 대상 재가 부문 및 단체 부문, 특별상 부문은 추천 서류를 접수하여 수상자를 구분, 선정합니다.
③ 특별상은 교계에 알려지지 않은 숨은 불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④ 개인은 불교 포교 활동 경력 10년 이상인 불자이어야 하고, 단체는 단체 설립 5년 이상인 곳으로 활동 회원이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합니다.
⑤ 각 부문 수상자는 이전 3년 동안에 해당 부문과 관련하여 활동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주로 검토하여 선정합니다.
⑥ 향후 해당 부문과 관련한 활동 계획을 참고합니다.
⑦ 후보자들이 일정 자격수준 혹은 불교 포교 활동 공적이 본 상의 권위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상자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불교계 저명인사들로 '대원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선정합니다.

▣ 제출서류 (양식은 본 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십시오)
①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추천서.
②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개인 / 단체 부문 이력서.
③ (양식) 제2회 대원상 수상 후보 포교 활동 공적서.
④ 관련 부문 실적 자료.

▣ 서류 접수 및 문의처
① 접수 기간 : 2004년 10월 1일 ~ 10월 31일.
② 접수 및 문의처 : 본 원 사무국.
우 121-714.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15층
– 전화 : (02) 719-1855, 2606
– 홈페이지 : www.kbpf.org / e-mail : kbpf@kbpf.org
③ 접수 방법 :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당일자 소인 유효).

▣ 시 상 식 ① 일시 – 2004년 11월 19일(금) 14:00.
② 장소 – 다보빌딩 3층 다보원 대법당.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광고문의 : TEL 02)732-1522, 737-8881
FAX 02)737-0697

▷ 광고가격 : 1Box(4.4×4.4) 4만원



1. 법회기도 – 지장기도, 관음기도, 정기법회, 기념법회 등
2. 구인/구직정보 – 공양주, 행자모집, 운전기사모집, 사찰중무원 모집, 일반사원모집 등
3. 알림정보 – 개업, 이전, 각종전시, 불교동우회 행사, 각종불교강좌, 수련회, 동창회, 부음 등
4. 불교용품정보 – 각종불교용품, 불교용품업체, 탱화 업체 등
5. 알뜰정보 – 팔고 / 사고 / 대행 / 대여 / 재활용 / 인테리어
6. 생활장터 – 가구, 도서, 음반, 컴퓨터, 통신기기, 비디오, 가전, 사무용품, 비품, 정수기 등 – 사보편집대행, 음반대행, 꽃집, 떡집, 승복집 등
7. 여행정보 – 성지순례, 사찰순례,

천도재, 49재, 점안식 바라, 나비춤, 태평소
각종 행사해 드립니다
010-4870-8359
051)261-5691

경면주사
(수비경면)
▷ 부적용, 서예용, 일반용 한의원 약국용 도, 소매
구입문의
011-9675-1089

구병시식 천도재 점안식
사찰의 행사에 직접
법진스님
염불 해 드립니다(바라, 작법)
방앗사 055-882-3455
016-428-6665

범패,염불,학인 모집중

각종불공의식	천도재 49재	정안식	용왕산신재	바라나비춤	상가영불	천도시식전문	명리주역

각 행사 염불해 드림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탄우 합장
02)939-3327
011-9923-3329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전통범패의식

천도재	수륙재	산신재	점안식	바라춤	나비춤

행사에 염불해 드립니다
무진 051)468-7374
합장 018-523-7374

암 디스크관절,당뇨,백혈병 합병증,근육병,정신질환등
현대의술에서 치료가 불가능한 난치병 환자(기도와 기공침술, 한방 치료법)을 통하여 3개월~5개월정도면 80%이상 완치가능
단, 마지막 불심으로 믿고 성불이루십시요
031)671-1878 만 복 사

의식스님이 필요하신 곳
전통의식이 신심이 돈독해지며 영산작법과 우리말이라야 환희심과 경건, 엄숙의 극대화가 있지 않겠는가!
49재및 천도재 등 각종의식에 바라춤과 나비춤을 곁들여 적은 부담으로 보시하오니 연락바랍니다
016)9414-1525
041)571-1112~3

레이키(Reiki · 靈氣)를 배우면
- 누구나 바로 氣치료 · 원격치료 능력자가 됩니다
- 피로회복/스트레스해소/질병 치료 생명력활성화 등 웰빙의 도구
- 우스이레이키 60만원/카루나레이키 40만원
- 교육기간 : 2~3일
- 현대생활레이키연구회 www.Reiki.co.kr

전화: 02)720-5719
720-5682



명 당
탐지기 관통자 **월간역학**
02)2264-0258
동양상 역학강의도 함
www.kbs.cc

제불공 의식행사의 염불 회심곡 등 필요한 서울 경기지역 사찰 불러주시면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조계종 학인 비구니스님
010-4752-5018

모 집
- 기도스님 1명
- 처사 1명
- 공양주 1명
- 법당 화주보살 1명

▷각 30~50세까지
054)383-8032
011-9176-4403

잣 가평홍천(국내산)
햇잣 650g : 25000원
공장 : 가평초림임업농산
농협 2040-39-56-036-735
예금주 : 조금희
031)592-2865
010-3005-2865

불자 실버하우스
사찰 경내 신축건물
1人 1실 침식 제공
입주 3,000만원
– 부부 · 형제 자매 환영 –
문의처 : 031)867-1801~2
016)703-6648

1. 일본의 사찰에 기도하면서가족처럼 함께 생활하실 노부부를 모십니다. 일본직통전화 :
001-81-257-22-5488
2. 깊은 산중사찰에서 요양하며 함께 살아갈 공양 노부부나 출가에 뜻이 있는 행자를 찾습니다.
011-9803-6301
033)334-0730

지리산자연송이 판매합니다
055)883-2106
016-777-7656

행자모심
40세미만의 비구니 행자를 모십니다
문의 : 총무스님
041)832-1188
010-6737-5552

기도스님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10-7160-6811

기도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 전남
061)462-1242
011-9400-5254

행자모심
만40세미만으로 고졸이상 대학 대학원 진학 책임지원
(정릉)02)917-3363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공양주보살님 구합니다
▷지리산
50대이상
50대이하는 전화사절
011-483-563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41)673-3222

공양주 보살님 부전스님 모십니다
▷30~50대
어린아이 있어도 무방
사무능력자 우대
054)636-0229

산중 조용한 암자에 스님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십시요
(부전도 가능합니다)
010-9415-2961

기도스님 모십니다
▷ 경북 영주
011-9342-9850

行者모집
出家하여 禪修行을 하고자 하는 분
※ 신체결격사유가 없는 만35세미만인 분
※고졸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분
011-468-9022

미주 택사스주 달라스에서 공부하면서 포교하실분
승납 10년이상
비자받을 수 있는
비구.비구니
010-9766-2220

포교에 관심있는 주지스님 모십니다
▷비구니 대처스님
(법납 10년이상 50세미만)
서남해 섬사찰
011-663-4893

조계종 스님 설립, 부산교통 중심지인 90평 포교원을 투명하게 관리운영을 평생 맡아서 신의있게 할 인연있는 건당상좌 아니면 비구.비구니를 찾고있음. 그리고 소백산 보궁에 평생을 의지처로 삼을 40~50대 공양주를 구함.
부산설법원 (연락처 부산으로)
051)441-1430
054)653-1180

출가학교 및 행자모집
▶출가학교 2기:
남자 - 9월30일 ~ 10월20일(3주간)
16세 ~ 41세, 삭발, 교육비 : 전액무료
▶행자(예비승) : 언제든지 가능, 남 · 녀
문의 : 011-9852-0075 (총무스님)
상세내용은 홈페이지 영남불교대학 참조
대한불교 영남불교대학 · 관음사 대구 도심사찰 최초!
조 계 종 (053)474-8228 납골당 운영

행자(남·여)모집
▷35세 미만
공양주보살구함
010-6495-2456

천일기도 하실 비구스님 연락바랍니다
011-6960-8500

기사구함
▷대형면허 소지자
월 120. 상주가능
031)459-3666
031)459-3108
의왕 대안사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1-825-6909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 경기 김포
011-688-6625

부전스님이 필요한 사찰 연락바랍니다
061)322-8642
016-633-6884

사주 개인 지도
- 특수비법으로 쉽고 정확하게 하루에 통변 승려에 한하며 보시금 250만원
- 지도 : 대주 스님

HP : 011-741-0867 ☎ 02)926-1259

수행 비구니 스님 및 행자(여) 모십니다
▷연령 20~40세
▷부산시내 포교원
010-8678-2444
018-801-2588

부전(비구)스님
▷30~40대
공양주 보살
▷40대, 출퇴근 가능한자
서울 서초구
011-9269-8445

공양주 구함
마당도 없는 아파트식 암자
신도 없고 노스님 한분
노스님 시봉할 수 있으면 환영
월 보시 100~150만원
서울 은평구 불광동 심우선원
02)384-5060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31)966-9852
011-448-9852

담양 대나무 참숯양말
◆숯의효능 : 간질, 현기증, 빈혈, 탄저병, 및 피부세포의 활성화 작용으로 아토피성 피부염, 만성습진, 무좀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 남성용 · 여성용 전통염색 ●
선물용 세트 · 사찰 및 단체주문 환영
전화 : 031)864-7361 휴대폰 : 011-705-7382

역학 수강생 여러분
10초내 운세를 맞추면 배우러 오세요
● 교재 : 사주첩경(이석영 저) 격국용신 및 교재내용에 대한 질문을 10초내 답변
사주전체 대흐름(조상포함)을 알고나면 격국용신 및 신약신강을 신경쓰지 않아도 속시원히 통변할 수 있습니다.
http://www.speedunse.com에서 핸드폰 · 카드결제됨
02)826-5067에서 전화상담 중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파계사 근교
- 대지 : 306평 ● 건평 : 60평 (법당20평,산신각5평,큰방5개, 화장실3개) ● 특징 : 산세가 수려하고 경관이 뛰어나 기도처로 최적지임
- 가액 : 1억8천만원(응자별도) 답사 후 가격절충 可

011-9371-085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 시흥시 대야동
- 상가 10평
- 방1,부엌1,법당,삼존불, 후불탱화,신중,산신
- 가액 : 500만원에 월 3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380만원

011-9966-7826

포교당(급)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청량리 전철역 인접)
- 방3개, 법당, 삼존불, 탱화, 후불, 신중, 산중
- 보증금 300만원에 월 30만원 (답사 후 결정)

010-7135-4030
02)966-1039

사찰안내
- 위치: 대구시 동구 신축 2층건물
- 대지: 105평 ● 법당: 28평
- 요사채: 45평
- 시설: 화장실 4, 심야보일러, 수도, 지하수, 창고, 상수도
- 가액: 3억1천만원(절충가능)
- 즉시법회가능

011-226-2880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 대명동
- 총평수 : 40평, 방2개, 주방, 샤워실, 법당
- 가액 : 2천 2백만원 월세 23만원 (보증금포함)

※스님이 급히 해외교육차 출국관계로 양도하고자 함

011-9850-2946
053)653-0287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영덕군
- 법당 20평, 요사 20평
- 전체 1500여평
- 도로 조경 최상의 조건
- 가액 : 2억 2천

010-2801-0201

포교당안내
- 남산 후암시장 입구 2층
- 방2, 법당 (12평)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500만원
- 철학관 적지

02)771-1907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 대지: 200평(주차장 600평) 총 800평 ● 공터: 400평
- 건축: 법당(고려시대 부처님상 아미타), 요사채, 방. 총 46평
- 가액: 3억 2천(답사후절충가능)

011-9378-5637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중구 ● 건물 3층 전관 53평 (엘리베이터 有) 순 한옥식으로 잘 꾸며져 있고 바닥은 전체 게르마늄과 맥반석으로 된 온돌방이며 법당은 18평, 방5칸, 욕실 큼, 주방2
- 보증금 4천만원에 월50만원 (삼존불 삼존탱화 연설대 시설물 냉장고 에어콘 정수기 일체 시설비 포함 3천 5백만원) 합 7천 5백만원.
- 기타 : 버스정류소 바로 옆 지하철 2분

010-9469-2258

사찰안내
- 위치: 대전 대사동(보문산) 도로변에서 100m
- 땅: 70평(시유지) 건물은 등기
- 큰방 3개, 법당, 마루텃밭 허공 산신당, 기와집
- 가액: 5500만원

019-377-8967
042)256-1995

사찰안내
- 위치: 강원도 (물좋고 산세수려)
- 평수: 650평 (종교부지)
- 심야보일러, 임법당 25평, 방 5개, 주차장 창고 등
- 가액: 1억 4천 8백만원
- 꼭 하실분 연락바람

010-8419-8004

암자(급)안내
- 위치 : 경북 성주
- 대지: 80평
- 건물: 법당, 방2, 욕실
- 가액: 2천3백만원 (답사 후 조정可)

053)791-8315

암자(급)안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 가액: 7500만원
- 산세좋고 물좋고 조용한 암자

031)582-0635

사찰안내
- 위치: 동해안 산세 수려한 명산자락임
- 부지: 1300평중, 법당자리는 종교부지임
- 대웅전, 약사전, 산신각 목조 주심포 건물
- 요사채: 목조건물, 현대식 스라브 건물 1동
- 종단연수원, 납골당, 기도원으로 적합함
- 가액: 답사 후 마음에 드시면 절충하기 바람

011-376-1649

토굴암자안내
- 위치: 천안 목천 근교 20분거리
- 부지: 대지 267평
- 법당, 요사채(방6개) 산산당, 주차장, 샤워장
- 심야전기 보일러
- 가액: 1억 ● 현재 운영중
- 산세 좋으며 확트인곳

016-682-8211

사찰(급)안내
- 위치: 경남 거창군 웅양면 일반주택 사찰임
- 대지: 159평
- 총건평: 25평(요사채 12평)
-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8천만원(답사 후 절충可)

019-503-7959
055)942-9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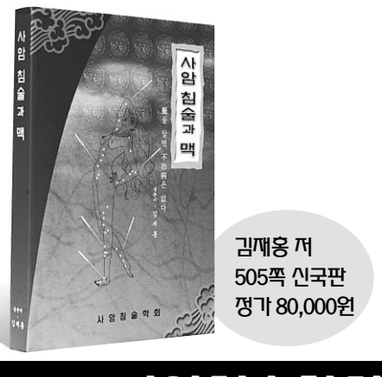
더 이상의 획기적인 침술서적은 없다!!!

사암침술과 맥

침술인의 필독서(必讀書)

1. 정확한 취혈을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등분법)
2. 황제 내경 맥진법을 하루에 터득 할 수 있다
3. 복합처방으로 난치병도 두렵지 않다
4. 一鍼에 완치 시키는 즉효 요법이 있다
5. 중풍맥을 건강한 맥으로 즉석에서 교정한다
6. 100가지 질병 치료법을 쉽게 터득한다(고급과정)

※득이 없는 막연한 공부는 이제 그만합시다



김재홍 저
505쪽 신국판
정가 80,000원

구입문의: 사암침술학회
02)2267-9136

당신도 최고의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과정과 비법을 3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임지도!!

사암침술 강좌
맥을 터득해야 사암침술을 자유자재로 시술 할 수 있습니다.
(초,고급과정)
▶ 내용 :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구요결,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방법, 처방요령,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종합실습
▶ 개강 : 2004. 10. 4. 월 (주 · 야간반 : 3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나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좌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 매주 금요일 (수시접수)

사암침술학회

장소 : 종로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 011-307-2975. 02)2267-9136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전화 : 02)732-1522 (直) 02) 737-8881 (代)
· FAX : 02) 737-0697

사 찰 안 내

- 위치: 부산
- 법당: 24평
- 요사: 60평
- 부지: 300평
- 가액: 3억6천

- 위치: 강원
- 인법당 : 30평
- 부지: 1300평외
- 임대사용 2000평
- 공부하는 스님 및 조용한 기도처 필요한 분
- 가액: 3500만

- 포 교 당 -
- 위치: 서울
- 법당, 요사: 30평
- 임대금: 500만원에 70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전국 사찰 ,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보살님 연결하여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 011)713-5634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 대지 : 300평
- 임야 : 2천5백평
- 인등 : 3천개
- 가액 : 8억원(절충가능)

011-9338-2993
소개업자 일체사절

사찰안내

- 위치 : 의정부
- 평수: 65평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 50만원
  시설비: 2,300만원
  절충가능, 즉시법회가능
- 시설완비(상담후 결정)

031)826-0376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청암면
- 임야 전답 3500평
- 가액 : 6천만원

010-9763-1271

암자 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산현리
- 대지 : 108평
- 법당 21평, 요사 20평 주방, 보일러, 욕실 완비
- 포교 교통 요충지
- 가액 : 7천5백만원

054)533-1477

사 찰 안 내

- 위치: 북한산
- 부지: 1000평
- 법당: 15평
- 요사: 25평
- 가액: 7억

- 위치: 삼각산
- 국유지 임대
- 법당: 9평
- 건물: 15평
- 가액: 2억5천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포교당,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지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및 사찰부지 양도하실분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립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서울 평창동
- 대지 : 129평
- 건평 : 98평
- 평당: 8백만원
- ※ 현재사찰 운영중
- ※ 소개업자 일체 사절

011-478-8812
011-9865-1975

포교당안내

- 위치 : 암사동 현대아파트 정문앞 지하철역 인근 대로변
- 법당: 35평 큰방1, 옥상방 3개
- 옥상: 35평 총 60평이상
- 스님 노환으로 사정상
- 가액: 보증금 5천만원,월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1-714-3635
02)481-3635

포교당 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사직동 3동
- 평수: 38평
- 전세 1000만원 월세 25만원 권리금 1000만원

051)503-0908
019-291-5558

포교당안내

- 위치 : 부산 동래 온천시장내
- 총 45평(3층 건물중 2층)
- 호불 500불(지장보살)인등 500, 연등 1000개, 원목 달집(단청필)
- 가액 : 보증금 1000만, 월 50만원 시설비 절충가능(법당최고시설)
- 포교당운영하실 조계종스님 모십니다

016-444-5758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주문진에서 5분거리
- 대지 : 250평 전 250평, 임야 6,000평 법당 80평 삼존불 방 8개 요사채 30평 (한옥전통기와) 황토방(온돌)1
- 가액 : 1억 7천만원

033)661-1375
011-202-8288

사 찰 안 내 [포교당]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650평
- 법당 : 30평(목조)
- 요사 : 30평(목조)
- 산신각 : 5평(목조)
- 양도가 : 5억 5천

- 위치 : 일산
- 평수 : 11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보증금 : 2천 5백 / 백오십
  시설비 : 2천 5백

한국최고의 사찰컨설팅 한국불사 011)530-1975 / 011)688-3521

전국소재 사찰, 암자 양도, 양수할 스님께서는 전화 상담 환영합니다.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남원
- 부지: 3천 2백평, 법당, 요사 완비
- 납골시설 100기 (분양완료시 2억이상 수익가능)
- 대규모 납골사업 가능한 부지 조성 완료
- 가액: 1억 5천만원(전세가능)
- 기도정진할 스님 특별조건
- 납골탑만 매매가능

011-9415-6831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시 부평구청 뒤 2분거리 4층건물중 3층, 35평
- 법당, 공양실, 친견실, 삼존불, 지장단, 신중단, 영가단, 앰프시설, 사무기기, 포교서적 완비 시설A급
- 보증금 2천만원에 월 15만원 시설비 1550만원(절충가능)

032)511-4974

사찰 안내

- 위치: 동작구 상도동 7호선 장승백이역
- 대지 : 66평, 건평 : 56평
- 1층 요사채, 2층 법당
- 가액 : 5억 3천만원

02)815-0302

사찰터(급)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진성면
- 임야 : 2만 4천평
- 진성 IC인접, 마을인접 진주시에서 10분거리 진입도로있음
- 평당 7천원. 절충가능

017-556-6011

토 굴 안 내

- 위치: 충남 금산군 남이면 소재
- 대지 : 110평(전통한옥, 등기필)
- 건물 2동(안채, 사랑채)
- 심야전기 시설이 완비된 아주 깨끗한 전통 한옥
- 스님토굴이나 가족휴양처로 최적으로 장소
- 가액 : 9천만원(가격 절충)

041)753-3766

사 찰 안 내

〈암자〉
- 위치: 창원 북면
- 대지: 230평
- 법당: 20평
- 요사채: 25평
- 가액: 1억3천
- 마금산 온천에서 5분

〈절터〉
- 위치: 웅촌
- 대지: 1,100평
- 가액: 2억5천
- 부산 ↔ 울산 중간지점

양산 부산간 중간지점인 양산시 동면 면사무소 앞에 부동산사무소를 오픈하였습니다. 사무실에 오시면 매물들에 대한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부산,영남지방 풍수컨문 사찰컨설팅 (양도 양수하실 스님 상담환영)

佛國불사 055)383-0023 / 018-563-9575

동면공인중개사 홈페이지 dongmuen.com

(홈페이지에 오시면 사진과 상세한 설명을 볼 수 있습니다)

사찰 터 안내

- 위치: 군위군 고로면
- 평수: 4000평 건물한동 있음
- 특징: 650고지, 천하절경
- 약초재배나 고냉지채소 가능함
- 대구에서 50분거리
- 가액: 7천만원

011-810-8402

물좋고 산세좋은 도심속 암자

- 건평 100평
- 법당 : 15평
- 요사채, 주차장완비
- 40년 역사 가건물
- 가액 : 2억 7천만원

011-9303-8550
051)301-8555

토굴,암자터안내

- 위치 : 강원도 횡성군 소재
- 하늘과 마주보는 산밑 1257평
- 농가 흙집 리모델링 방5개(구들방1개, 벽난로)
- 도량-아늑한 세월의 숨결이 묻힌 나무조각불상다수 미니 돌도랑 그위에 미니정자 오붓한 수행의 길을 찾는분
- 가액: 2억(입법당, 집기, 비품 소품일체 양도)

033)342-7931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부여 (산세수려하고 경관 최고)
- 평수 : 대지 200평,건평30평 (방4,부엌,거실,욕실) 건물20평
- 임법당1, 정원, 창고, 텃밭, 지하수2, 신축건물, 벽돌, 기와
- 가액 : 1억5천만원

032)544-6127
041)834-0206

사찰안내

- 위치: 부산 동래구 온천동
- 총평수 : 37평(지하1층)
- 법당 : 25평, 삼존불, 각단탱화
- 보증금 200만원, 월 12만원 집기 포함 시설비 1700만원

011-9238-9960

포교당안내

- 위치 : 경기 하남시 덕풍동
- 보증금 : 3천만원 월 50만원
- 시설비 : 2천만원
- 법당 : 40평, 방4개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011-715-6333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 무암
- 대지 : 500평정도
- 법당 : 50평 정도
- 요사채 : 20평 정도
- 산신각,용왕각,칠성각
- 차진입 가능
- 가액 : 9천만원

051)254-301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부산 부평동 4층 건물 중 4층(자갈치국제시장 부평시장 중간위치)
- 평수 65평
- 전세 4000만원에 65만원 2000만원에 95만원
- 시설비 없음

017-727-1903

한마음 납골묘 납골당

사찰 경내에 본사의 비용(무상)으로
납골묘(석재)를 설치해 드립니다
사찰에서는 일체의 부담이 없음

한마음 석재 납골묘 납골당 고원 합장

011-348-0668 / 031)318-061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읍내리 3층 40평
- 삼존불, 신중탱화, 칠성탱화, 앰프 모두 갖춰져 있음
- 몸만 들어오시면 됨. 즉시법회가능
- 가액 :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1500만원에서 500만원받겠음

010-4422-5575
041)832-5575

사찰안내

- 위치: 경남 남해 바닷가(한려수도)
- 평수 : 약 1,000평(대지 516평, 밭 400평) (법당20평, 삼성각10평, 지장단10평, 요사채20평, 기타 : 화장실, 창고)
- 특징 : 인근 골프장과 스포츠 파크 있음
- 가액 : 3억 (한려수도 바닷가에 자리하고 있어 경관이 수려함)

011-627-0290

사찰안내

- 위치 : 전남 장흥군
- 면적: 임야 대지 포함 11400평
- 법당: 목조 40평
- 요사: 벽돌 110평 1동 창고겸 요사 45평 1동
- 가액: 3억7천만원

011-9457-7060

포교당 안내

- 위치 : 인천 소래 포구 어시장 상업지구 3층건물 중 3층
- 평수 : 30평, 법당, 방, 주방, 화장실,주차장,베란다
- 보증금 1천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 3천만원(절충가능)

011-438-7569

토굴 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현동
- 구조 : 방 3개 주방 1개
- 가액 : 1천만원

054)672-7676

사찰터(급)안내

- 600~11만평 (경주 · 청도)
- 경주부동산시장

054)742-1141
0505-244-1141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창녕
- 대지 : 150평
- 법당 목조 12평
- 요사채 벽돌 25평
- 가액 : 8천 5백만원 (집기 일체 포함)

016-652-7547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시내 중심지 포교최적지
- 2층 건물 중 2층
- 건물 : 40평, 법당(20평)
- 시설: 삼존불, 각단탱화
- 가액 : 시설비 1천5백만원(별도) 1천만원 보증금 월 45만원

016-640-8133

사찰안내

- 위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각리 부근
- 대지 100평 및 사용평수 100평 건물 법당 25평, 산신각 5평, 요사채 18평, 11평
- 모든시설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음
- 가액 : 1억3천만원

043)733-8186
011-9405-8186

암자안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공성면 용안리 김천, 상주에서 20분거리
- 대지 120평, 건평 25평
- 임법당1, 주방1, 방2개
- 가액 : 5,300만원 (집기일체포함)

011-462-5275

사찰(급)안내

- 위치 : 경기 용문 (용문역에서 1.5km)
- 부지 : 약 1500평
- 건물 : 법당1동, 요사2동
- 산세수려
- 가액 : 6천 8백만원
- 주인직접

011-737-2352

전통사찰안내

- 위치 : 원주
- 부지 : 1,036평
- 법당 : 30평
- 삼성각 : 7평
- 용왕궁
- 요사채 2동-30평,15평 (목조 및 단청)

033)731-6612

포교당(임대)안내

- 위치 : 대전광역시 대흥동 보문산 입구
- 평수 : 25평 ● 시설 : 2층에 위치. 법당(삼존불),탱화,거실,부엌, 살림 일체 있음. 즉시 양도입주가능함
- 보증금 : 500만원, 월세 20만원 시설비 : 1500만원. 절충가능함

042)527-3800
017-403-3800

문화재전통사찰안내

- 위치 : 전북남원시내
- 면적: 약600평(종교부지등)
- 전세 : 1억2천만원/월세가능 (임대는 1억2천 월세가능)
- 개인등기된 문화재 전통사찰로서 산수경관이 수려하고 아담하고 깨끗함 6m넓이 진입로 포장 되있고, 약수터 있음

011-703-3030

토굴암자안내

- 위치: 충남 금산 대전에서 30분거리
- 부지 : 400평
- 건물 : 목조 한옥 21평 임법당(황토방)
- 가액 : 2억(절충가능)

041)753-8137

토굴 겸 팬션안내

- 위치 : 남덕유산자락
- 부지 : 1630평 가옥 - 신축황토기와집
- 가액 : 5억(대출가능)
- 특징 : 맑은개울과 집뒤의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016-367-2112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남구 신사역 전철역 1분거리
- 실평수 : 25평 (방3, 창고, 차고 有)
- 시설특, 살림가능
- 2000만원 월 90만원 철학관 최적지

017-514-0384
02)543-5060

사찰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시 도심속
- 8층 건물 4층
- 법당 60평, 요사 47평
- 방3,주방,샤워실,주차장
- 시설 A급
- 가액 : 4억 3천만원 융자 : 1억 5천만원

011-303-7580

사찰안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인근
- 임야 : 1700평중에 종교용지 425평
- 법당 : 가건물 20평
- 요사 : 40평 1층 스라브 심야전기보일러
- 가액: 1억 8천(절충가능)

055)222-7346
016-868-5517

고찰터안내

- 경남 함양군 지리산
- 독립된 청정계곡. 야생차밭
- 16필지 총 7527평
- 관리지역 임야 4808평 1만원 전답 2919평 3만원 1억 3천만원

011-9393-4965

사찰안내

- 위치 : 전북 완주
- 대지 : 500평
- 토지 : 400평
- 법당 : 40평
- 건물 : 요사 2동
- 방4,산세수려,계곡물 있음
- 가액 : 3억 5천만원

018-243-5736

포교원안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소재
- 4층. 평수 35평,
- 방1, 주방1
- 보증금 3천만원, 월 10만원 시설비 2000만원

011-317-0582

토굴안내

- 경주와 영천 10분거리(교통아주편리)
- 대지 : 120평
- 평수 : 인법당 15평 (스님방, 목욕탕포함) 구옥요사(방2칸,주방1칸)
- 마당까지 차진입(50가구 정도되는 시골윗집)
- 공기가 맑고 조용히 수행하실 스님 (보살님, 처사님 가능) ※ 꼭 하실분만 전화요망

011-9211-6385
(오후 5시이전 전화통화가능)

사찰 안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소재(장류)
- 부지: 140평 (종교용지)
- 법당: 30평(2층)
- 요사: 90평(1,2층)
- 가액: 3억7천만원
- 특징: 2개동 건물을 2층으로 신축한 사찰

055)323-2858
011-9542-5726

포교당안내

- 위치: 부산시 사상구 덕포동 덕포 초등학교 앞
- 평수: 60평
- 법당, 방2개, 공양간, 샤워실
- 보증금 500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1500만원

051)303-7477
011-9338-7477

포교원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시장입구
- 조건 : 보증금없이 월세만 35만원
  - 시설금 2500만원 - 부처님 여법히 모셨음
  - 불기일체, 사무실용품, 기타 서적류 일체양도
- 환경 : 시골사찰에 불사를 위해 포교당으로 좋음
  - 현재 법회진행중
- 기타 : 중간세 가능함(1년 1500만원)

011-502-8033

출가 행자 00명 모집중(학력 대졸이상, 미혼) 신축사찰에 근무할종무행정에 능한 불자님 모심 (인터넷 필수, 웹디자인이나 프로그래머 호조건) 海東佛教 泌問 比丘 釋智嚴 합장

포교당 안내

- 위치 : 부산시 주례동
- 평수 : 45평 2층. 큰법당1, 방2개 부엌1, 수세식, 화장실 삼존불 및 후불탱화. 지장불 및 후불탱화. 신중탱화. 산신 용왕불 및 후불탱화
- 가액 : 보증금 5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 1500만원(집기 모두포함)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 살림가능

051)327-0477
019-556-6047

사찰안내

- 위치: 인천시 남동구 관석3동 3층건물중 3층.평수: 약 100평
- 대법당: 방3, 주방, 화장실
- 앞마당: 약 20평
- 냉난방 완비, 즉시법회가능
- 가액: 전세 7000만원,월세없음

032)422-0778
011-9864-1095
017-265-6300

사찰안내

- 위치 : 철원 동송 시내
- 부지 : 819평 한옥법당 10평
- 설법 강좌실 21평
- 요사채 15평
- 사찰관리실 7평, 약수터
- 가액 : 3억
- 임야 25,000평 평당 2만원
- 진입로 8m접 계곡물 접

011-9243-0993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343번지 태백산
- 산세경관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연꽃안에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이며 100m앞 유원지 내리강이 흐르고 도로 잘되어있음.
- 부지 1800평, 자연돌로 조경이 잘 되있으며 천탑을 조성하려고 자연돌 수천톤이 확보되있음. 기와건축물 50평 전기수도 유선 잘되었음
- 가액 : 2억 5 천만원

018-223-2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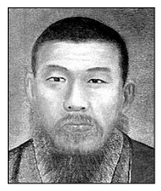
제1회 조계종 근 · 현대 사상사 학술세미나 요약

일제 침탈기에 불교의 전통을 수호하고, 선풍을 드날리며 불교 개혁에 앞장섰던 경허 · 용성 · 만공 · 한암 · 학명 · 효봉 스님의 행장과 선사상을 조명한 '제1회 조계종 근 · 현대 사상사 학술세미나'가 9월 17일 동국대에서 열렸다.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회랑)가 주최하고 현대불교신문사가 공동 후원한 이번 학술발표회는 조계종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발전적 미래를 모색하기 위한 뜻 깊은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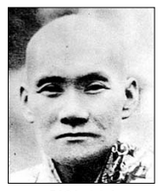
이날 발표회에서는 고영섭 동국대 교수의 '경허 스님의 조심학(照心學)', 보광 스님(동국대 교수)의 '용성 스님의 생애와 대각운동의 전개', 효탄 스님(동국대 강사)의 '한국 전통선과 불조 혜명의 계승', 혜거 스님(금강선원 선원장)의 '한암 스님의 생애와 사상', 김광식 부천대 교수의 '학명 스님의 불교개혁과 선농불교', 김방룡 보조사상연구원 기획실장의 '수선사 가풍의 계승 및 근대 간화선의 확립자'가 발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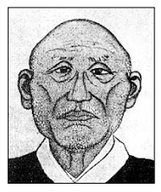
이 여섯 편의 논문을 바탕으로 선사들의 '선사상'과 '불교 개혁 활동'을 재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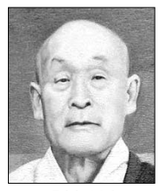

경허 스님


용성 스님


만공 스님


한암 스님


학명 스님


효봉 스님

'말살시대'에 더 밝았던 법등

경허 이후 선불교 전통 '중흥기'
역경 · 선농일치 주창 일제극복

● 선사상

성리학이 통치이념으로 자리 잡은 조선시대에 불교는 급속히 위축돼, 교학의 맥은 거의 단절된다. 반면 벽계정심 · 벽송지엄 · 부용영관 · 서산휴정으로 이어지는 선맥은 면면히 이어져 편양언기 · 용암혜언을 거쳐 경허 스님에게로 계승된다.

경허 스님의 선법 수행에 있어서 핵심은 반조(返照)와 전정(專精)이다. 즉 조료(照了)를 통해 비춰진 심원(心源)을 전정으로써 정밀히 관찰하는 것이다. 이는 "마음의 근원을 돌이켜 비춰 마음의 공용을 오롯이 정밀히 하면, 비록 일대장교를 훑어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장경이 여기에 있다"는 스님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반조와 전정을 통해 스님은 조료심원과 이류중행(異類中行)이 하나 되는 삶을 지향했다. (고영섭 교수)

또 선 · 교일치 입장에 있던 경허 스님은 염불에 대해서도 긍정적이었다. 스님은 간화문의 성적등지(惺寂等持)와 염불문의 일심불란이 다르지 않다고 했다.

이에 반해 경허 스님의 법을 이은 만공 스님은 간화선만을 선양했다. "참된 인간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참선 교육이 참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고 말할 정도였다.

그런데 만공 스님의 간화선풍은 보우 스님 이래 전통적으로 강조된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스님은 "공부를 잘하고 못하는 문제보다도 이 공부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결정적 신심부터 세워야 한다"며 신심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스님은 보우 스님보다는 혜심 스님 쪽에 가깝다. (효탄 스님)

한편 한암 · 효봉 스님은 정혜쌍수의 입장에 서 있었다. 한암 스님은 청년 승려 양성을 위해 설립한 수련소의 교육과정을 '반일(半日)참선 반일교학'으로 정했고(혜거 스님), 효봉 스님은 "내 문하에서는 정혜쌍수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효봉 스님은 "정중에 화두를 참구하는 사람은 정과 혜를 함께 닦는 것이다"고도 말하고 있어, 효봉 스님의 정혜에 대한 입장이 6조 혜능 스님이나 보조 스님과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김방룡 실장)

● 불교 개혁

구한말과 일제 지배기를 살았던 스님들은 왜색불교로부터 전통불교를 지켜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다. 불교 개혁운동은 그런 절박함의 표출이었으며, 궁극적으로는 일제 식민 지배의 극복이라는 민족적 과제와도 직 · 간접적으로 맥이 닿아 있다.

가장 왕성한 활동을 벌인 인물은 용성 스님이다. 스님은 불교 현대화에 앞장서는 한편 삼일운동에 불교계 대표로 참여하는 등 항일 운동에도 적극적이었다.

현대화를 위한 스님의 노력은 △불경 한글화(삼장역회 · 1921) △도시 포교(서울 가회동 포교당 · 1911) △참선 포교(대각사 시민선방 · 1929) △해외포교(만주 길림성 대각교당 · 1927) △어린이 포교(대각일요학교 · 1928) 등으로 나타났다.

선농불교와 관련해서는 학명 스님을 빼놓을 수 없다. 스님은 1923년부터 내장사에서 선농불교를 실천에 옮겼는데, 이는 불교 개혁의 일환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사를 통한 승려의 수행, 사찰 재정비, 촌락공동체 건설의 성격이 합치된 양상을 띠고 있었다. 스님은 또한 선원청규를 복원 · 재정비하는 등 모범적인 선원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내장사에서의 '실험'은 7년간 지속됐다. (김광식 교수)

만공 스님은 한국 불교 전통을 계승하며, 일제 사찰령의 간섭을 받지 않는 공간을 만들어, 수좌들이 수행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자 했다. 그 결과 선학원이 1921년에 탄생했다. (효탄 스님)

한암 스님은 1936년 출범한 조계종단의 초대 종정 자리에 올라 종단 수호에 힘썼다. 스님은 승가오칙 · 선원규례를 제정하고 강원도에 승려 수련소를 설치(1936)해 젊은 스님을 양성해 미래를 준비했다. (혜거 스님)

한편 효봉 스님은 보조 스님의 정혜결사와 수선사를 모델 삼아 정법에 입각한 불교교단을 만들어 수행가풍을 정립하려 했다. 또한 이를 통해 보조 스님의 회통 및 화(和)의 정신을 계승하고자 했다. (김방룡 실장)

박익순 기자 ufo@buddhapia.com

1면에서 계속

"훼손 상관없이 보물로 지정해야"

조사단은 '사자암 3층 석탑은 10세기 초 고려시대의 탑. 기단부 탑신이 8각 모양인 사자암 3층 석탑은 중요한 사료(史料)적 가치가 있고, 보물급 문화재지정 가치 있음'의 사유를 들어 전북문화재위원회에 지정문화재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를 검토한 관련기관은 "탑의 훼손상태가 심하고, 1 · 3층 옥개석이 원형(原形)이 아닌 것으로 여겨져 지정문화재로 등록할 수 없다"며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사자암 3층 석탑을 조사했던 전문가들은 "비록 이번에 발견된 옥개석이 반쪽만 남아 있고, 탑의 훼손정도가 심할지라도 충분히 보물급 가치가 있다"며 부결처리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탑의 기단부 탑신만 8각 모양을 한 석탑은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도피안사 3층 석탑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러한 석탑 형태는 고구려 팔각목탑양식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고구려 목탑형태가 백제지역인 익산 사자암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고대의 석탑연구에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이다.

황수영 박사와 함께 조사를 참관했던 한 관계자는 "이렇게 귀중한 보물급 석탑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결 처리한 문화재위원들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며 개탄했다. 석탑 전문 문화재위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오판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석탑만 전문적으로 연구한 위원은 두 명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보물급 석탑이 발굴 · 발견돼도 사장될 위험이 항상 잠복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삼룡 박사는 "충분한 가치가 있음에도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며 "더 우려스러운 점은 지정문화재로 등록되지 못하면 개 · 보수비용이 전혀 지급되지 않아 문화재가 훼손돼 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며 당국과 지자체의 관심을 촉구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buddhapia.com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48>

앎과 삶의 거리(2)

지난 편에 말한 것처럼 <장자(莊子)> '소요편'에 나오는 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오른다는 붕(鵬)새나, 나뭇가지 사이를 날며 이러한 붕새를 비웃는 작은 새나 똑같이 하늘을 날 뿐이다. 오직 우주에 대한 앎과 자신의 삶으로서의 인식의 전환과 이에 따른 전망(展望)의 차이일 뿐이기에 우리 모두는 앎과 삶의 거리를 좁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부처님 말씀은, 그에 대한 앎이 삶으로 전화되지 않는 한 전혀 소용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생명과학의 지식도 그러한 앎이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지식을 위한 지식이 될 뿐이다. 요즈음 생명과학이 던지는 사회문제나 생태문제에 있어서도 어느 쪽이 옳고 그른가 하는 관점으로 바라보기보다는 던져진 문제가 얼마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접근되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풀어야 할 것이다.

삶으로 전환되지 않는 앎은 무의미
'할 수 있다' 신념과 열린 마음 가져야

그렇기에 밖에서의 변화가 어떠하던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의 삶의 문제로서 풀어야 하며 이것을 위해서는 지금과 같이 앎만이 넘쳐나는 시대에 자신의 앎을 자신의 삶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앎이 자신의 삶으로서 나타나기 위해서는 나도 할 수 있다는 용기(勇氣)와 열려있는 마음자세가 필요하다. 용기란 자신이 머무르고 있던 세계로부터 과감히 좀 더 넓은 또 다른 세계에의 도약을 하기 위한 용기이다. 이러한 용기가 만용(蠻勇)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열린 마음으로 자신의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것일 뿐이다. 붕새나 작은 새가 우주 속을 날기 위해서 굳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나갈 필요가 없다. 어차피 이 하늘도 땅도 지구도 우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용기와 열린 마음을 지니고 있다면 반드시 나의 삶은 변한다.

종종 우리 주위에서 듣는 것으로서 '그거야 부처님 말씀이지 어떻게 우리가 흉내나 내겠어' 라든지, '그거야 전문 학자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 그 말에 따라야지' 등의 안주하는 모습을 멀리해야 한다. 그것은 자신의 앎과 삶의 거리가 너무도 멀어 자신의 삶은 여전히 작은 세계 속에서 갇혀있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스스로 물어야 한다. 나는 지금 하늘을 날고 있는가? 지금 우주를 날고 있는가? 지금 화택에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연화장에서 살고 있는가? 이 자리가 타락의 자리인가 아니면 이미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해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살고 있는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미 넘치고 넘치는 앎의 사회에서는 더 이상 무성한 식(識)에 끌려 다니며 무엇을 더 알려고 하지 말고, 자신의 앎과 삶의 거리를 좁히는 각자의 용기와 이에 수반된 열린 마음을 지니도록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우리는 부처의 세계에 거듭 태어날 수 있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그림 : 문병성

봉행

제1회 낙태(유산)아 무보시 49일 천도 대법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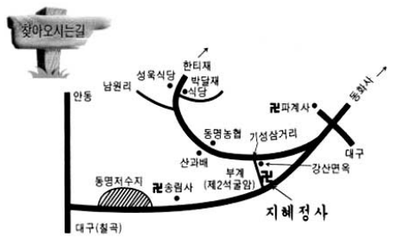
아빠, 엄마 저희에게도 새생명을 주세요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정자와 23개의 염색체를 가진 난자의 만남으로
46개의 인간염색체를 가진 뚜렷한 인간 그것은 바로 태아 입니다.
이것은 홍당무도 토끼도 아닌 오직 인간일 뿐입니다.
나의 잘못된 행으로 비롯된 무서운 살생 그것도 바로 나의 자식을 살생한
과보를 그냥 무태반 하시겠습니까.
모두 참회 합시다.
그리고 허공을 떠돌고 있을 나의 어린 생명을 삶의 모습으로 되돌려 줍시다.

주지 지홍 합장

❖ 일시 : ● 입재 - 10월 14일(음) 9월 1일 오전 10시
매주 목요일 (10월 21, 28일 11월 4, 11, 18일) 재봉행
● 회양 - 11월 26일(음) 10월 15일(동안결재)
※당일 대중공양 보시를 받습니다.
❖ 기도비 : 무 료
❖ 접 수 : 지혜정사 종무실, 수성 포교원 지혜선원
❖ 문의전화 : (054)975-7766, 0104 (053)752-0108
❖ 위 치 : 팔공산 한티재입구 기성삼거리



경북 칠곡군 동명면 기성리 1005번지

정법수행 정진도량 팔공산 지 혜 정 사

정토불교 체육지도자과정 제2기 교육생 모집

선 카이로프락틱, 운동처방, 선 내공체술

1. 본 교육연수원의 설립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홍보하기 위한 출가수행자 및 법사들의 포교방편과 스님들의 자활력을 갖춤으로써, 병고에 시달리는 중생구제와 더불어 보시금이나 불전에 의존하지 않고, 주며 베푸는 떳떳한 스님을 양성키 위해 정형외과 의사와의 대화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유능한 '카이로프락터'로서의 정통교육을 힘씀에 있다.

2. 교 과 목 : 카이로프락틱 교정 이론 및 실기(해부학, 스포츠맛사지, 근육학, 운동처방 포함)
디스크(목, 흉추, 요추, 선추), 오십견, 두통, 관절통, 편마비 등의 교정 방법을
미국 팔머대학의 교재로 확실히 교육시킴

3. 과 정 : 2급과정 교육기간 2개월(총 108시간) 지도자 자격증 발급
1급과정 2급과정 수료자로서 교육기간 1개월(총 54시간), 카이로프락틱 마니 플레이션

4. 모집방법 : 2급과정 30명(선착순 마감)
● 지원자격 : 출가수행 스님 및 법사, 불자
● 입학금 및 강의료 : 출가수행 스님으로서 승적증명서 제출자는 무료 (단, 식대 및 교재대 20만원)
● 원서접수 : 2004년 9월 2일 ~ 9월 25일 까지

5. 입학일시 : 2004년 10월 4일 (월요일) 13시

6. 원서교부처 :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교학과 042)635-8186, 8187
대전광역시 대덕구 중리동 241-14 호산빌딩

사단법인 정토불교 체육지도자 교육연수원

일주문



보살계 수계산림법회 봉행

서울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9월 17~19일 대웅전에서 조계종 원로의원 혜정 스님, 前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등을 계사로 보살계 수계산림법회를 봉행했다.



추기 스승강공 봉행

진각종 교육원장 혜정 정사는 10월 19~20일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총인원에서 '진기 58년도 추기스승강공'을 봉행한다. (02)913-0751



'학진' 등재 후보 학술지 선정

인도철학회장 김선근 동국대 교수는 9월 9일 인도철학회 학술지 <인도철학>이 한국학술진흥재단 2004년도 '등재후보학술지'로 선정됐다.



8재계 실천법회 봉행

조계종 포교사단 양성홍 단장은 10월 9~10일 합천 해인사 보경당에서 정기연수회 및 8재계 실천법회를 봉행한다. (02)737-7588



청소년 초청 환경등반대회

대한불교전국산악인연합회 김진관 총재는 10월 10일 서울 광진구 아차산에서 제1회 청소년 초청 환경등반대회를 개최한다. (02)735-1108

향가 25수 동영상·애니메이션 제작

예천 장안사 주지 지정 스님



지정 스님



향가집 CD

예천 장안사 주지 지정 스님이 지난해 향가 25수를 소개하는 향가집을 낸데 이어 최근 동영상과 애니메이션을 곁들인 CD를 제작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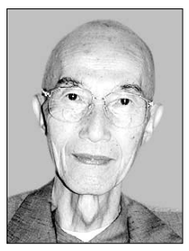
지정 스님이 제작한 향가집은 현존하는 향가 25수를 우리말로 풀어쓰고 그 원류나 이야기를 함께 곁들여 이해의 폭을 넓혔다. 특히 보현행원가(보현십대행원가) 11수는 균여 스님이 지은 것으로 화엄경의 보현행원품을 모태로 지어진 것이다.

스님은 "그동안 우리문학의 원류인 향가의 보급이 미진하고, 일부 학자가 우리말로 풀어썼다할지라도 근원적인 화엄사상도 모르는 채 말 풀이에 그친 것이 안타까워 향가집을 내게 됐다"고 밝혔다.

지정스님은 1년간 향가집 3만여권을 경북 예천 문경지역 중,고등학교를 비롯해 강원이나 제방 선방에 무료로 배포해왔다. (054)655-1401 **배지선 기자** jjsun@buddhapia.com

"日 과오 인한 원혼 달래고 평화 기원"

한·일 합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재 봉행한 전국 일궁순례회 대표 이리에 고우이치로우 씨



"'원한은 원한을 없애 버렸을 때야 비로소 풀어진다'는 법구경의 가르침처럼 400여년전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작업을 시작으로 한·일 양국의 평화, 우호증진을 이끌겠습니다."

9월 17일 봉선사와 함께 '한·일합동 임진왜란 희생자 위령재'를 개최한 일본 교사교육단체인 '전국 일궁 순례회 세화인' 대표 이리에 고우이치로우(入江孝一郎·81·사진)씨. 이리에 씨는 이번 위령재가 피로 물든 세계에 불교의 평화와 자비정신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리에 씨는 "전쟁이란 가해국과 피해국이라는 이분법적 사고에 앞서 양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참혹한 일"이라며 "모든 일이 인과법에 따라 일어나는 만큼 한·일 양국의 활발한 교류 및 우호증진을 위해서는 역사상 양국이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임진왜란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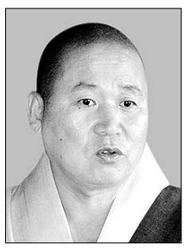
또 "이를 통해 일본은 과거의 과오를 답습하지 않기 위한 반성의 시간을, 한국은 가슴 깊이 묻어놓은 원한을 풀고 양국 관계를 진취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전국 일궁 순례회 세화인'은 50년 역사를 가진 (사)일본이동교실협회를 모태로 둔 교사교육단체로 1999년에 창설, 올해 8월에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간단사(寺)에서 '원국의 난'과 '하루하강전쟁' 희생자를 위한 '아군과 적군 진혼재'를 개최한 바 있다.

김은경 기자 ilpck@buddhapia.com

합심으로 불사 7건 회향 '도량 업그레이드'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



"도선사는 지난 1년 동안 쉴 새 없이 불사를 추진해 불자들이 보다 기도하기 좋은 환경을 갖춘 호국참회 관음기도도량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도선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쏟아준 신도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취임 후 3년 동안 도량정비 불사에 매진해 온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사진)은 지난해 9월 대웅전 앞을 가로막고 있던 요사채 해체를 시작으로 반야굴 조성, 참회원 정비, 포대화상 봉안, 수곽 조성, 마당 복개, 윤장대 봉안 등 일곱 가지 불사를 최근 마무리 지었다.

혜자 스님은 "성·천수·십일면·불공견삭·마두·여의륜·준제 7관세음보살 33일기도에서 불사의 영감을 얻었다"며 "이 불사의 공덕을 불자들에게 회향하기 위해 9월 8일부터 10월 11일까지 33일 동안 14인의 고승을 초청해 법회를 열고 있다"고 말했다.

도선사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독송기도를 열어 기도도량으로서의 면모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혜자 스님은 기복에 치우치는 신앙을 경계, 주지 부임 직후 불교교양대학인 도선불교실달학원을 개설해 불자들의 교육을 병행해 왔다. 10선업상, 육바라밀상 등 신행상을 제정해 신도들의 신행·봉사도 적극 장려하고 있다.

혜자 스님은 앞으로 도선사를 시민문화공간으로 바꿔나가겠다는 원력을 세웠다. 사찰의 포교활동이 이제는 일주문 밖으로 나서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구를 새긴 경판을 제작해 도선사를 오르는 청담로와 도량에 설치하고, 산사음악회 등 시민들이 찾아올 수 있는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나갈 계획이다.

박봉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 법장 스님 예방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9월 13일 총무원장 집무실에서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의 예방을 받고 국가보안법 등 최근 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법장 스님은 이날 최근 열린우리당이 추진 중인 국보법 폐지와 친일진상규명법 개정에 우려를 표시했다.

부산 미타선원, 휘광 스님 초청법회



부산 용두산 미타선원(주지 동운)은 9월 14일 해외포교와 인재양성에 진력하고 있는 뉴욕 불광선원 주지 휘광 스님 초청법회를 봉행했다. 옥외에 건립된 대규모 사면사천왕상, 대웅전 건립 등 중창 불사 회향 기념으로 열린 이날 법회에는 2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칠곡 송림사 신도회 출범식



칠곡 송림사는 9월 14일 신도회 출범식을 갖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송림사 신도회는 유상종 대구지방경찰청 경승진흥회장을 고문으로, 이상번 전 대한불교청년회장을 신임 회장으로 임명하고, 자비회와 지장회, 관음회, 경전읽기모임, 합창단 등 다양한 신도모임을 구성했다.

인사

동국대

동국대 서울캠퍼스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건설본부장 윤범대 △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장 이강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국장 이천종 △제3캠퍼스건립추진단 기획팀장 김영진 △총무처 총무팀장 김성근 △정보관리실 정보자원관리팀장 김재선 △대학원 교학부 교학과장 박승종

위덕대

△교무처장 홍욱헌 △학생처장 이평기 △학술정보처장 전인우 △기획팀장 김구용 △대외협력팀장 이광동 △교무팀장 김종포 △학생취업팀장 최종규 △총무팀장 이덕기 △시설팀장 최지호 △전산정보팀장 전무찬

새 '둥지' 짓기 첫 삽… "관심을…"

'둥지청소년의 집' 불사 추진 자월 스님



"이제 '둥지' 만들기에 첫 삽을 떴습니다. 앞으로 애들을 제대로 된 시설에서 보살피려 합니다."

안산 자현사 경내에서 9월 14일 진행된 '둥지 청소년의 집' 기공식 법회 현장. 무의탁 청소년들의 '아버지' 자월 스님(자현사 주지·사진)이 모인 사람들에게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002년 조건부 복지시설로 전환신고를 한 후, 고민 끝에 신축을 결정한 자월 스님. 빠듯한 절 살림이지만 아이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주겠다는 다짐으로 이렇게 말했다.

스님은 5년 전 주지로 부임하면서 이곳 아이들 20명과 인연을 맺었다. 젖먹이부터 고등학생까지, 스님이 아이들을 맞아들인 데는 사연도 구구절절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지요. 한 쌍둥이 형제는 자폐·간질발작증세를 보여 4~5군데의 보호시설에서 거절당한 뒤 '우리 집'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은 아픔을 아물게 하나봅니다. 쌍둥이가 아주 건강해졌어요."

지금은 식구가 83명이 된 '둥지' 살림을 챙기는 스님은 요즘 따라 아이들이 상처받은 기억을 잊지 못할까봐 걱정이다. 그래서 스님은 늘 아이들을 말없이 안아준다.

갈 곳을 잃은 아이에게 늘 두 팔을 내밀어 온 자월 스님. 턱없이 모자란 공사비 때문에 마음속에는 근심이 가득하지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바랄 것이 없다며 활짝 웃었다. (032)883-9033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출판기념법회에 초청합니다

긴 장마철과 유난히 무덥던 하절의 무탈 무사하심과 하안거(夏安居)해제를 경하 드립니다.
적은 것으로써 큰 것을 이룬다는 이소성대(以小成大)의 순리를 따라 저희 종단은 구산선문(九山禪門) 수미산의 개조(開祖) 이엄진철(利嚴眞澈)선사의 조정(祖庭)인 중국 운거산 진여사에서 단절되었던 선맥복원(禪脈復元)과 사법전등(嗣法傳燈)의 절차를 마친지 제3주년을 맞이하여 정부 문화관광부의 소관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득함으로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의 법인창업을 이룩하였습니다.
저희 종단은 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전국불교학자들이 참여하여 기획 간행하는 조동선학논총(曹洞禪學論叢) 제1집이 출판되어 다음과 같이 자축 소연을 마련합니다.

● 시 간 : 불기2548년 10월 9일 (양) 토요일 오후 2시
● 장 소 : 불교방송국 대법당 문의전화 02)705-5560 ~ 1

1. 구산선문 수미산 開祖 利嚴眞澈禪師의 祖庭 중국 雲居山 眞如寺에서 嗣法傳燈 禪脈복원 제 3주년
2. 한국 조동종 총본산 創宗 제 2주년
3. 「사단법인 韓國佛教曹洞禪林」 법인 창업
4. 「曹洞禪學論叢」제1집 출판간행. 10월 9일 출판기념회
5. 曹洞禪林 全國結社 순회집회. 11월 부산부터 실시

한국조동종총본산 사단법인 한국불교조동선림
대표 : 總務院長 今禪鶴峰 合掌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152 원효사 02)704-8065, 713-0475 FAX 704-8064
불교방송국: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마포 지하철 역 하차)

승복 법복 판매 안내 확실한 품질 만족할 가격



1. 경남 제일 모직(물세탁)
적삼, 바지 150,000 ~ 180,000 동방바지 180,000 ~ 210,000 두루막 150,000 ~ 180,000
2. 무명(먹물, 손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3. 면 솜없이 누비(한국산 숯염색)
적삼, 바지 180,000 동방, 바지 220,000 쪼끼 60,000 두루막 170,000
4. 면 목화솜 누비(먹물 염색)
적삼, 바지 210,000 동방, 바지 250,000 쪼끼 70,000 두루막 200,000
5. 모직 특수솜 누비(물세탁)
적삼, 바지 240,000 동방, 바지 290,000 쪼끼 80,000 두루막 230,000
6. 장삼 고급모직 220,000 제일모직 250,000 실크·금낭 준비되어 있습니다.
7. 가사 대가사 150,000 ~ 200,000 반가사 70,000 ~ 100,000
■ 기타 : 스님 차이나 남방, 니트T, 니트모자, 마후라, 가방, 신도용 쪼끼, 바지 준비되어있습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역판매점 모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 업체 원방각
아름승복
전시장 : 053-256-0108
공 장 : 053-425-4449
휴대폰 : 016-597-4449
011-809-2398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동인 3가 88번지 (동삼아파트 주차장 내)



불자 세상보기

이 우 상

소설가 · 대진대 문창과 겸임교수

조작된 '신의 아들'

"사나이답게 싸우다 장렬하게 죽는다. 알겠나?" "예!" "전원 유서를 써서 전투복 상의 주머니에 넣는다. 실시!" "실시!"

갓 임관해서 전입온 소대장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되었다. 데프콘2 발령, 전투개시 직전 상황이다. 제대 특명을 받아놓은 고참병들도 예외 없이 완전군장을 하고 비장한 얼굴로 소대장의 지시를 듣고 있다. 이른바 8 · 18 판문점 도끼만행 사건(1976년)이 터졌을 때의 상황이다. 입대 5개월 째, 신병 티를 벗지 못한 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찢어 몇 장의 유서를 썼다. 우린 모두 어둠의 자식들이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어 최전방까지 팔려온 노예였다.

그러나 용감히 싸우다 장렬하게 죽겠다는 결의는 바위처럼 굳고 단단했다. 그러나 전쟁은 터지지 않았고 유서는 불태워버렸다.

지금도 유효한 오래된 농담이 있다. 병역 면제자는 신의 아들, 방위 근무자는 장군의 아들 그리고 현역병은 어둠의 자식들이란다. 20대 초반의 2~3년은 황금의 시간이다. 지적 관심, 순발력, 두뇌 회전, 집중력, 체력 등이 비수같이 날카롭고 헬리콥터처럼 역동적이다. 재벌의 자식이든 연예인이든 운동선수든 그 함량은 동등하다.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이 군대이다.

군대 생활이 힘든가, 출산의 고통이 힘든가? 젊은 남녀들의 논쟁을 잠시 엿들어보자.

남: 출산은 육체적 고통이 대부분이지만 군대는 지능저하, 지위격하, 기계화, 물상화 등 각종 정신적 불이익을 수반한다.

여: 너희는 임신 중 직장생활과 육아의 스트레스를 알지 못해.

남: 출산할 때에는 주위의 온갖 축복과 찬사를 받지만 군대에서는 온갖 수모에 굴복할 것을 강요당한다.

여: 허허, 3대 독자와 결혼해 딸 한번 낳아봐!

남: 출산은 애인과의 결합을 확실하게 보장해주지만 군대는 애인과의 결별을 부채질한다.

여: 결혼해서 애 낳아봐. 애 치다꺼리하느라 남편은 쳐다보지도 못해.

남: 출산은 자신의 인생을 위한 몸부림이지만 입대는 인생의 일부를 조건 없이 국가에 헌납하는 것이다.

여: 출산이 그렇게 단순한 게 아냐.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체력단련하고 온다고 생각할 수 없니.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되어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 병역은 의무이다. 신성한 의무이다. 출산의 고통과 대등한 고초가 수반되는 의무이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했다.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즐기다보면 어둠의 자식들이 어느새 태양의 아들이 된다. 햇빛 아래 맘껏 활개치고 다닐 수 있다.

군대는 인생의 축소판이다. 졸병 시절은 밑바닥 인생이나 고참병이 되면 황제에 등극한다. 또한 군대는 수행 도량의 축소판이다. 신병 시절에는 손에 물 마를 날 없는 행자와 같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상급자가 되면 권위와 위엄을 갖춘 방장 스님이 된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릇 됨됨이를 다듬는다. 군사문화에는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은밀한 거래, 고부가가치 산업인 병역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눈을 부릅뜨고 감시해야한다. 관료의 의지와 제도의 정비로 가능한 일이다. 지도층의 솔선수범(노블리스 오블리제) 또한 필요하다. 세상 인심이 소란스러워 자이툰 부대 병사들은 따뜻한 환송도 받지 못하고 전장으로 갔다. 그들의 안녕과 무사귀환을 기원한다.

국가의 힘은 복합적이다. 청년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무게를 지닌다.

본란(本欄)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인심은 시대상황이 만든다. 화합하는 사회라면 이웃과 아픔을 함께 할 것이고 불화의 사회라면 이웃의 아픔에 무관심하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는 정치권이 내놓은 갈등적 소모적 주제들로 유례없는 불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과 더불어 '이웃에 대한 무관심'의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올 추석이 예년과 달리 썰렁하고 어수선한 이유도 마찬가지다.

추석은 가족 친지 단위로 화목한 분위기가 연출되는 명절이다. 이럴 때일수록 상대적 외로움과 소외감을 갖게 되는 불우이웃이 있어 예부터 이들에게 관심을 가져온 것이 우리 국민심성 이었다. 그것이 현대로 이어져 추석이나 연말연시 등 명절이면 종교, 자선단체 신문 방송 등이 불우이웃에 대한 관심을 한번씩 환기시키곤 한다.

불우이웃 돕기가 어디 추석 연말연시 등 몇 번의 명절 때만

'한가위만 같아라' 했으니…

떠들썩한 연례행사로 치러져서 되는 일인가 라는 의문도 있다. 지난시대 강압적 정치 아래 겉치레 눈치 보기 생색내기 등의 비자발적 자선행태가 문제되기도 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웃돕기도 관주도의 반강제적 성금모금에서 민간주도의 자발적 공동모금으로 바뀌었고 그동안의 성과도 두드러진다. 그만큼 '자발성'이란 점에서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주며 이웃돕기는 연중행사로 바뀌어 가고 있다. 매스컴의 캠페인이나 기업들의 기부, 자원봉사도 연중 자발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추석을 맞는 지금 불우이웃은 더 늘어나고 왜 그들에 대한 관심은 싸늘하다는 느낌을 받는 것인가.

이웃돕기는 진심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이웃에 대한 선한 관심을 기울이며 이들을 도와야 한다는 마음을 키워야 한다. 화합하는 사회가 바탕이 돼 준다면 이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일 것이다.

불우한 이웃을 곁에 두고 끼리만이 즐거울 수 있다면 이는 부끄러움일 것이다. 비록 불화의 시대이긴 해도 동체대비와 동사섭의 가르침을 소중히 하는 불자들만이라도 앞장서 이웃과 따뜻함을 나누는 추석을 만들도록 해 보자.

■김징자(칼럼니스트)

독자투고

'신행수기' 쓰면 믿음 강해져

나는 이제 일요일엔 전철을 타지 않는다. 봉천동 집에서 우리 선원이 있는 쌍문동까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간다. 또한 일요법회에 흔쾌히 차를 운전하는 남편을 보면 참으로 고맙다. 늘 나의 후원자였지만 이젠 같은 도반이 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옛날과는 많이 달라진 내 모습과 가끔 좌선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스님의 법문을 들려주기도 했지만 한번도 함께 선원에 가기를 권하지는 않았다. 인연이 될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생각이었다.

지난 7월 <현대불교>에 나의 수기가 실린 뒤 남편은 스스로 같이 선원에 다니자고 했다. 얼마나 기쁘던지….

아마도 정신과 몸이 건강하게 달라진 내 모습을 보고 마음이 움직였나보다. 나스스로도 크게 도움이 되었고 또한 나를 새삼 정리하는 시간이었기에 감사하다.

그저 숨기고 싶었던 내 지난 일들을 홀가분하게 드러내고 나니 웬지 더 떳떳하고 당당해짐을 느낀다. 나는 더 부끄럽지도 아프지도 않다. 그 아픔 덕에 선원에서의 마음공부도 했고 부족하지만 그나마 이 만큼의 나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을 표하려 하니 온천지가 티끌까지도 다 감사한 곳이라 그만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라는 스님 말씀이 떠올랐기에. 우선주(서울 관악구 봉천6동)

특별기고

무분별 수입 '불교미술품'에 전통도 불심도 멍든다



한봉석 (한국전통조각회 회장)

불사는 '값' 아닌 '얼과 맥'으로 해야

우리 민족은 세계 어느 민족보다 우수하고 독특한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문화를 이루어왔다. 일찍이 삼국시대부터 전래된 불교 신앙을 바탕으로 찬란한 불교문화를 꽃피웠는데, 특히 민족의 얼과 불교의 사상이 융합되어 탄생된 한국의 불교미술조각은 우리나라 전통미술 중에서도 으뜸으로 꼽히고 있다.

근래들어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도 점차 커지고 또 불교미술의 맥을 이으려는 장인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조금씩 불교미술계가 활기를 되찾는 듯 해 전통 조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값싸고 질 낮은 외래의 미술품들이 단지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무분별하게 밀려들어, 대표적 전통의 거리라 할 수 있는 인사동의 상점은 물론 성스러운 사찰 경내, 심지어는 법당안까지 침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석조, 목조에서 건축, 탱화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총망라되어 우리의 불교미술시장을 교란시켜 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부처님을 모시기 위해 신도들이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정성껏 보시한 불사금으로 삼존불상을 모신 대구의 모사찰이나 창원 모사찰의 사천왕상과 목탱화 불상 등이 모두 수입품이란 사실은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불교미술의 발원지이자 최대소비처인 사찰에서 우리의 전통미술품 대신 수입품을 선택했다는 것은 지금 우리 불교미술계가 처한 위급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구나 최근에는 우리 초(草)와 기술자들을 데리고 가 만들거나, 불상같은 경우 몸체만 수입해온 상태에서 얼굴부분만 우리나라에서 조각하여 우리나라 작품과의 차이를 줄여보자는 의도로 앞으로 더더욱 다양해지고 교묘한 수법으로 우리 미술계를 파고들거라 보여진다.

우리 불교미술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요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맥이 단절될지도 모르는 위기이자 전통공예인의 생존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에 틀림없다. 수입된 불상이나 미술품들이 우리의 전통미술품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우리의 전통불교미술품인양 행세하고 또 그대로 후손들에게 대물림 되는 일은 우리의 문화 유산 기반 자체가 붕괴되어질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더 큰 문제는 한낱 상품에 불과한 엉성하고 질 낮은 수입품이, 우리나라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해야 할 어린 학생들의 눈에 우리의 전통 미술품으로 오인되어 착각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점이다. 우리의 빼어난 전통미술품이 아닌 수입품에 학생들의 눈높이가 맞춰진다면 전통문화의 발전은커녕 퇴보하여 수준의 저하가 예상된다.

또한 부처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수 십년 갈고 닦은 솜씨로 빚은 장인들의 작품이 앞으로도 계속 값싸고 질 낮은 수입품들에 밀려 설 자리를 잃는다면 뒤를 이어 우리의 전통의 맥을 잇겠다고 나서는 사람도 없게 될 것이다. 가뜩이나 손쉽고 편한 일자리만 찾는 시대에 더 이상 우리의 옛 일을 전수 받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다면 이 또한 전통의 맥이 끊기는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한 나라의 전통과 문화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 누가 어찌 만들든 겉만 흉내낸다고 전통예술품이 될 수도 없다. 우리 불교미술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키며 현재까지 면면히 이어져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한 작품 한 작품에 모든 정열과 혼을 불살랐던 선대 장인들의 땀과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또한 그러한 장인의 작품을 아끼고 사랑했던 국가와 불교계의 정책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러한 전통미술품들이 우리나라의 전통을 만들고 문화재가 되고 후손들의 빛나는 문화유산이 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랜 역사와 더불어 찬란히 이어져 온 우리의 전통 문화를 보존하고 되살려 후대에 물려주는 일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임무이자 의무이다.

일반인들의 커다란 관심과 박수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전통공예에 몸담고 있는 우리 공예인들이 올곧은 장인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창조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사찰에서 무분별한 외국 불교미술품들의 수입을 자제해 주기를 간절히 바란다.

'현대'만평 심 민 섭



궁중비법 사주명리 학인모집
(구, 성수철학원)

본 학회는 **궁중비법 사주명리** 연구로 전국 최대의 회원 양성 기관이며 현재 각지 200여곳에서 회원님들이 성황리 활동중이며 특히 스님, 처사, 보살님 전문 교육기관으로써 처음 배우실분, 해도해도 안되는 분을 위하여 1개월(주간)/3개월(야간,주2회)수강하시면 완벽한 비법으로 눈치볼 필요없이 100% 책임보장. 개업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본학회 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자격시험시행 합격자에게는 자격증을 수여함

안 내

- 모집인원 : 수시모집
- 교육기간 :
  - 1개월 완성반(주간, 월 ~ 금)
  - 3개월 완성반(주, 2회)
    Ⓐ 월 · 화반 Ⓑ 수 · 목반 (시간 : 오후 7~9시)
- 지도교수 · 강사 : 백운 성수(본학회 회장)
  대각 스님(금강불심원) 백궁, 봉계, 도영
- 교육장소 : 본 학회 2층 강의실(최고시설완비)
  ※ 무료특강 10월 5일(화) 저녁 6시 30분

※ 금강불심원(본 학회 직할) 대각스님(053-425-7875)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동 2270-4(2층) 대명시장 맞은편
053)255-4784, 256-4784
휴대폰 : 018-531-2237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목 조 건 축 물
(보수. 복원. 보존)



목조 건축물의 문제점
특히 곰팡이, 해충, 가루나무좀벌레, 흰개미 목재부식, 기와방수 이 모든것을 해결합니다.
저희 동화특수산업(주)은 목조 건축물을 과학적으로 보존에 임하고 있습니다!

취급품목
- 흰개미 방제 시스템
- 가루나무, 좀벌래살충
- 목재 복원 시스템
- 목재, 석재, 기와발수제
- 곰팡이 이끼 제거제
- 목재전용(부식)방부제
- 기타공사

www.dongwhaind.co.kr
동화특수산업(주)
본사/공장 :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27-1
TEL. 031)451-6232 (代) FAX. 031)451-6238
HP. 011-747-2111

하기책자 3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내 용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내 용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상담문의 및 책 자 신 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 3층)
전화 : 0311334-9490, 334-9491 야간 : 0311706-3060

회원 보시금으로 10년간 장학금 전달

▌불교방송 청취자 신행모임 화엄장학회

10년 동안 학인 스님과 어린이들에게 장학금을 꾸준히 지급해온 장학회가 있어 화제다.

화엄장학회(회장 본각)는 9월 12일 서울 홍제동 금장사에서 창립 10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하고, 학인 스님 8명과 어린이 10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화엄장학회는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장인 본각 스님이 95년 불교방송 자비의 전화 프로그램에서 <화엄경>을 강의 했을 당시 애청자들이 자

매월 가족법회 50여명 참가
스님 · 어린이 170명 수혜

발적으로 모여 창립한 신행모임. 회원은 50여명이다.

매월 한차례 가족 법회를 봉행한 뒤 십시일반 모은 보시금을 어린이들과 학인 스님들에게 지원한 것이 벌써 10년째다. 그동안 장학금을 받은 학인 스님은 120여명에 이른다. 또 불교의 미래를 위해 지급한 어린이 장학금 수혜자도 50여명에 이른다.

특히 올 초에는 금장사 신도인 원광화 보살이 평생 모은 1억원을 기탁, 이를 기반으로 화엄오향 장학금을 신설해 대학원에 재학 중인 학인 스님도 후원키로 했다.

10주년 기념법회는 삼천사 주지 성운 스님의 특별 법문, 금장사 은평법당 어린이회원들의 바이올린 축하공연, 선무 시범, 창립 맴버 8명 공로패 수여 등의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화엄장학회장 본각 스님(사진 오른쪽)이 학인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다.

금장사 주지인 본각 스님은 "화엄장학회는 기금도 없이 순수하게 회원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은 보시금으로 장학금을 지급해 왔다"며 "가족법회로 시작해 지금도 50여명씩 꾸준히 법회에 동참하고 있는 회원들과 화엄장학회를 지켜주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권양희 기자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불교자원봉사연합회 이동자 보살이 서울시장 표창을 받고 있다.

불자들의 보시행 빛났다

단체 · 개인 서울사회복지대회서 무더기 표창

불교단체와 불자들이 전개하고 있는 '나눔' 운동이 활발한 활동으로 사회적 공인을 받고 있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펼쳐지고 있는 빨래와 청소 같은 '작은' 봉사는 물론이고 무료급식, 목욕, 기도, 장의 봉사 등에 이르는 다양한 형태의 보살행이 '만발'하고 있는 것.

이같은 활동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가 9월 14일 마포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한 '2004 서울사회복지대회'에서 증명됐다. 이날 대회에서 불교자원봉사연합회(회장 성덕), 서울노인복지센터(관장 지완), 불교사회봉사회(회장 김명순),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 (사)우리는선우(이사장 성태용) 등이 후원자, 자원봉사자, 종사자 등의 부문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이 수여하는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16년간 무료장례봉사, 무료급식, 수해복구지원, 병원봉사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벌여 온 불교자원봉사연합회의 이동자(52)씨와 서울노인복지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2만 6천여 어르신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해숙(33)씨는 서울시장상을 받았다. 그리고 1992년부터 '심장병어린이 돕기 기금마련 자선음악회'를 개최해 형편이 어려운 어린이들에게 5000만원의 기금을 지원하고 생활비를 보조해 준 불교사회봉사회도 서울시장 표창을 수상했다.

또한 서울의 대표적인 노인복지관으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의 사회복지사 권기현(30)씨와 탑골문화학교 교사로 일본어 강의를 하고 있는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신성균(79)씨는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표창을 받았다.

특히 2000여명이 넘는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국내외에서 다양한 장학사업과 포교활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는선우는 후원자 부문에서 상을 받았다.

우리는선우 성태용 이사장은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의 불자들이 바로 이 상을 받아야 한다"며 "불교계의 적극적인 사회봉사활동이 바로 부처님의 보살행"이라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결식아동돕기 음악제 성황

영남불교대학 주최
시민 2000여명 참가
기금 1000만원 마련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 경산도량이 사찰을 떠나 시민들과의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했다. 9월 11일 경산 남천둔치에서 영남불교대학 회주 우학 스님, 경산도량주지 대륜 스님, 경산시 백준호 부시장, 채종학 교육장을 비롯 2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식아동돕기 '참 좋은 가을 음악제'가 열렸다.

대구 MBC DJ 이대희씨의 사회로 열린 이날 음악제에는 에어로빅댄스, 스포츠댄스, 사물놀이 등의 공연이 펼쳐지고, 오인영(영천중앙초등 4) 어린이의 색소폰 연주, 어린이가수 정샛별(성지초등5) 양의 무대가 이어졌다. 영남불교대학 금강합창단은 깊어가는 가을밤 경산시민들에게 부처님의 법음을 전했다.

참 좋은 가을 음악제에는 특히 영남불교대 신도들과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가 빛을 발했다. 영남불교대학 경산도량 불자들은 행사 수익금 전액(약 1천만원)을 결식아동돕기에 회향하기 위해 무대를 만들고 청소하는 것까지 모두 자원봉사로 처리했고, 출연진은 출연료를 받지 않았다.


오인영(영천초교 4반)어린이가 관객들 앞에서 색소폰을 불고있다.

또 회주 우학 스님이 공들여 준비한 연꽃 사진과 소장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 등을 내놓았고, 연정서실 박영애, 혜산서실 장태제 선생은 동참한 경산 시민들에게 무료로 가훈을 써주었다. 전시무대 주변에는 오뎅, 파전, 두부김치 등 기금마련을 위한 먹거리 장터도 섰고, 경상병원 후원으로 경산시민을 위한 무료건강검진 센터가 차려졌다.

회주 우학 스님은 "대구지역 결식아동수가 2만 5000명, 경산지역도 5000명은 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번 행사가 겨울을 맞이하는 결식아동들에게 조금이라도 훈훈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지선 기자



영남불교대 금강합창단의 찬불가 합창모습.

"1천원으로 부처님 말씀 전해요"
현대불교신문을 이웃에 법보시

1천원으로 보시중 최상의 보시인 법보시 공덕을 지을수 있습니다.

● 참여방법
- 현대불교 매월 '법보시 후원금' 1구좌 1,000원 이상
- 현대불교신문 보내는 곳 : 군부대, 교도소, 경찰서, 병원법당, 복지시설 등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006-01-0783-830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농협 053-01-236053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자동이체로 하면 더욱 편리합니다.

※자동이체 신청시 전화 한통화로 해결됩니다.

● 문의 : 현대불교신문사 고객부 (02)737-8881 (02)737-0090, 팩스(02)737-0697

"어린이 · 청소년 법회에 찬불동요 테이프와 CD를 보냅시다"

현대불교신문사와 좋은벗풍경소리가 공동으로 '전국 어린이 청소년 법회에 창작 찬불동요테이프와 CD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마음을 지니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아름답고 순수한 부처님의 마음을 담은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창작 찬불동요를 선물해 주세요.

● 어떻게 참여하나
- 종단 · 사찰 · 기업 · 단체 · 개인 모두 동참 가능합니다.
- 본사·연고사찰 단체 등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 1구좌 1만원입니다.
- 보급기간: 2004년 3월부터 12월31일까지

● 온라인구좌/농협 053-12-132878, 예금주 좋은벗 풍경소리 이종만

● 문의/좋은벗 풍경소리 (02)723-9836

▌이렇게 참여하세요

♥ 각 종단의 나눔운동과 연결

함께하면 큰 힘이 됩니다. 각 종단과 NGO 복지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사업과 연대합니다. 또 자비의 콘서트(불자가수) 법률 및 세무상담(불자 변호사 세무사) 봉사에 참여하거나 사업연대가 가능합니다.

♥ 나눔의 손잡기 공동체

내가 가진 돈, 힘, 시간, 지식 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보시하도록 연결해 드립니다. 자원봉사를 원함에도 그 방법을 몰라 실천하지 못하는 불자들의 중개소 역할을 자부합니다. 모범이 되는 봉사자들을 추천해 주세요.

♥ 나눔의 손잡기 기금참여

남을 돕고 싶은 분들은 계좌나 한통의 전화로 자비를 실천하는 ARS(060-700-1080)를 통해 기금을 보내주세요. 결식아동,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우 등 우리 사회에서 함께 살고있는 이웃들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 어려운 이웃 사연 제보

주위의 어려운 소년소녀가장, 결식학생, 독거노인, 장애우의 사연을 알려 주세요.

♥ 정기후원 참여

소년소녀가장들과 결식아동들의 후원자가 되어 매월 정기적으로 생활비나 급식비를 줄 수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결식아동과 결연을 희망하시는 분은 연락주십시오.

♥ 불자기업의 사회공헌

기업의 사회공헌은 이제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불자기업들과 불교복지시설을 연계하여 후원하거나 시설을 건립해 드립니다.

♥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지도자 자매결연

불교권 국가의 외국인 노동자와 불교계 각 종단 스님과 단체 운동가간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불안에 떨고 있는 노동자들과의 결연을 희망하는 스님과 불교지도자들을 모십니다.

♥ 각 사찰의 공양미 나누기

불자들이 보시한 각 사찰의 공양미를 소년소녀가장 및 독거노인들에게 지원해주세요. 어려운 곳이나 복지시설에 공양미를 보내고 싶은 사찰은 본사로 신청해주시고, 공양미가 필요한 시설은 연락바랍니다. 과일과 김장, 양념, 라면, 과자류 등 식품도 접수 받습니다.

♥ 자비의 헌혈증 및 장기기증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장기기증에도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 보고싶은 가족찾기

미아는 물론 실종가족과 이산가족, 입양아들을 찾아드립니다.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나눔의 저금통 신청

서울 관악구 봉천6동 우선주님 – 저금통 10개

▌나눔의 성금

전남 장성군 (주)삼보기술공사 – 5만원

김인태 강봉식 강신재 강병도 강병재 조명희 장정자 최은경 하동규님 – 33만 7천210원

총누적금액 22,780,680원

▌알립니다

현재 '나눔의 저금통' 1차 수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에서는 직접 개봉하여 은행 온라인을 통해 입금한 뒤, 곧바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 722-4162. 입금계좌: 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저금통 분양합니다



원숭이해를 맞아 원숭이 저금통을 채워서 보내주십시오. 저금통은 회사, 가정, 가게, 단체사무실 등에 비치하시면 됩니다. 특히 불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기금 모금용 저금통을 비치할 경우 '나눔의 가게'로 선정해 드립니다.

스티커 나눠 드립니다

사찰, 자동차, 건물, 가방에 붙일 수 있는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를 나눠드립니다. 나눔의 손잡기 스티커는 조선일보가 전개중인 '우리이웃' 캠페인과 상호 협조에 의해 엠블럼을 공동 사용합니다.

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연구한다’ 욕심 버릴때 지극한 세계 열려

산문밖의 선

*일향한국미술사연구원 개원한 **강우방** 교수*


“아름다움은 나의 신앙”이라는 미술사학계의 거장 강우방 교수.

신라인 불심으로 돌아가 작품 앞 글쓰기 30년
석굴암 본존불 크기 ‘대당서역기’서 근거찾아
‘체험의 희열’ 공유하기 위해 대중강좌 계획

밤마다 석굴암에 올라 본존불과 독대(獨對)하던 한 미술사학자에게 의문이 들었다. ‘석굴암의 건축이 치밀한 기하학적 작도에 의해 설계됐다면, 본존불의 크기 또한 어디엔가 근거해 결정된 것이 아닐까.’ 그때부터 그는 불상 크기의 근거를 찾아 헤맸고, 현장의 <대당서역기>에서 뜻밖의 기록을 마주하게 된다. 문헌에서는 석가모니가 정각을 이룬 보드가야 대각사의 불상 크기를 꼭 그와 같이 묘사하고 있었다. 그랬다. 신라인들은 석가모니가 깨달음을 이룬 그 순간을 석굴암으로써 이 땅에 재현하고 싶었던 것이었다.

석굴암이 남긴 숙제를 손끝의 온기와 절대미(美)에 대한 목마름으로 해결해간 미술사학자 강우방(이화여대 미술사학과 · 65) 교수를 만났다. 35년 전, 남들이 미국으로 영국으로 그럴싸한 유학의 길에 오를 때 스케치북과 4B 연필을 들고 흙먼지 이는 경주박물관으로 낙향했던 사람. 그러나 자신에게 내려진 ‘지금-여기’를 촘촘히 가꿔 ‘체험의 미술사학’ 지평을 열었고, 지금은 한국미술사 안에서 ‘특별한 한국미술사’를 쓰고 있는 사람. 전공인 ‘불상’은 물론 불교예술 전반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었던 그에겐 어떤 힘이 있었던 것일까.

“작품을 손으로 만지고 쓰다듬는 과정을 거쳐 그 당시 시대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석공의 가슴과 하나가 되고, 그 석공이 몸담았던 시대의 철학과 사상에 머리를 맡겼지요. 그리고는 시대를 거스르는 체험, ‘추체험(追體驗)’에 몰입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작품 주변을 맴돌며 그 작품이 형성하는 자장(磁場)을 가늠했죠. 그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일상적인 언어로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을 때 노래가 나오고 그림이 그려진다. 강 교수는 예술로 승화된 ‘지극한 세계’의 즐거움에 매일같이 취했다. 태양이 탑을 훑고 지나가는 하루의 순간순간을 기다려 시시각각 변화하는 탑의 문양을 살폈으며, 그러다 에밀레종이 타종되는 날이면 그 원음(圓音)의 종소리에 때때로 제 몸 전체가 종이 되어 울렸다. 10cm남짓한 작은 불상을 쓰다듬으면서 파닥이는 새를 손에 쥔 듯 깨달음의 기운에 요동치기도 했다. 작품의 생명력은 그의 심장과 만나 ‘영원’의 빛을 냈고 그때부터 ‘추체험’은 시작됐다. 예술작품 속에 함축된 내밀(內密)의 세계를 밝혀내는 희심의 순간은 그 무엇보다 값졌다.

그러한 행동에 반드시 칼날을 세운 연구가 뒤따를 필요는 없었다. 그는 10여 년의 밤을 한결 같이 석굴암 본존불 앞에서 정좌하면서도 석굴암에 관한 그 어떤 논문에도 관심이 없었다. 예배의 대상이지 연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생각에서다. ‘한번 스치기만 해도 모든 번뇌가 사라질 듯한’ 대불의 두툼한 손을 마음껏 쓰다듬다가는, 대불 뒤에서 갑자기 출몰하는 십일면관음보살의 신비스러운 자태를 하염없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석굴암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도 훗날 하버드 대학 미술사학 박사과정을 시작하면서부터다.

그가 30년 간 매일같이 작품 앞에서 글쓰기를 이어온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미술사학이란 조형언어로 만들어진 미술품을 ‘해독’을 거쳐 문자언어로 옮기는 작업이다. 그는 작품과 함께 호흡하는 가운데 체험한 감동을 문자로써 재현해 보이고 싶었고, 모든 연구 논문에 그 과정을 오롯이 녹였다.

건조한 논문에 익숙한 학계에서는 낯선 ‘에세이식 논문’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지극한 아름다움과 그 뒤에 숨은 진리 앞에서 거침없는 감탄을 쏟아냈다. 무모한 불사(佛事)와 위작(僞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일갈을 퍼부어 별 수 없이 논쟁의 핵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30년간 예술과 함께 호흡해온 그의 피부를 믿었다. 위대한 작품 앞에서는 몸으로든 언어로든 춤을 추지 않을 수 없었다. 작품 앞에서 글을 쓴다는 것은 신(神) 앞에서 춤추는 것과 같았다. 그 감흥들은 그의 논문 곳곳에 응화(應化)처럼 자리 잡았다.

그런 그가 4년 전부터 대학 강단에 서서 학생들과 연구의 열정을 나누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일향(一鄕)’이란 호를 딴 한국미술사연구원도 개원해 한국미술을 ‘총체적’으로 살피기 위한 대중강좌의 틀을 마련했다. 당대 최고의 미(美)와 성(聖)이 교차하는 종교예술을 추체험한 지 30년이 되던 어느 날,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보살의 실천이 그에게 화두처럼 다가왔기 때문이란다. 위로는 예술품에 녹아든 진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대중들을 올바로 인도하는 인간상, 그것이 이 시대의 미술사학자가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라고 강우방 교수는 말한다.

글=강신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 강우방 교수는?



1941년 중국 만주 안동에서 출생했다. 1967년 서울대 독문과를 졸업했으나 화가가 되기로 결심해 골방에서 네 해 동안 그림과 붓글씨를 매일 그리고 썼다. 그러나 뭔가 성취했다고 생각하면 다른 일에 도전하는 것이 습성이었던 그는 물감과 붓을 던지고 경주로 떠났다.

이후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학예사로 지내면서 추체험의 실천적인 연구에 뛰어들었다. 그는 석굴암 본존불 크기에 얽힌 비밀을 밝혀낸 이래, ‘귀면와’라는 이름으로 기와에 새겨진 귀신의 얼굴이 ‘용의 얼굴’임을 주장해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막연히 ‘구름무늬’라 불렸던 문양은 우주에 충만한 ‘영기’임을 소상히 밝혀 이목을 끌기도 했다.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과 학예사 · 학예연구관 ·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국립경주박물관 관장을 역임했다. 일본 교토국립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에서 동양미술사를 연수하고,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미술사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2000년 가을 30여 년간 봉직하던 박물관을 퇴직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술사학과 초빙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2004년 9월에는 일향 한국미술사연구원을 개원했다.



정목 스님이 말하는
'원효의 염불선' <11>



칭명염불과 염불선의 수행단계

타방정토를 염원하는 칭명염불을 행하거나 유심정토를 지향하여 깨달음을 성취하고자 염불선을 행하거나 그 수행단계를 알아야 합니다. 가는 길을 알고 행하면 안심(安心)을 얻고 확신으로 정진할 수 있습니다.

칭명염불의 수행단계는 믿음→나무아미타불→염불삼매→안심→실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진실로 믿고 '나무아미타불' 명호를 끊임없이 부릅니다. 정진하는 가운데 무량광명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심화하면 염불삼매를 성취합니다. 염불삼매는 자신이 무량한 자비광명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믿음을 결정하여 그 마음을 끊이지 않는 심적 상태입니다.

염불삼매로써 정토에 태어나 무량광명을 온 몸으로 체험하는 관불삼매를 성취하는데 이것이 염불의 깨달음입니다. 염불선으로 깨달음을 성취하면 고뇌와 죄장으로 불안해하는 생명에게 안심과 희망을 부여하며 회향하게 됩니다.

고(苦)는 의식주의 빈곤, 병고(病苦) 등 일체의 물리적 고통이니 재물을 베푸는 재시(財施)로써 다스립니다. 깨달음 이전에 기본적인 인간생활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뇌(惱)는 종교적, 사회적 번뇌를 포함한 일체의 정신적 고통이니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법시(法施)로써 다스립니다.

죄장(罪障)은 죄악으로 인한 장애입니다. 죄는 물리적 구속이요, 악은 양심적 죄의식으로 자

자각의 종교라는 고정관념 버리고
자비광명에 의지하는 신행혁명을

생사윤회를 벗어난다는 믿음으로 안심을 얻습니다. 염불삼매를 성취하여 안심을 얻으면 자비광명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연히 일체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는 생활로 인도됩니다. 이것은 인과를 믿고 연기법을 실천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발심하여 일체 인연의 은혜에 감사하고 보은하면, 어느 날 문득 자연과 생명의 일체 현상은 그 본성이 청정하여 서로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광명의 물결임을 이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비로소 이치를 깊이 이해하고 발심하면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는 땅, 바로 이 자리에서 참다운 지혜와 복덕이 날로 자라납니다.

염불선의 수행단계는 순리발심→아미타→관불삼매→깨달음→회향입니다. 무량광명에 대한 믿음을 결정하고 이치를 따라 발심하여 '아미타'를 끊임없이 관찰합니다.

정진하는 가운데 기연이 무르익으면 문득 무량상호 무량덕상 유륩지 못한 것입니다. 죄장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고, 이(理)와 사(事)의 참회법으로써 다스립니다. 불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니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무외시(無畏施)로써 다스립니다.

염불로써 지혜와 복덕이 증장하고 정토에 왕생함으로써 괴로운 생사윤회를 반드시 벗어난다는 믿음으로 안심을 얻게 합니다. 희망은 누구든지 염불로써 정토에 왕생하여 생사윤회를 벗어나고 깨달음을 성취하여 일체 경계가 일심인 지혜를 증득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누구든지 자각의 종교라는 고정관념을 버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힘입고 자비광명에 의지하는 신행의 혁명을 일으켜 염불을 행하면 지혜와 복덕이 증장하여 무량한 이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범부와 현성이 더불어 다 함께 일심의 바다에 나아갑니다.

■ 양산 정토원 원장

cafe.daum.net/amitapa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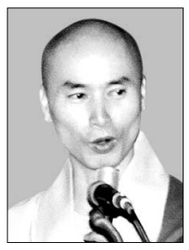
개념에 매이지 말라 열반은 눈앞에 있다

"<금강경> 법문을 듣고 기억하거나 더 알려고도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무심, 무념이 되는 것이 <금강경>을 바로 듣는 것입니다." 서울 상도동 보문사(주지 지범)는 9월 14일 사부대중 2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진 스님 초청 금강경 산림법회' 입제식을 가졌다.



9월14일 서울 보문사에서 대진 스님의 <금강경> 강의를 경청하는 불자들.

서울 상도동 보문사서 7일간 강의



20일까지 7일간 진행된 <금강경> 강좌의 첫날 법문에 나선 대진 스님(백장암선원 · 사진)은 "불법과 세간법에 대한 집착, 열반과 해탈, 깨달음이란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순결한 텅빔 속에서 침묵과 휴식의 삶을 살아가라"고 당부했다.

선기(禪氣)가 넘치는 대진 스님의 열강은 매일 3시간 30분씩 휴식없이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의 진지한 호응 속에 진행됐다. 직지사 강주를 10년간 역임한 스님은 봉암사, 해인사, 동화사, 백담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행했으며, 현재 지리산 백장암선원에서 정진하고 있다.

<금강경> 구절 하나하나를 선(禪) 법문으로 해설한 대진 스님의 강의 내용을 요약했다.

● 내가 사라져야 법문이 들린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 <금강경>은 듣는 데서 시작하고 듣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존재와 삶에 대한 부처님의 진실한 음성은 '나'라는 생각이 있는 한 들을 수 없습니다. <금강경>을 배운다거나, 무엇을 알려고 한다거나, 옳고 그르다는 견해를 가진다면 법문은 들리지 않습니다. 달마대사가 눈앞에서 양무제를 깨우치려 했지만, 양무제는 보고도 보지 못하고, 듣고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불교를 알고 보시를 많이 한다'는 한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 <금강경>은 '지금 여기'서 설해진다

<금강경>은 2500년전의 한때(一時)만 설해진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설해지고 있습니다. 기원정사의 1250인과 여러분이 함께 법문을 듣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헐떡임과 욕망, 갈망이 사라졌을 때 부처님의 맑고 빛나는 눈동자와 고요한 숨소리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귀와 의식을 활짝 열면 <금강경>의 어느 한 구절이 여러분을 일깨울지 모릅니다. 모든 시비와 분별심을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 법문을 듣는다면 <금강경>이 지금 이 자리에서 나를 통해 설해집니다.

●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하다

'깨달음의 마음'이란 없습니다. 오히려 깨달음은 마음과 무관합니다. 진여심이나 평상심과 같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 말들은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설한 명칭입니다. 이 마음의 이면에 뭔가 있다고 허망한 생각을 버리세요. '무심(無心)'을 삼독(탐진치)이 없어진 마음이라 말해서는 안됩니다. 무심이란 말 그대로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는 한 성인과 범부, 선과 악, 번뇌와 보리가 한결같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사라져야만 이러한 분별심이 사라집니다. 깨달음은 무심이 주는 선물입니다. 일심이 아닌 무심, 일념이 아닌 무념, 진심과 보리심이 아닌 무심이 돼야 합니다.

● '어떻게' 하려는 순간 이미 어긋난다

깨달음에서 '어떻게?'란 말은 붙을 수 없습니다. 어떤 의도와 노력으로 자기를 뜯어고치고 향상시키려는 몸부림을 멈추고 침묵 속에서 휴식하세요. 왜냐하면 깨달음은 이미 주어져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고 찾아 헤매는 동안은 깨달음은 없습니다. 진정한 휴식이 찾아올 때 깨달음의 꽃은 피어납니다.

● 깨어있는 찰나찰나가 축제

깨달음과 열반은 저 멀리 설정된 이상향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깨어있다면 찰나찰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되기 위해서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열반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생사를 넘어서 있습니다. 이 순간 이렇게 피어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한 생각이 없다면 삶의 애착과 고통, 중생이라는 생각, 열반의 세계가 모두 허구이자 꿈일 뿐입니다.

● 머물 곳을 찾지 말라

여러분은 한시도 멈추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몸의 세포와 맥박은 물론 생각도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러니 안주할 곳을 찾는 순간 무덤이 됩니다. 이거다 싶어 잡으려 할 때는 이미 어긋납니다. 머물지 않고 집착이 없을 때 늘 살아있게 됩니다.

● 마음은 조복할 대상이 아니다

마음을 항복시키려 하지 마세요. 몸을 항복받은 후 자기 마음과 싸움을 하지만, 이는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새로운 아집을 형성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마음과 왜 힘들여 싸워야 합니까. 어떤 방법론으로 공부해서 어떤 경계를 체험하더라도 이는 허망한 것입니다. 환한 빛이나 내면의 광명이 내 몸을 채우더라도 이는 마음이 빚어낸 상상일 뿐입니다. 한 순간의 기쁨이나 희열도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하늘 높이 날아 오를 기회의 시간은 어느 곳에도 머물지 않고 침묵 속에서 귀기울일 때 주어집니다.

● 자아의식 버릴 때 참된 보시 가능

'내가 있다'는 자아의식(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발동하면 자비심도 사라집니다. 이 자아라는 특성은 자기자신 보다 소중한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와 분리된 자아의식이 있는 한 외롭고 빈곤합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형색에 머물지 말고 보시하세요. 아무 조건없이, 타인의 삶을 그대로 인정한 채 나를 잊고 보시해야 합니다.

● 경전은 집착을 풀어주는 약

부처님은 제법의 무상함을 알고 집착에서 떠나도록 방편문을 열였습니다. 열반이니 해탈이니, 진리니 법(法)이니 하는 모든 가르침이 '중생의 집착을 끊어주는 약(應病與藥)'입니다. 그러나 중생들은 다시 이 '법'이란 약에 매달립니다. 손에 돌맹이를 쥐었든, 황금을 쥐었던 불구의(집착하는) 상태이긴 마찬가지입니다. 법과 자아에 대한 관념은 물론 불법과 비불법, 열반과 해탈, 깨달음과 같은 모든 개념을 내려놓고 텅비우세요. 과거의 모든 기억과 나라는 관념을 방하착(放下着)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집니다. 침묵과 휴식 속에서 '순결한 텅빔'을 체험하면 삶이 새롭게 만개될 것입니다.

글 · 사진=김재경 기자

위빠사나선원, 미얀마서 수행

한국위빠사나선원(지도법사 묘원)은 11월 28일부터 12월 27일(총 30일)까지 미얀마 집중수행 및 성지순례를 갖는다.

집중수행은 쉐우민선원에서 11월 29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다. 우 떼자니아 스님으로부터 '마음을 알아차리는 수행(心念處)'을 배우며 면담시간도 갖는다. 집중수행을 끝낸 뒤에는 1주 동안 양곤, 바간, 만달레이, 혜호 등 미얀마 전역에 있는 성지를 순례한다. 접수마감은 10월 28일, 동참금은 187만원. (02)512-5255

법왕정사, 3 천배 철야정진

양평 법왕정사(주지 청견)는 9월 25일(토) 오후 7시부터 26일 오전 7시까지 분당 태안사에서 3천배 철야정진을 실시한다. 이날 절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며 두껍고 큰 수건, 땀 닦을 수건, 갈아입을 옷 2벌, 두꺼운 면양말 등이 필요하다. (031)771-7745

국청회, 금강경 대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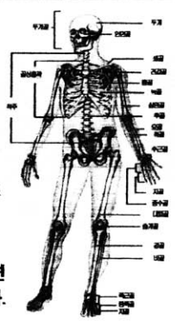
국청회 운파 상임법사는 10월 15일~12월 29일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서울 종로 법당에서 금강경 대강좌를 연다. (02)730-1249

「4박5일 기공 지도사반 강좌」
불가에서 비밀리에 전해져온 신비의 氣치료법 전수!
전신모세공 호흡법으로 사기, 병기를 배출하여 육체를 정화하는 비법!
天一氣功
www.chgg.co.kr
통증치료법의 전수를 밝힌다!
소주천속성법, 상기병을 치료하는 호흡법
※영가천도 많이 하셔서 몸이 탁해 지신 스님들 탁한 기운 스스로 정화하는 법 공개
천일기공연구회 소백산수련원
Tel. 054)638-2224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두리안(DURIAN)
부처님께서 즐겨 드셨던 과일 두리안!
이제 태국까지 직접 가시지 않아도 열대지방에서 '과일의 왕'이라는 두리안을 편하고 저렴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 두리안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비타민B,C 가 풍부하며, 강장효과도 탁월합니다.
- 무게 : 약 3Kg
- 지름 : 20~30Cm
- 원산지 : 태국
※ 태국에서 영하 40℃ 급냉 직송하여 냉장창고에 보관중
- 가격 : 1개 35,000원
2개 이상 구입시 개당 30,000원
※ 택배비 무료 (제주도, 도서지역 제외)
- 현재 백화점에서 상태에 따라 50,000원~120,000원에 판매중
■ 판매 및 문의 : 불자기업 향다원
Tel 031)797-1357 / 031)882-1357
H·P 011-474-1345 / 019-229-1345
입금계좌 : 농협 100023-56-156761 예금주 : 조명숙
전화주시면 두리안에 대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립니다.

- 매일경제신문 인체 경영학 연재 -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 해독다이어트 ☆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수십년간 몸안에 쌓인 온갖 노폐물이 빠지면서 체중감량이 된다는 이강옥 교수의 20여년 임상경험은 비만인들에게는 귀가 번쩍 뜨이는 희속식이다.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자가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 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답답해 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발효원액은 우리땅에서 자란 50여종의 야채, 과일, 해조류 등을 3~5년간 장기간 자연발효 숙성시킨 것으로 그 속에는 천연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이 살아 숨쉬고 있다. 이것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인체의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효소는 인체 곳곳에 마치 쓰레기처럼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과잉으로 축적 되어있는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 대수술을 일상 생활 중에 소리없이 진행한다.
02)523-0708 초 록 원 (팔보효소)

당 하(茶)당 뇨
당뇨 한방과 미네랄로 혈당 잡는다.
한방과 천연이온 알칼리 미네랄복합체로 제조된 "하당" 신제품의 자신만만한 행사 !!
"하당" 1개월분을 구입하신 고객님께
당뇨 혈당 측정기(1Set)를 무료로 드립니다.
"당뇨 아는만큼 치료할 수 있다"(책자)도 무료로 드립니다.
(선착순 전국 1,000명)
☞ 인슐린 분비촉진, 만성피로
☞ 복용 15~20일부터 혈당 떨어져 당뇨에 효과
※ 복용후 효과 없을시 100% 환불
"하당"을 드시면서 7일 단위로 당뇨혈당 체크기로 체크해보시면 1개월 안에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뇨혈당 체크기를 무료로 드리는 자신만만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계좌번호 : 국민은행 084-21-0800-172 예금주 : 안희숙
천연원료로 안전성을 입증한 한방 생인당 특판부
주문 및 상담전화 : 080-521-66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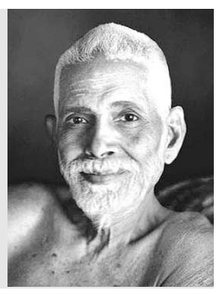
관 절 염
↓
자 생 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주의사항 -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응주전후에 복용금지
관절염은 참 견디기 힘든 병입니다.
빠마디의 통증은 통증대로, 약을 먹으면 위장장에 때문에 이중으로 고생을 합니다.
자생환으로 근본적인 치료를 해보세요
상태가 심한 분은 3개월 이상 복용해야 합니다.

1개월분 ₩180,000
2개월분 ₩320,000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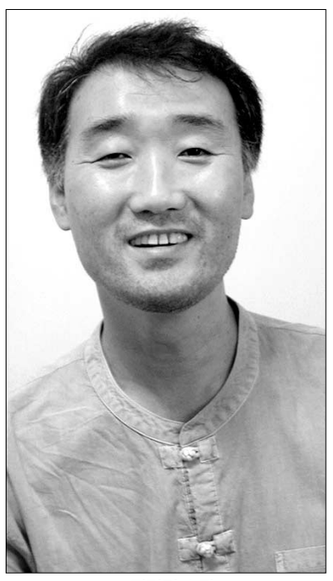
인/터/뷰 참나명상센터·대안학교 여는 동서심리상담硏 김경민 소장

참나명상, 지금 여기에 온전히 사는 것

라마나 마하르쉬 명상법 응용 프로그램 무료 운영

방이 어두워지면 방을 밝힐 램프가 필요하다.
그러나 태양이 떠오르면
램프가 없어도 보이기 때문에
램프가 필요 없어지게 된다.
태양을 보기 위해서는
태양 그 자체가 빛나고 있기에
어떠한 램프도 필요치 않다.
마음도 램프와 같다.
마음에 반사된 빛은
사물을 지각하는데 필요하다.
그러나 심장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심장을 향해
방향을 돌리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마음은 심장 속으로 사라지고
심장은 밝게 빛난다.
-라마나 마하르쉬-





김경민 소장

"우리의 참된 성품은 해탈입니다. '나는 깨닫지 못했다'는 생각도 하나의 장애물이죠. 깨달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깨달을 것이 없습니다. 깨닫기 위한 노력은 '자신이 참나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뿐, 수행으로 얻은 참나는 진정한 참나가 아닙니다. 참나는 항상 모든 곳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서심리상담연구소 김경민 소장에게 수행의 방법을 묻자, 그는 대뜸 수행의 불필요함부터 역설했다. 이어 '무지'라는 장애에 가려 있는 '빛나는 본성'을 있는 그대로 자각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에고의 두터운 장막에 가로막힌 참나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김 소장은 이를 위한 방편으로 라마나 마하르쉬 명상법을 응용한 '참나명상센터'를 개설하고 무료 명상프로그램의 보급(매주 월·수·금 오전 7시 30분~8시)에 나섰다.

"참나명상은 지금-여기에 온전히 사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과거의 경험에 매달려서 '현재의 나'로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본래 성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참나는 모든곳에 존재해 우리 참된 성품은 해탈"

김 소장의 참나명상에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 고요히 있을 것'을 권할 뿐이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이 생각이 누구에게서 일어나는지'를 묻는다. 그 답은 '나'가 된다. 다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해본다. 이 같은 질문으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집중해가면 "나는 나다"라는 단계에 이르게 되고,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조차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러나 고요히 좌선한 가운데 이 같은 깨달음을 얻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래서 김 소장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상담기법을 접목시켰다. 그는 '참나'를 가리고 있는 무의식적 생각의 덩이에 집중했고, 이를 제거하는 과정을 마련했다. '핵심감정'이라 표현되는 이 같은 무의식은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에 배어있어 사고와 행동을 제한한다. 김 소장은 자신의 핵심감정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바라보고 집단상담을 통해 타인들과 함께 나눈다. 상담자들은 '참나'의 발현을 얽어매는 타인의 무의식적인 집착을 마주하면서, 자신의 '애증지물(碍憎之物·마음에 끄달리는 것)'을 직시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부터 일순간에 놓여날 수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김 소장의 명상법은 관련 학자들과 상담가들에게 널리 알려져 400회 이상의 명상 워크숍 집단상담이 실시됐으며, 총 1만여 명의 참가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또한 30년 이상 수행해 온 수도회의 수녀·신부들에게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해, 구체적인 수행의 방향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각 시청, 사회복지관, 기업 등 명상 및 상담을 벌인 곳만 해도 수 십 여 곳에 이른다.

그런 그가 최근에는 참나대안학교 설립에 뛰어들었다. 올해 초 심리상담 전문가들과 관련 학자들 100여명이 뜻을 나누

> "무지에 가린 '빛나는 본성' 자각하면 그만일 뿐"

고 전북 진안 지역에 보금자리를 가꾸고 있는 중이다.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무르티에 버금가는 세계 영적 교사 양성을 꿈꾸는 그는 "'마인드 학습 클리닉'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는 이미 다 갖춰놓은 상태이며 하드웨어 구축이 마무리되는 대로 학생들을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2)564-3231 강신재 기자

▮라마나 마하르쉬 신간 2권 출간



라마나 마하르쉬의 책 두 권이 최근 국내 출간됐다.

<천상의 노래>(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는 라마나 마하르쉬가 힌두교 경전인 <바가바드 기타>의 지혜 42구를 선별해 엮은 책이다. 책 속에서 크리슈나 신은 "나는 모든 들판 속에 있으며 들판을 아는 자"라고 말한다. 이어 "나는 모든 존재의 가슴속에 살고 있는 참나"라고 선언한다. 들판으로 대표되는 존재의 모든 것을 비롯해 신 그 자신까지도 '참나'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라마나 마하르쉬는 이 같은 어구들을 통해 현재에 완전한 참나를 자각할 수 있는 방편을 제공한다.

<아루나찰라 쉬바>(슈리 크리슈나다스 아쉬람)는 라마나 마하르쉬가 '아루나찰라'라는 신성한 산에서 살면서 부른 찬가를 묶은 책이다. 여기서 아루나찰라는 참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으로 읽힌다. 라마나 마하르쉬는 "나는 아루나찰라"라고 얘기하며 "둘이 있는 곳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다"고 말한다. 강물이 바다로 들어가서 자기를 잃어버리듯, 자아는 스스로 죽고 아루나찰라인 참나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강신재 기자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Avatar. 밝은길 아바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경전의 이 말씀을, 당신께서 투자하는
단, 9일간의 내면 여행으로 터득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서울 종로구 평창동 110-4 101호
☎ 02)396-2736 · HP 010)6230-2113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heegyunwiz@hanmail.net

禪과 21세기

선의 세계 ⑥⓪

돈오(頓悟)-3

선종에서 말하는 돈오의 교의는 본각 사상을 바탕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모든 중생이 본래 이미 다 깨쳐 있다는 것이 본각 사상이다. 그러니 새삼 깨치고 말고 할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된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수행할 때에 깨달음을 기대하는 태도를 경계한다. 깨달음을 기대하는 것을 대오(待悟)라고 한다.

선사들의 어록이나 그 밖의 선 문헌에 보면 대오를 경계하는 말씀이 무수히 나온다.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지, 또는 깨달음에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겠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수행을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한다. 그것은 깨달음이라는 것을 잘못 알고 거는 기대이기 때문이다. 본각 사상에 입각해서 보면 깨달음은 이미 온 세상에 펼쳐져 있는 것이지,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저러하게 수행을 하면 깨달음을 얻겠거니 하는 것은 다 쓸데없이 헤아리고 분별하는 생각(思量分別)일 뿐이다. 본각으로서의 깨달음에는 인과율(因果律)도 적용이 되지 않고 시간의 틀도 적용되지 않는다. 세간의 그 어떤 틀도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돈오 즉 '단박에 깨친다'고 하는 말은, 깨달음이란 시간의 틀이 적용되지 않는 초시간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천천히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있어 점오(漸悟)라 하고 빨리 이루어지는 깨달음이 또 따로 있어서 돈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에 관한 한 세간의 어떤 조건을 적용해서 이러쿵저러쿵 할 길이 없다. 세간의 안목으로 보면 어떻게 하는 것이 수행을 열심히 잘 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 하는 것은 조작이요 억지이다. "깨달음이 내 손님으로 오실 때야 피해가지 못하지만 나가서 불러들일 일이야 아니지." 이철수씨가 <좌탈>이라는 제목의 판화에 쓴 이 글도 바로 그런 뜻이다.

아울러, 그 어떤 세간의 장치도 깨달음으로 가는 통로나 매개가 되지 못한다. 오히려 세간의 장치에 의지해서 깨달음에 접근하려는 태도 그 자체가 깨달음에 장애가 된다. 그래서 선사들이 대오(待悟)를 경계하는 만큼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소의(無所依)이다.

무소의라 하면 의지할 바가 없다는 뜻이다. 즉 세간의 그 어떤 것도, 다시 말해 어리석은 분별로 고안해 낸 그 어떤 방법이나 장치도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 의지할 것은 없다는 얘기이다. 오히려,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수행하면 되겠거니 하고 철썩같이 믿고 의지하는 것까지 남김없이 떨쳐 버려야 한다. 분별로 지어낸 그 무엇인가를 붙들고 있는 한

> 수행할때 깨달음 기대하는 태도는 잘못
> 인과율·시간 등 세간의 틀에서 벗어나야

깨달음이 원래부터 이미 세상에 가득 차 있음을 깨달을 수 없다.

선사들이 흔히 백척간두(百尺竿頭)에서 진일보(進一步)하라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런 취지로 이해할 수 있다. 아집(我執)을 비롯하여 집착을 끊고 버리는 수행을 하고 또 하여 이 세간에는 발 딛고 의지하는 자리를 없애가다 보니, 마침내 장대 끝만큼의 자리만 남는다. 그것을 놓치면 어딘지도 모를 까마득한 곳으로 떨어져버릴 것만 같다. 그만 떨어져 죽어버릴 것만 같다. 그래서 끝까지 차마 놓아버리지 못할 그 장대 끝은 '이렇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얻겠거니' 하는 기대요 믿음이다. 달리 말하자면, 그 동안 수행의 삶을 지탱해준 수행자의 존재의 이유, 바로 불교에 대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것까지 포기하고 한 걸음 더 내딛으라고 한다. 선불교는 본각으로서의 깨달음에 관한 한 그렇게 철저한 무소의를 말한다.

■윤원철(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2005 원일 불교카렌다 출시!!

- 불기 2549년을 맞이하여 원일카렌다에서는 참신한 기획과 디자인으로 2005년 카렌다를 불자님께 널리 보급하고자 제작 하였습니다.

카 렌 다

· 1.000부이상 주문시 표지그림으로 귀 사찰을 넣어서 인쇄를 원하시면, 무료로 해드립니다. (사진 또는 필름사용 가능)
· 각 사찰카렌다 독판을 저렴하게 제작하여 드립니다.
· 문의사항 전화주시면 카다록을 보내드립니다.

후회없는 선택!
원일카렌다!

15년 전통
최고의시설
최상의제품

원일문화사
서울시 중구 인현동 1가 38-8
TEL:02)2277-0304
FAX:02)2268-6732
www.wonil-c.co.kr

법요집·기초교리 集 괘도 재발간

공부하기 좋은 결실의 계절입니다.
本, 괘도집은 법당에 걸어 비치만 해두셔도 신도님들의 불교 기초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법보시를 하고자 원하는 불자님들께서 전화 주시면 원찰 주소지로 택배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정근
• 찬양합니다 • 발원 및 축원
• 반야심경 • 사홍서원
• 입정 • 산회가
• 청법가 • 기타찬불가
• 법문

■ 기초교리
1. 불교란?
2. 부처란?
3. 대승과 소승의 차이
4. 사찰에서 쓰는 도구
5. 사찰경내 예법
6. 합장과 반배
7. 고두례
8. 예불문
9. 삼보 15. 사성제
10. 삼귀의 16. 사섭법
11. 삼법인 17. 십이인연
12. 삼업 18. 육바라밀
13. 삼학 19. 팔정도
14. 신도오계 20. 보왕삼매론

■ 기획 : 예맥불교문화원 ■ 제작 : 불교포교자료원
■ 전화 : 02-772-9052

중국 청도 장안사 공양주 모십니다

장안사는 중국에 사찰을 세워 한국 불교의 전통과 큰스님들께서 이룩하신 위업을 지켜 가겠다는 뜻을 세우고 사부대중이 합심해 불기 2548년 9월 2일 재불님의 가피로 중국 최초 한국의 절 장안사 청도 분원이 원만히 개원하게 됐습니다.
장안사 청도 분원에서는 사찰음식을 통해 해외 포교에 진력하실 공양주를 다음과 같이 모시고저 하오니 관심 있는 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다 음

1. 자 격
1) 해외여행과 중국 장기 체류에 지장이 없으신 분
2) 한국 음식 조리사 자격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분이나 사찰 음식에 조예가 깊으신 분
3) 신심을 가지고 해외 포교활동에 진력하실 분
4) 남.녀 구분, 연령제한 없으나 신체 건강하신 분
2. 급 여 : 상담 후 결정
3. 제출서류 : 1) 이력서
2) 주민등록 등본
3) 자격증 사본
4. 서류제출 : 장안사(경기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접수마감 : 2004년 9월 30일 까지
6. 연 락 처 : 019-9232-4788
031)901-1954

장 안 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풍동 138-1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강의(13) 소유냐 존재냐

'위대한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다

삶의 목표는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마음 속 깊이 이상주의자들입니다. 로맨티스트들이지요. 그렇기 않다면 왜 보살님네들이, 남편이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아이들도 다 컸으며, 아파트 평수도 남부럽지 않은데, 왜 절을 찾아,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대웅전에 참배하고, 참선에 열중하십니까. 또 한편, 옛적의 사랑을 떠올리며, 마음을 나눌 사람을 은밀하게 꿈꾸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외면적 성공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은 여전히 가난하고, 불만족스럽기 때문이 아닐까요.

성공한 분들이 이럴진대, 그렇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가치'는 우리가 익히 아는 것과는 다른 곳에 있고, 우리는 지금 길을 잘못 들어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진 붓다는 왜 성을 넘어 출가하셨을까

우리는 그동안 '위대한 약속(Great Promise)'을 믿었습니다. 산업과 기술의 발달이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실현시켜 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말입니다. 무제한의 생산이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 자유를 주고, 그리하여 인류에게 무한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에 오랫동안 취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심리학자인 에리히 프롬은 이 약속이 결코 지켜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의 설명을 제 식으로 부연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위에서 적었듯이, 욕망의 무제한한 충족이 인간에게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욕망의 무제한한 충족이 행복과 안녕을 주는 것이라면, 고타마 붓다께서는 모든 것이 넘치게 갖추어져 있는 그 삶을 버리고 유성출가(踰城出家), '말을 타고 성벽을 넘어 출가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앙굿타라 니카야>에는 샤카 족의 고타마께서 누리던 유족함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하인과 종들에게 쌀겨에 소금죽을 섞어 주었으나, 내 아버지의 집에서는 하인과 종들에게 쌀밥과 고기로 된 음식을 주었다." (폴커 초츠 · <붓다>)

"비구들아, 나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다. 나를 위해 각색의 연꽃이 핀 연못들을 만들어주었고, 몸에는 베나레스산 향유를 뿌렸으며, 거기서 생산된 옷감으로 옷을 지어 입었다. 내 머리 위에는 늘 하얀 양산이 받쳐져 있었다. 추위도 더위도 몰랐고, 먼지도 이슬도 맞지 않았다. 계절마다 다른 궁전에서 살았다. 우기 넉 달을 지낼 동안, 시녀들이 나를 둘러싸고 음악을 연주해 주었고, 나는 궁전에서 나올 일이 없었다." (브루스터 · <고타마 붓다의 생애>)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삶도 붓다의 근본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 속에는 먹고 입는 '동물적 욕구' 뿐만 아니라, 의미와 유대의 '인간적 욕구'가 있습니다. 그 지점은 얼른 눈에 뜨이지 않고, 은밀하여, 그리고 순위에 있어 늘 뒷전이기 때문에 자각하기 어렵고, 또 그 욕구에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너에게도 님이 있느냐, 있다면 님이 아니라 너의 그림자니라

두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가 얻은 자유가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세탁기와 냉장고가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고 손발을 더 자유롭게 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예속적 상황을 살고 있습니다. 보이는 억압은 줄어들었으되, 미셸 푸코의 팬옵티콘(Panopticon · '모든 것을 본다'는 뜻)이 예시하고 있듯이, 보이지 않는 감시가 삶의 전 영역에 침투해 있고, 더구나 인간은 자신의 욕망마저 자신이 선택하지 못하는 예속적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개인의 의지와 행동이 권력과 산업, 매스컴에 의해 조장되고 조정되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곳곳에 감시카메라와 곳곳에 광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환상의 비현실 속에서 추상적으로 타율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자유롭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17세기 서양 철학자 스피노자가 비유한 대로, 돌멩이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늘을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늘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외적 강제와 억압이 줄어들고, 개성을 존중한다는데도, 우리는 왜 이렇게 획일적 가치와 판에 박은 삶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지 말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간 국가간 빈부의 격차가 커진다는 점이고, 네 번째는 생태의 위기와 핵전쟁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프롬은 이 모든 요소들이 '지구적 종말'을 예비하고 있다는 음울한 경고를 발하고 있습니다. 프롬은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삶의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인류의 생존 자체가 정신의 근본적인 변화에 의존하고 있다!" 이 진단에 따르면, 우리는 개개인의 내적 행복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구라는 푸른 대리석 구슬을 깨먹지 않기 위해서도 삶의 태도를 혁명적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그것을 프롬은 '소유'에서 '존재'에로라는 말로 정식화시켰습니다. 그가 제시하는 대안은 가히 불교적 삶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지구적 실패는 인간의 삶의 목적이 쾌락이라는 잘못된 심리적 전제로부터 야기된 것입니다.

삶의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행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 혹은 '불성(佛性)'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주관적으로 갈망하는 욕구'와 '객관적으로 타당한 욕구' 사이에 있는 근본적 차이를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구분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구분은 동서양의 지혜의 전통을 읽는 키워드입니다. 불교 또한 그 전통을 따라 우리의 일상적 욕구가 인간의 객관적 본성과 일치하지 않으며, 나아가 그것을 '소외'시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발상이 불교를 도저한 이원론 위에 세우게 했습니다. 상식은 이 점을 잘 납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어렵게 느낍니다. 심하면,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 혹은 말씀은 좋으나 물정 모르는 소리로 웃고 맙니다. 그러나 불교는 세상에서 가장 진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노자가 그랬지요, "듣고서 낄낄대지 않으면 진리가 되기에 부족하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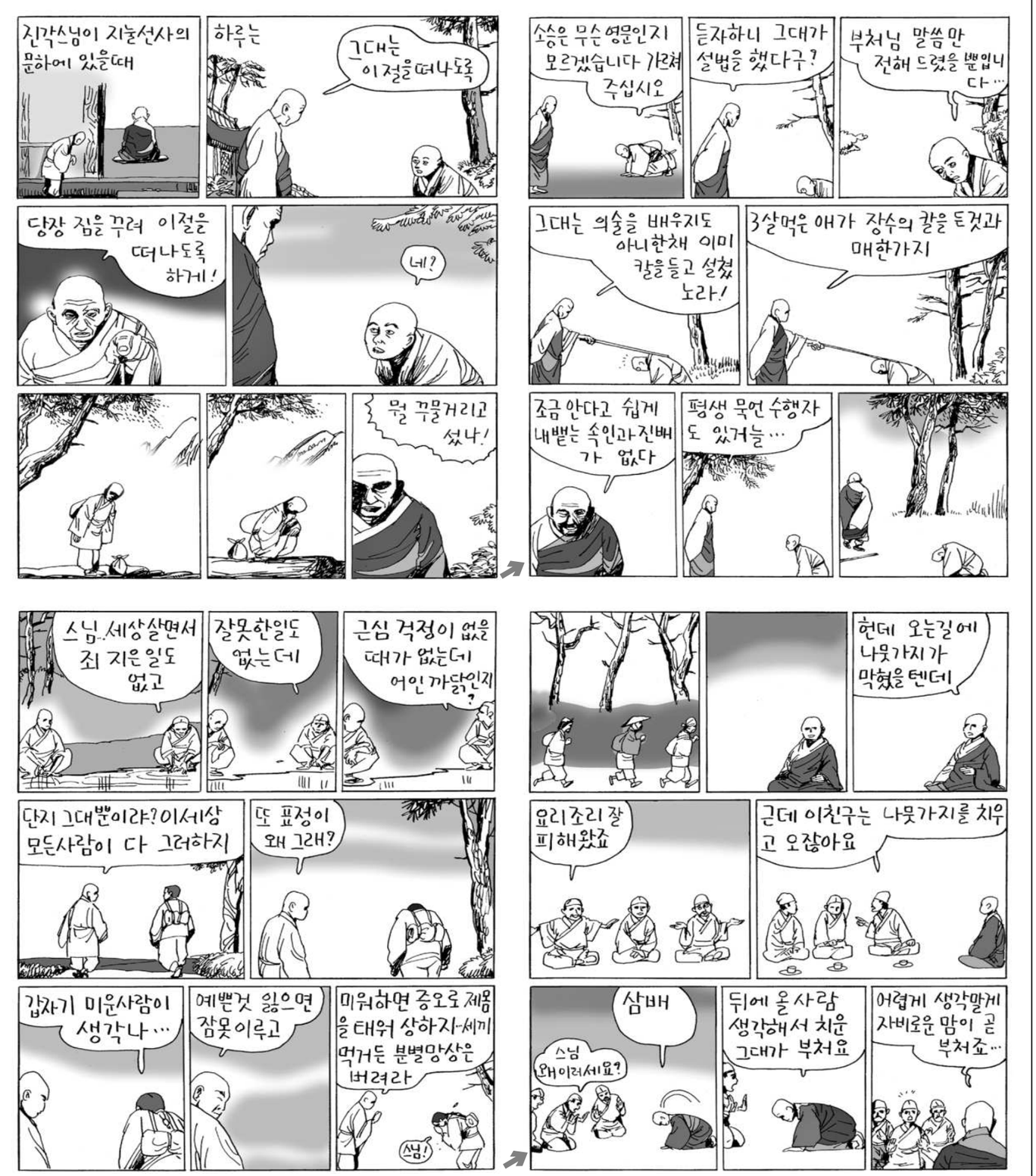
불교는 '주관적으로 갈망하는 욕구'의 소외된 메커니즘을 밝히고, 그것을 회향하여 '객관적으로 타당한 욕구'에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을 밝히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붓다는 보리수 아래의 깨달음을 얻고도 그 진실을 쉽게 설파하지 않으시려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상식이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 오직 오랜 선정과 지혜의 계발로서만 보이는 이 '자리'를 대중들에게 말해 보아야 씨가 먹히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관적 갈망과 그 환상에 빠져 있는 중생들을 위해 의구심을 접고 대 자비를 베풂으로써, 불교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결단에 깊이 합장 올립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주장자따라…

㊱ 진각 국사의 '자비'

조태호



진각혜심(1178~1234): 고려 중기의 스님. 조계산 수선사(송광사)의 제2세 법주. 전남 화순 生. 보조 지눌 스님에게 출가. 지리산에서 수행. 주로 수산사에 머물며 간화선법 진작.

네티즌 교리문답

'일없는 사람(無事人)'이란

문 '일없는 사람(無事人)'이란 어떤 자인가요? 놀고 먹는 이는 아닐 것이고, 유유자적하는 도인일 텐데요. 어떤 경지의 수행인을 무사인이라 하는지요? ('무사태평')

답: '일없는 사람'이란 주어진 생업이나 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열중하면서 그 과정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 즉, 반연되어 주어진 일에 앞뒤를 재지 않고 열중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남들이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깊이 사색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본인은 일한다는 생각도 없고 사색한다는 생각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무사인으로 보이는 이가 꼭 진실한 무사인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눈밝은 이가 무사인인 줄 알지만) 정작 본인은 스스로가 무사인이라는 생각이 없을 뿐입니다. ('도덕산')

답: 무사인이란 '할 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할 일을 마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할 일이 없는 사람은 할 일이 또 생기지만, 할 일을 마친 사람은 생사를 초월하며, 매사가 도리에 합당합니다. 사물이 생겨날 때(作用)는 형상(相)으로써 자기를 나게(生)한 근본인 본체가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생긴 모습만 보고 근본인 본체를 알지 못합니다. 형상에 감춰진 근본을 요달하여 계합한 사람은 자기를 있게 한 근본과 스스로 하나 되었으므로 이 사람을 일러 일마친 '한가한 도인(閒道人)' 혹은 자기의 본분을 다한 무사인이라 합니다. ('들사자')

답: 무사인이란 생사(生死)라는 근본 문제를 해결해 더 이상 억지로 할 일이 사라져 대자유를 얻은 사람을 말합니다. <전심법요>에서 황벽 선사는 무사인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온갖 종류의 다양한 지식일지라도 구하지 않는 것만 못하니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다. 도인이란 억지로 꾸미는 일이 없는 사람이다. 진실로 허다한 종류의 마음은 없는 것이며, 또한 말할 수 있는 도리도 없다. 아무런 할 일도 없으니 해산하라."

진각 선사는 <진각국사어록>에서 이렇게 무사인을 풀이합니다. "당장에 망상을 쉬고 그치면 바로 존재 하나하나에서 밝혀지고 사물 하나하나에서 지혜가 나타날 것이니, 이는 결코 별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인 것이다. 이 경지에 이르면 벗어날 생사도 없고 추구할 열반도 없으며 단지 하나의 할 일이 없는 사람만 있을 뿐이다." ('푸른바다')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네티즌 교리 문답' 코너가 있습니다.

상식퍼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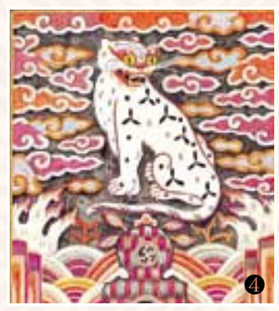
정답은 26면에

가로 1. 십계 가운데 불계를 제외한 나머지 구계의 총칭, 중생이 사는 세계 2. 학의 목처럼 길게 빼고 간절히 기다림 3. 물을 아낌 4. 종잇조각에 지방문을 써서 만든 신주(神主) 5. 비바시불, 시기,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함모니불, 카시아파, 석가모니 등 지난 세상에 나타난 일곱 부처님을 일컫는 말 6. 출판물을 발행하는 사람.

세로 1. 음력 팔월 보름의 좋은 날이라는 뜻으로, 추석을 달리 이르는 말 7. 삼학(三學)의 하나. 부처님이 정한 계율을 배우는 것 8. 원고 쓰기를 마침 9. 사람을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어 넣음 10. 아미타 삼존불에서 아미타불 우측에 있는 협시보살로 지혜를 상징, ○○○보살 11. 우리 전통 음료의 하나로, 생강과 계핏가루를 넣어 만드는 것 12. 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태도 13. 옻나무 진으로 만든 안료 14. 몸이 아주 큰 사람 15. 발사된 폭발물이 터지지 않음.

문양을 읽으면 전통문화 보인다




①대군의 기린 흉배 ②문관의 단학 흉배 ③문관의 쌍학 흉배 ④무관의 단호 흉배 ⑤무관의 쌍호 흉배. 흉배는 옷감과 같은 비단에 품계에 따른 문양을 수놓아 관복을 화려하게 하고 상하의 신분을 표시하게 한 것.



한국의 전통문양
임영주 지음
대원사 | 1만8천원

선사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베갯모까지
우리나라 생활용품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 무늬의 의미
6백여컷 사진과 함께 설명

'그 나라의 전통 양식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문양을 알아야 한다.'

문양에는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한 민족의 정신과 생활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문양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 이전에 담겨진 상징적 의미에 주목해야 한다. 문양전문가인 임영주(문화재전문위원) 씨가 최근 펴낸 <한국의 전통문양>을 보면 우리나라 전통문양의 상징성에 대한 해답이 상세히 들어 있다. 이 책은 선사시대 빗살무늬토기부터 조선시대 베갯모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생활용품에 나타난 다양한 전통 무늬의 의미를 6백여컷의 사진과 함께 쉽게 설명해 놓았다.

일반적으로 '무늬'라 하면 물건의 표면에 얼룩진 형상이 나타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이 하찮은(?) 무늬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직·간접으로 공헌해 온 것도 드물다. 또한 예술사(藝術史)에서 무늬가 조형미술 전반에 미친 영향을 생각할 때, 물질적 공헌을 넘어서 정신사적 공로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크다.

무늬는 또한 언어나 문자와 마찬가지로 그 민족이 살아온 환경에 따라 고유한 형태를 지니게 마련이며 나름대로의 독특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기에, 이를 전통문양이라 말한다. 그래서 크고 작은 것, 단순하고 복잡한 것에 상관없이 각기 독창적인 뜻을 지니고 있으므로, 무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늬가 사용된 물건이나 장소까지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문양의 뜻과 생성 배경, 변천사에 대해 설명을 예로 들며 자연스럽게 풀어 나가 자칫 딱딱하거나 원론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는 단점을 보완해 준다.

가령 경주 황룡사지에서 출토된 와당(瓦當)은 일월상무늬(日月象文)가 불교미술에 등장하는 시기를 가늠케 해준다는 것이다. 이런 설명을 통해 신라 이후 불화에서도 일월 신화를 받아들여 탱화와 부도의 기단석, 수가사 등에도 일월상 무늬가 등장하게 된다는 역사적인 정보까지도 곁들여 준다. 하나더 소개한다. 흔히 박쥐는 기회주의적 동물로 여겨지지만 조선시대에는 '청화백자 편복무늬똬리연적' '박쥐수노리개' '백자 박쥐무늬떡살' 등 박쥐 문양이 생활 속에서 널리 쓰였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박쥐의 한자 표기인 '편복'의 '복' 발음이 '복(福)'과 같아 행복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박쥐 두 마리는 '쌍복(雙福)', 다섯 마리는 '오복(五福)'을 뜻한다는 것이다. 어두운 동굴안에서 사는 박쥐가 복을 주는 동물임을 새삼 알게되는 재미가 솔솔하게 느껴진다.

이 책은 또 새와 동물, 꽃과 곤충, 십장생, 길상문자로 크게 구분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문양의 종류를 세분해 자세하게 설명했다. 특히 '상서로운 새와 짐승'편에서는 상서로운 새로 학, 앵무, 닭, 공작, 백로, 원앙, 기러기, 오리, 까치, 꿩, 팔가조, 가릉빈가 등을 들었다. 또한 농경생활과 각종 금기에서 비롯된 동물들로는 해태, 호랑이, 불가사리, 박쥐, 뱀, 물고기 등이 있다고 저자는 설명한다.

전반부가 문양의 소재를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라면 후반부에 있는 '감상편'은 복식, 비단, 베갯모, 직물, 꽃담, 문과 창호, 무늬전돌 등에 사용된 무늬들의 연관성에 대한 이야기다.

특히 문양도 분명 종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저자는 그 예로 불교가 융성했던 통일신라시대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화(蓮花) 무늬가 토기, 도자기, 칠기를 비롯해 단청과 건축의장에 많이 나타나는 것을 꼽았다.

그렇다면 고미술에 나타난 문양을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한 지름길은 무엇일까. 저자는 무엇보다 옛 미술품 앞에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옛 미술품을 대하면서 눈과 마음, 생각 모두를 통해 오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꼭 고미술의 감상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미술품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질수록 문양에 대한 이해도 깊어진다는 설명이다. 저자는 책의 말미에서 "그 작품이 탄생된 시대적·사회적 배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작품이 지닌 미의 본질까지도 추구해 보는 것이 당 시대의 전통을 올바로 이해하는 지름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전문가 서평



절망이 아닌 선택
디오도어 루빈 지음 · 안정효 옮김 | 나무생각 | 1만9천8백원

<절망이 아닌 선택>은 전세계적으로 번역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 출간돼 20여만 부 이상이 팔리며 베스트셀러가 됐던 책이다. 이번에 4부 '기쁨' 장이 증보된 이 책을 안정효 씨가 재번역해 다시 만날 수 있었다.

이 책은 상대방은 용서하면서도 자신이 저지른 작은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는 잊지 못하고 두고두고 자신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일상의 자기 증오가 우리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어 불행의 길로 들어서게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신분석가인 저자는 그 동안 자신이 상담하고 치료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다양하게 인용해 이해를 돕고 있으며, 그 하나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해준다.

저자는 이 책에서 "당신은 지금 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많은 연민을 가지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지는 않는가? 지금 당장 자기 자신에게 채운 족쇄를 풀어라. 그리고 깊이 생각해 보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증오하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고 충고한다.

'환희와 절망'은 한 생각 차이

정신분석학자의 자기 증오 극복하는 철학

절망에 빠진 사람 대부분은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를 가지고 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완벽주의, 자기비하, 환상 등. 하지만 그것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결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없다.

저자는 자신의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료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의 환자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자기증오에 빠지게 되고 결국 그것이 원인이 되어 불행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한다는 걸 밝혀내고 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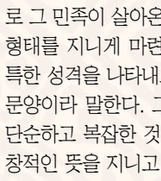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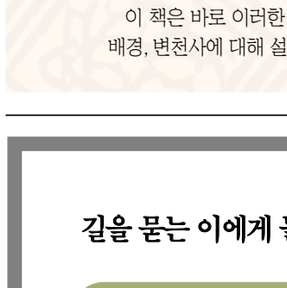
그 결과 △사람이란 완전할 필요가 없다. 오늘부터 당장 그대 자신을 좋아하기 시작해라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보다 더 훌륭해지려는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말라 △모든 상황에서 뛰어난 인간이 될 수는 없다. △실패와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등의 충고를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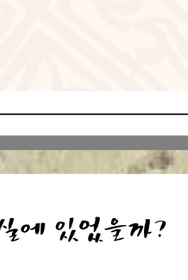
특히 저자는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내부에 잠재한 부정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 효과를 저해하는 가장 강력한 요소인 자기증오를 극복해야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치료 효과를 내는 요소인 관용을 이용하는 것이라고 소개한다. 건설적인 성장과 인간의 창조적인 가능성으로서 관용이 지닌 잠재력은 거의 무한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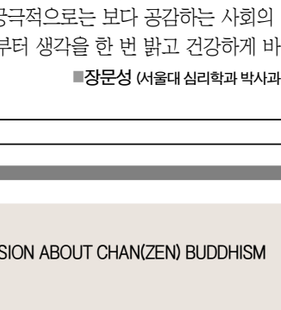
극락과 지옥은 한 생각 차이라는 말이 있다.

부정적인 가치관을 긍정적으로 바꾸면, 자기증오와 상호간의 증오를 감소시키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보다 공감하는 사회의 건설에 기여할 것이다. 오늘부터 생각을 한 번 밝고 건강하게 바꾸어 보자.

■장문성 (서울대 심리학과 박사과정)

길을 묻는 이에게 들려주는 대행 스님의 지혜의 말씀
삶은 苦가 아니다

쉽고 명쾌한 대행 스님의
'참' 인생 이야기
때로는 야트막한 산허리를 돌아 흐르는 시냇물처럼, 나지막한 목소리였다가 한순간에 폭포수 같은 사자후를 토해 내기도 한다. 대행스님은 안양의 한마음선원에 계신다. 그러나 어디고 계신다. 오로지 만 생명이 자성을 밝혀 대자유의 세계로 들게 하기 위해 포교와 수행으로 정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쇄
■대행 스님 법어 | 혜원 스님 엮음 | 254쪽 | 9,000원

왜 스님은 팬티만 입고 공중화장실에 있었을까?
스님이야기
법정·서암·명성·대오 스님 등
85명 수행자들의 일화를 모은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
최근 발간된 '스님이야기'는 지묵·효림 ·현진 스님 등이 수행길에서 만난 스님 85명의 일화를 소개했다. 엄숙함의 베일을 걷고 보아도 수행자로서 고결한 자세와 인간미가 도드라진다.
- 조선일보
합천 해인사 주지이면서도 절 주변을 돌며 관광객이 버린 담배꽁초와 휴지를 주웠던 지월 스님, 코피 나도록 얻어맞아도 상대방에게 주먹질을 하지 않았던 무술 고수 대오 스님 등 다양한 수행승 이야기가 진솔하게 펼쳐진다.
- 동아일보
지묵·허주·수완·정운·원옥 스님 등 15명의 스님이 필자로 나서 『무소유』의 저자 법정 스님, 전형적인 학자풍의 중앙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 20여 년 가까이 장좌불와, 오후불식을 해오고 있는 지유 스님 등 곁에서 지켜본 스님들의 수행 모습을 솔직담백하게 독자들에게 전하고 있다.
- 연합뉴스

■지묵 스님 외 지음 | 448 쪽 | 12,000원

DISCUSSION ABOUT CHAN(ZEN) BUDDHISM
禪 문밖에 나서다
중국 선불교 다시 읽기!
그리고 되받아 쓰기!
중국 선사들의 선문(禪文)을
패치워크방식으로 새롭게 해석!
「禪, 문밖에 나서다」는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한 군데에 모아 놓고, 내가 그 동안 읽었던 책들, 또는 나의 짧은 생각들과 연계시켜 본 작품이다. 마치 고급 실로 짠 천 조각을 붙여 만든 조각보처럼…….
- 본문 중에서

■석해탈 저 | 456쪽 | 14,000원

부처님 말씀의 길잡이 여시아문 www.yosiamun.com 종로구 견지동 110-33 Tel : 02)737-0695 Fax : 02)737-0696

세상살이 고달픔 산사에 놓고 가시게



걸망에 담아온 산사이야기
임윤수 지음 | 가야넷 | 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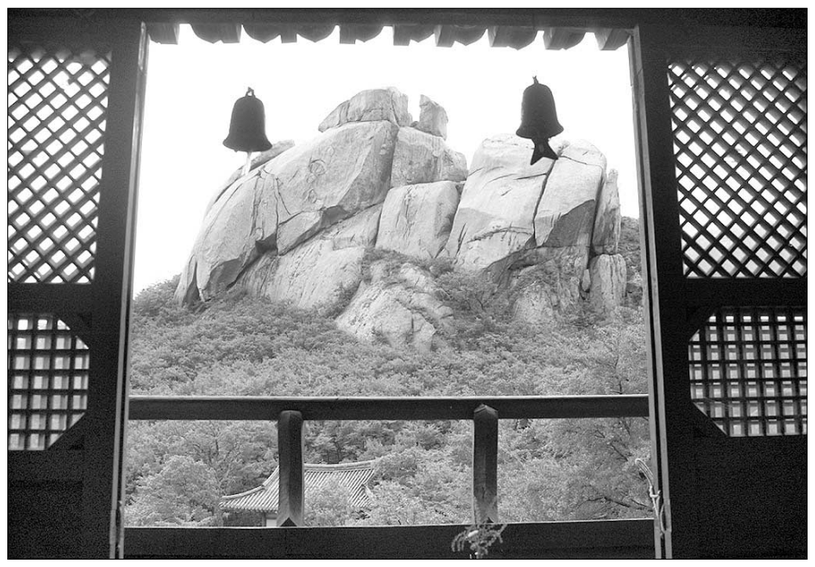
오마이뉴스서 폭발적 인기 끌며 1년간 연재

지난해 6월부터, 인터넷 언론 '오마이뉴스'에서는 '걸망에 담아 온 산사 이야기'라는 제목의 연재가 시작됐다. 대학에서 재료공학을 전공한 공학박사라는 지은이의 이력도 색달랐지만, 서암 청화 정대 월하 서옹 스님 등 원로 스님들의 다비식을 빠지지 않고 '인터넷 중계' 하던 그의 부지런함이 더욱 눈에 띄었다.

지난 1년간 매번 1만여 명의 독자를 불러 모으며 큰 호응을 불러일으킨 '걸망에 담아 온 산사 이야기'가 같은 제목의 책으로 묶여 나왔다.

지은이 임윤수(45) 씨는 조용한 산사를 혼자 걸으며 '망각 속에 묻힌 추억'을 줍기 위해 '카메라와 기억력'을 걸망에 담아 넣고 4년 동안 산사를 찾아다니게 됐다고 말한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 칠보사 조실 석주 스님을 찾아뵙고 받은 '방하착(放下着)'이라는 화두도 여행 내내 그를 뒤따랐다.

그의 여행은 삼보(三寶) 사찰인 통도사, 해인사, 송광사에서부터 4대 관음 도량, 5대 적멸보궁을 거쳐 각 지역의 대표적인 산사에 이르기까지 30여곳의 사찰을 아우르고 있다.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등 지역별 대표 사찰도 소개해 주말여행을 할때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다. 스님들의 다비식에서 스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담담한 모습으로 담은 사진들도 그의 책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인터넷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사진과 미처 소개하지 못한 사찰의 소개도 덧붙였다.



금강산 화암사 란야원에서 내다 본 모습. 창틀에 걸쳐진 수바위의 모습이 한폭의 수채화 같다. (사진제공=가야넷)

책에 담긴 그의 사진은 비록 전문 사진가의 그것처럼 세련되거나 멋지진 않지만, 평범한 여행객의 시선으로 담아낸 풍경들이 고스란히 들어있다. 상원사 적멸보궁 인근 마애불탑 앞에서는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 놓아 둔 신도들의 물병이 먼저 눈에 띄고, 돌다리 밑에서 부서지는 계곡물이나 단청을 하지 않은 실상사 전각의 처마 끝, 내소사 대웅전의 꽃살문 나뭇결 등도 모두 소중하게 다가온다.

"산사에서 느꼈던 마음의 평온함을 나누어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이 울적할 때에도, 주체할 수 없이 기쁠 때에도 산사를 찾아보십시오. 가장 듣고 싶은 위로와 칭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사입니다. 그 위로와 칭찬을 받아들일 만큼 아주 조금만 마음을 열어준다면 말입니다."

"여행을 통해 마음을 비우진 못했어도 과체중이던 육신의 무게는 14㎏이나 줄일 수 있었다"며 활짝 웃는 그의 걸망에는 이제 '놓음'으로써 행복을 얻을 수 있다는 깨달음과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할 것이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새로나온 책



■ **<석가모니 부처님>**(곽영석 지음, 미리내, 9천원)=불교청소년문학진흥회 곽영석 사무총장이 펴낸 청소년 포교 교재. 청소년들에게 부처님의 일대기를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부처님의 전생이야기부터 출생과 출가, 구도의 과정과 열반을 이야기 형식으로 꾸몄다. 지은이는 "이 책을 통해 많은 청소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과 믿음으로 더욱 윤택한 삶을 가꾸어 나가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 **<순간 속에 영원을 담는다>**(전이정 지음, 창비, 9천원)='세계에서 가장 짧은 시'로 불리는 하이쿠(俳句)의 세계와 유명 작품을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하이쿠는 서정과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이 잘 버무려진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 불과 17자로 마무리된다. 지은이는 "하이쿠의 시어는 가슴에 쌓이고 쌓여 가득 채워진 후 새어나온 침묵을 담아내기 때문에 표현된 말의 주변에 표현되지 않는 무수한 말을 전한다"고 말한다.



■ **<솟대문학 2004 가을호>**(솟대문학 편집부 엮음, 9천원)='2004 가을호'에서는 새싹회 신현득 초대 이사장과의 대담과 가을특집 '역사 속의 장애인' 두 번째 편이 담겨 있다. 또한 <솟대문학> 창립 멤버인 이숙경 선생의 추모특집과 김영수 화백의 작품과 그의 작품을 모티브로 쓴 김영수 씨의 글을 볼 수 있는 '김영수의 캔버스 세상'도 마련되어 있다.

용서, 나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



용서 달라이 라마 · 빅터 챈 엮음 | 류시화 옮김 | 오래된미래 | 9천5백원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우리는 살면서 부당함이나 억울함을 당할 때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노라고, 반드시 복수를 하겠다고 다짐하게 된다.

홍콩 출신 물리학자 빅터 챈 역시 1950년 티베트를 강제점령하면서 수많은 티베트인들을 학살한 중국인에 대한 티베트인의 감정이 이와 같을 것이리라 믿었다. 하지만 챈은 중국인들의 이러한 만행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유머와 명랑함이 넘치는 티베트인들의 모습에서 의구심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문에 달라이 라마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당신은 중국인을 미워합니까?"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다. 이 질문에 대해 달라이 라마는 "나는 중국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용서한다"고 대답했다.

지난 30여년 간 달라이 라마의 곁에서 절친한 친구로 지내온 빅터 챈은 달라이 라마와 대화한 내용을 묶은 <용서>(원제 The Wisdom of forgiveness)에서 "용서하라, 그래야만 행복해진다"라는 '용서의 철학'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달라이 라마가 말하는 '용서'는 단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의 마음에서 스스로를 놓아 주는 일이다. 그러므로 달라이 라마는 "용서는 자기 자신에게 베푸는 가장 큰 자비이자 사랑"이라고 말한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미움이나 나쁜 감정을 키워 간다면, 내 자신의 마음의 평화만 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그를 용서한다면, 내 마음은 그 즉시 평화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궁극의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질투와 원한의 감정을 뛰어넘어야 하는데,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용서라는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용서하는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생각해보라고 권한다. 그들 역시 똑같은 인간이고, 그들 또한 행복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라는 것이다.

"가장 두려운 것은 혹시 제가 중국인들을 미워하게 되지 않을까, 그들에게 자비심을 잃지나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용서'에 대한 가르침뿐만 아니라 자신의 경호원에게 장난을 치거나 질문자의 대답에 재치 있게 답하는 달라이 라마의 인간적인 모습도 함께 소개된다. 지은이는 이러한 달라이 라마의 유머가 "용서에서 나오는 당당한 힘"이라고 말한다.

여수령 기자

지구촌 명사들의 행복법



행복을 여는 지혜
담마난다 엮음 | 홍종욱 옮김 | 지혜의나무 | 1만1천원

"행복의 비결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있는 일을 좋아하는 것이다."(J. M. 베리)

스리랑카 출신으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에서 포교활동을 펼쳐온 담마난다 스님이 엮은 명언모음집 <행복을 여는 지혜>가 번역되어 나왔다.

이 책에는 불교에 관한 현학적인 토론이나 골치 아픈 해석이 아닌, 71년간 수행해온 담마난다 스님이 직접 가려 뽑은 '세계 명사들이 말하는 행복해지는 방법'이 실려 있다. 행복해지는 방법이란 곧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의미한다.

각 명언들은 하나하나가 짧고 명쾌해 출근시간이나 잠자기 전과 같이 틈날 때마다 읽어보면 마음수행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불교 경전뿐만 아니라 성서의 구절과 철학, 과학, 역사, 심리학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명언이 폭넓게 실려 있어 일반인들도 거부감 없이 읽을 수 있다. 평생을 포교에 힘써 온 스님의 '노하우'가 엿보이는 듯하다.

열두 살 때 출가한 스님은 이후 인도에서 철학을 연구하며 포교에 전념하다 1952년부터 회교국가인 말레이시아에 정착해 50년 넘는 기간 동안 포교활동을 펼쳐왔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얀마 정부로부터 불교계 최고의 명예인 '악기마하 판디타'라는 칭호를 부여받기도 했다.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법구경>등 60여권에 달하는 스님의 저술은 세계 20여 개의 언어로 번역, 출간된 바 있다.

이은비 기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오체투지	한경혜	반디미디어
2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스님	효림
3	홀로 사는 즐거움	법장 스님	샘터
4	마음 부처가 사는 나라	청화 스님	이른아침
5	선방가는 길	정찬주	열림원
6	중론 논리로부터의 해탈…	김성철	불교시대사
7	텐진빠모의 마음공부	텐진 빠모	열림원
8	불교란 무엇인가	고영섭	정우서적
9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10	스님이야기	지묵 스님 외	여시아문

도서 안내 : (02)737-06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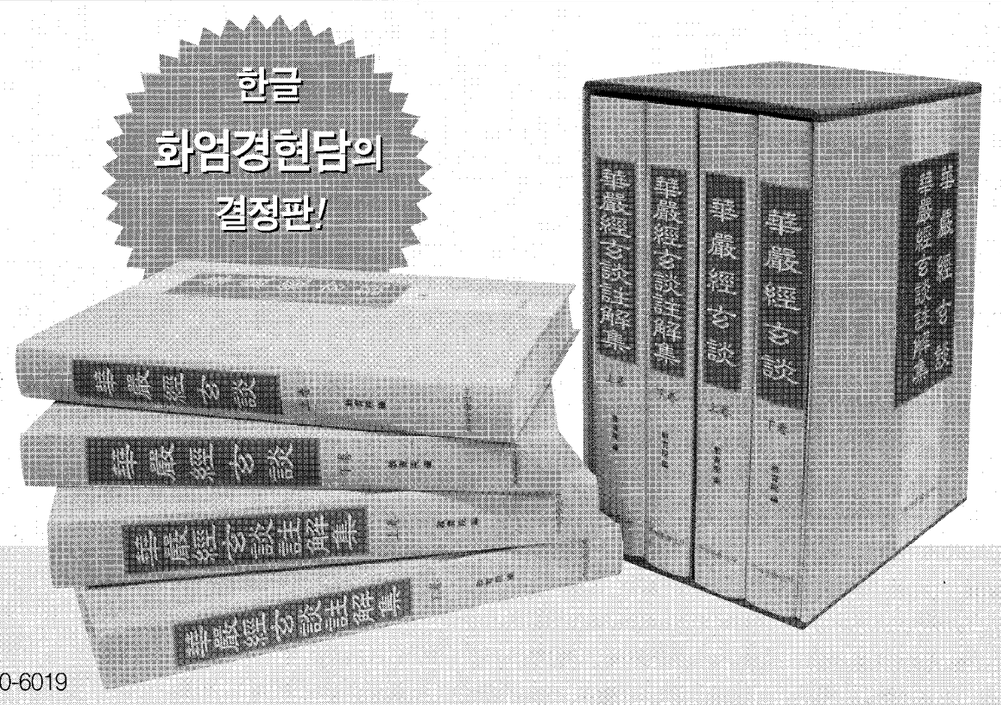
禪으로 깨우치는 반야심경
억겁의 체증을 통쾌하게 씻어주는 이 시대의 야부 선사!
대원 문재현 선사(전강 선사님 인가제자)의 감로법문
바로보인 반야심경으로 책도 출간되었습니다.
일시 : 매월 첫째주 일요일 오전 11시-12시
www.zenparadise.com
☎ 02-522-0122, 011-785-0122

조계종출판사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도서출판 아름다운 인연

불교의 최고봉인 화엄, 그 화엄의 정수를 담은
화엄경현담이 새롭게 재출간되었습니다

- 불교를 공부하는 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화엄의 세계, 그 완벽한 모습이 알기 쉽게 출간되었습니다.
- 국한문을 병기하여 한글과 한문으로 동시에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화엄경현담 주해집도 첨부되어 화엄은 물론 불교가 폭넓게 설명되었습니다.
- 4×6배판 양장제본 케이스

한글 화엄경현담의 결정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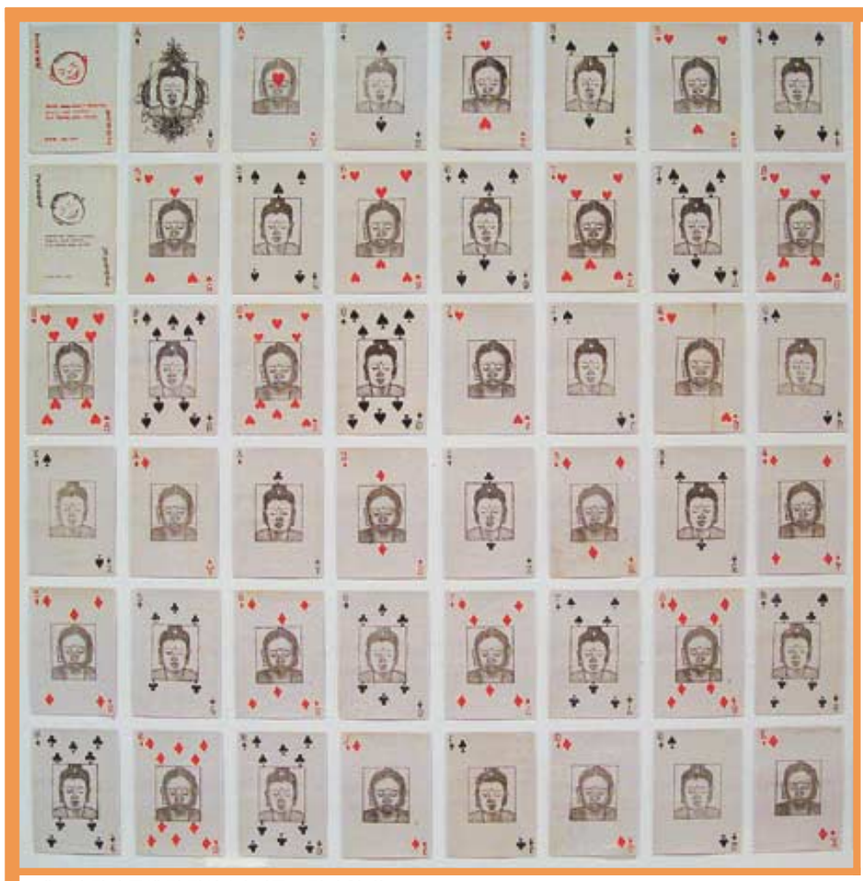
팔만대장경 중 최고봉의 경전으로서 대승불교의 정점을 이루는 화엄경은 장엄한 보살도의 실천과 사사무애(事事無碍) 법계연기(法界緣起)는 상생(相生)의 도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생생하고 이보다 더 치밀하게 연기의 도리를 설한 철학과 사상은 아직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화엄경현담은 이러한 세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한 깊고 미묘한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화엄경현담은 불교 전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기본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불교를 공부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입니다.

따라서 예로부터 전통강원의 중심교재로 활용되어 왔으나 한문으로 독파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새롭게 재출간된 화엄경현담은 국한문을 병기하여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어 누구라도 화엄의 현묘한 도리를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 의 | 조계종출판사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45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내
전화 (02)2011-1880~1 팩스 (02)720-6019

구 입 | 각권 35,000원 / 전4권 140,000원
신청 즉시 택배로 운송해 드립니다.
송금계좌번호 | 농협 053-01-254866 (재)대한불교조계종
국민은행 765-01-0017-288 (재)대한불교조계종



베트남 작가 구엔 민 탄의 '난 아무도 믿지 않아'.

관객·작가 함께하는 어울림 한마당

제5회 광주 비엔날레 (11월 13일 까지)

지율 스님·고은 시인·문규현 신부 등 참여관객 작품도

35개국 참가, 환경 등 세상문제 주로 다뤄

강익중 · 이한수씨 등 불교소재 작품 눈길



이한수 씨의 '천개의 눈을 가진 선녀'.



김아타의 프로젝트중 '미륵반가사유상'.

제 5회 광주 비엔날레가 '먼지 한 톨 물 한 방울'이란 주제로 9월 10일 개막돼, 11월 13일까지 65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금년으로 10년째를 맞이하는 이번 비엔날레는 '관객 참여제도'를 도입해 미술계뿐 아니라 불교계에서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이 다수 출품되었을 뿐 아니라 스님과 재가 불자들이 직접 작품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비엔날레(biennale)란 격년제로 열리는 미술전으로, 국제미술계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이다. 이번 비엔날레에도 세계 35개국에서 200여명의 작가가 참여했다.

비엔날레 주제전이 열리는 1전시관 첫 작품으로 민중미술예술가 박불똥 씨와 참여관객으로 동참한 시인 고은 씨의 '불후-진폐증에서 삼림욕까지'가 시선을 모은다. 연탄 설치물로 생태환경 파괴를 보여주고, 벽에는 고은 씨의 시집 <만인보>가 붙여있어 삼림욕하듯 유유히 시를 감상하도록 했다.

'먼지+물'의 방인 3전시관에는 베트남 작가 구엔 민 탄 씨의 '난 아무도 믿지 않아'가 발길을 멈추게 한다. 서정적 초상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 민 탄 씨는 부시와 후세인, 테레사 수녀와 마이클 잭슨 등 다른 가치관을 가진 인물을 한 카드에 그려 인간 본성에 내재된 욕망과 이기심을 보여준다. 그러면서 '사랑'이란 테마 아래 부처님상 만을 모아놓아 불교의 가르침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문규현 신부가 참여 관객으로 동참한 '부안 사람들의 기원'은 벽에 그물을 쳐놓고 새만금과 핵폐기장 반대운동을 펼치는 주민들의 모습을 엮어놓아 더불어 살아가는 '인드라망'의 세계를 보는 듯 하다.

무엇보다 이 전시관에서 불자들의 눈길을 끄는 것은 '환경을 생각하는 미술인모임'의 '광주천의 숨소리'이다. 이 작품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기획단계에서부터 참여관객으로 동참해 주목을 받아온 작품이다. 140만 광주시민의 하수 슬러지를 물고기로 형상화 한 설치작품과 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들의 사진으로 벽면을 장식한 이 작품에서 지율 스님과 작가들은 광주천과 천성산이 되살아오기를 기원하고 있다.

주제관에서 또 하나 주목할만한 작품으로는 5전시실에 전시된 황호섭 씨의 '108-1'이다. 108개의 부처님상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면에 다양한 필름의 영상물을 볼 수 있다. 인공적인 대량생산에 대한 작가의 문화비평이란다. 아쉽게도 장소가 협소해 작품 전체를 전시하지 못하고 일부만 보여주고 있다.

중외공원 교육홍보관에서 열리는 '한국특급'전에는 국내작가 29명이 참가하고 있다. 1전시실에는 설치작가 이한수 씨의 '천개의 눈을 가진 선녀'가 종교적 신비함을 보여준다. 천녀상의 몸에서 나오는 레이져는 '천수천안(千手千眼)'을 의미하는 천개의 눈에서 차용한 것으로 미래지향적 문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2전시실은 정면에 자리한 미륵반가사유상이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은은히 울리는 <천수경> 독경소리를 따라가면 김아타 씨의 영상물을 만난다. 8개의 사천왕 이미지를 합성한 사천왕과 다양한 영상물이 선보인다.

한국특급전에서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가운데 단연 돋보이는 것은 3전시실에 설치된 강익중 씨의 '삼라만상 2004'이다. 수백개의 불상 그림을 바탕삼아 온갖 잡동사니를 붙여놓은 이 작품은 화려한 무당의 굿거리를 형상화하면서 사바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처럼 광주 비엔날레는 거대한 사바세계를 소꿉장난하듯 여기저기 펼쳐놓은 듯 하다. 유난히 불교적 소재의 작품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은 환경과 문명, 전쟁, 갈등 등 현 세상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불교에서 찾고자 하기 때문인 듯 하다. 또 하나 주목해야할 것은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 무언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www.gwangju-biennall.org (062)608-4114

광주=이준엽 기자



지율 스님이 기획단계부터 참여한 '광주천의 숨소리'.



문규현 신부 등이 참여관객으로 동참한 '부안 사람들의 기원'.



황호섭의 '108-1'.

오승윤의 '바람과 물의 역사'.



인터뷰 재미설치미술가 강익중 씨



지구상의 모든 전쟁과 분쟁이 사라질때 '꿈의 달'도 하늘로 비상할 것입니다."

'3×3인치(7.6㎝)의 작은 그림'으로 유명한 재미 설치작가 강익중 씨(44 · 사진)가 전 세계 어린이 그림 12만 5천장을 모아 일산 호수공원 위에 '꿈의 달'을 띄웠다.

'세계문화오픈2004' 행사에 맞춰 9월 13일 모습을 드러낸 이 달은 나흘간 호수 위에 둥둥 떠 있게 된다. 지름 15m의 대형 애드벌룬의 표면을 아이들의 그림으로 도배한 이 달은 줄을 이용해 고정시키고 조명으로 달의 밝음을 표현하고 있다.

강씨의 가슴속에는 항상 어린 시절 보았던 달을 띄우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 급기야 1999년부터 이런 생각을 실행에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우선 콜라주된 그림들을 각종 단체, 병원, 학교 등에 수소문해 모았다. 이것들은 총 141개국 어린이들이 그린 그림.

비엔날레서 '삼라만상 2004' 선봬

일산 호수공원 위에 '꿈의 달' 설치

'제2의 백남준'으로 세계적인 명성

또한 이번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유화로 그린 부처 3천 349개를 3.4m 높이로 쌓아올린 '삼라만상 2004'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자연스런 감정의 상태에서 떠오르는 생각의 조각들을 캔버스 위에 하나씩 옮겨 놓는 것이 내 작업 스타일입니다. 그러다보면 그 안에서 하나의 질서를 깨닫게 되고 그림과 내가 비로소 하나가 된다는 일체의 생각을 가지게 되지요."

강씨가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선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97년 '영어를 배우는 부처'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특별상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오페라를 부르시는 부처' '금동미륵반가사유상' 등이 있다.

99년에는 파주 통일동산에서 설치작품 '십만의 꿈'을, 2001년 뉴욕 유엔본부에서는 '놀라운 세상'을 선보여 세계 미술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특히 강씨가 세계미술계의 이목을 집중 시킨 계기는 94년 휘트니미술관에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씨와 '멀티플 다이얼로그'전을 열면서 부터다.

이 자리에서 비디어 아티스트 백남준은 그의 작품을 보고 '비빔밥의 미학'을 제대로 펼쳐보인 유연성있는 작품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서대문 흥국생명 빌딩 1층 로비에 '즐거운 세상'을, 삼성동 코엑스 아셈홀에는 '금수강산'을 주제로 한 대작을 벽에 걸어 놓았다. 그는 앞으로 임진강에 남한과 북한을 연결하는 '꿈의 다리'를 실현 시킬 계획이다.

한편 60년 청주 출생인 강씨는 홍익대 서양화과와 미국 프랫 인스티튜트를 졸업하고 현재 뉴욕에서 작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육 법 등(六法燈)




용암사(서울 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 징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셨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2) 더러운 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재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의 장엄 및 촛불 대용으로 활용가능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화환대신 장엄 가능함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타장소

㈜동원전기 주 소 :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운리 290-1
전 화 : 031)541-1417 / 팩 스 : 031)541-1419
총판 및 대리점 모집

현대불교신문 창사10주년 독자사은대잔치

※ 탄허스님의 육성법문 일부분은 탄허닷컴(www.tanheo.com) 육성듣기 코너에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출고정가 1Set 12만 6000원

참고교재 1권 포함

5만원(74.8%할인)

단!

"500분"께만!

기회를 드립니다

<<탄허스님의 佛 · 儒 · 仙 · 華嚴 특강(CD18매)>>



탄허스님 육성 강의
(동양사상 특강 CD)

탄허 대종사께서 1977년과 1982년 동안거 기간에 전국 강원의 중강이상의 스님 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루 8시간씩 강의한 내용을 녹음한 250여 개의 테이프를 간추려 18장의 CD에 담아 처음으로 공개하는 스님의 육성 강의

■ 판 매
책 방 : 여시아문 전화 02)737-0695(www.yosiamun.com)
마 하 몰 : 주문전화 02)732-1520 (www.mahamall.co.kr)
주 소 :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38> · 끝



테러 시대와 도병겁(刀兵劫)

러시아 남부의 한 학교에서 발생한 인질극이 아비규환의 참상으로 막을 내리면서 온 인류에게 지울 수 없는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300여명이 사망하고 400여명이 부상당했는데 대부분의 사망자나 부상자는 어린 학생이었다. 이번 인질극을 벌인 테러리스트들은 아무런 죄도 없는 어린 학생들까지 인간 방패로 삼을 정도로 잔혹했다. 정치 문제와 직접 관련도 없는 어린 학생들이 체첸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인질로 붙잡혀 공포에 떨다가 폭발과 함께 희생된 것이다. 러시아는 이에 피의 복수를 다짐하고 있다.

지금 국제 사회는 한국의 핵 개발 가능성을 두고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우리 인류는 핵 폭탄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1948년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 폭탄은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그 어떤 대량 살생무기보다도 강력하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선 핵무기 개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중 미국, 러시아, 중국은 핵을 보유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도발국이자 패은 조금도 없는 것과 같다. 그래서 때로 사람이 찾아오면 두렵고 무서워 옷과 털이 거꾸로 설 것이다. 그 때 7일 동안 도검겁(刀劍劫)이 일어날 것이고, 그 때에는 사람이 손에 초목이건 기와건 돌이건 잡기만 하면 다 도검으로 변한다. 도검의 날 끝은 아주 예리해 손을 대기만 하면 모두 끊어진다. 이리저리 다니며 서로 해친다.

그 중에서 어떤 꾀 많은 사람은 칼로 서로 해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워해 도망쳐 산림이나 굴 속처럼 사람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 7일 동안 숨어 있으면서 스스로 마음으로 생각한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을 터이니 남들도 나를 해치지 말라. 그 사람은 7일 동안 풀과 나무의 뿌리를 먹으면서 생존하다가 7일이 지난 뒤 다시 산림에서 나온다. 그 때 어떤 사람과 서로 만나게 되면 기뻐하면서 말한다.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났구나. 이제서야 산 사람을 만났구나. 마치 부모가 오랫동안 갈라져 있던 외아들을 다시 만나게 되면 기뻐 뛰면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것처럼 그들도 또한 이와 같이 기뻐 뛰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 때의 사람들은 7일 동안은 서로 바라보며 울기만 하다가 또 7일 동안은 서로 즐겁게 놀면서 기뻐하고 축하한다. 그 때의 사람들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나면 다 지옥에

서로 죽일 생각만 하는 도병겁과 테러 닮은 꼴
상생하는 법 익히고 대량 살상무기 폐기해야

전국인 일본은 핵 폭탄은 없지만 원하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 북한도 핵무기 개발 의혹을 사고 있다. 가능하면 상대국의 국민을 최대한 많은 희생자를 낼 수 있는 효과적인 첨단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이 서로 죽이고 해치는 사회를 도병겁(刀兵劫)의 세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어떤 것을 도병겁이라 하는가? 이때의 중생들은 다만 열 가지 악(惡)만 더하고 다시 열 가지 선(善)에 대해서는 이름도 듣지 못할 것이다. 이에 선에 대한 이름도 없는데 하물며 선을 행하는 자이겠는가? 그 때의 사람들은 부모에게 불효하고 스승과 어른을 공경하지 않으며, 악을 행하는 자가 곧 공양을 얻고 남에게 존경받으며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 때의 사람들은 목숨을 마치고 나면 축생 가운데 태어나는데 마치 지금 사람들이 천상에 태어나는 것과 같다. 그 때의 사람들은 서로 만나면 해칠 마음을 품고 오직 서로 죽이려고만 하리니, 마치 사냥꾼이 저 사슴 떼를 보면 오직 죽일 마음뿐이고 착한 생각

서로 만나기만 하면 죽일 생각부터 하고 손으로 만지기만 하면 무기로 변하는 도병겁의 사회는 폭력과 살생이 난무하는 사회에 다름 아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나 사랑은 전혀 없고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은 보존하고 타인을 죽이고자 하는 도병겁의 사람들은 지금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자행되고 전쟁주의자와 테러리스트와 무엇이 다를 것인가? 도병겁에서 살아 남은 사람이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절감하듯이 우리도 상생하는 법을 소중히 하고 익혀야 도병겁의 위협에서 벗어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전쟁과 테러에 의해 위협받고 있지만 부처님이 말하는 도병겁의 시대는 아니라고 믿고 싶다. 도병겁에 이르기 전에 우리는 기존의 무기는 폐기하고 더 이상 대량살생무기를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

■ 동국대(경주) 불교학과

안양규 교수의 경전이야기 연재를 마치고 다음호부터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을 싣습니다.

있는 그대로 보고 듣는 것이 불성

지상 백고좌

인환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다같이 합장하시고 큰 소리로 인사를 나눕시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던 지난 9월 11일. 도선사 호국참회원에는 '고승 대덕 초청 대법회' 두 번째 순서인 인환(印幻) 스님의 법문을 듣기 위해 700여 명의 대중이 한자리에 모였다. 토닥토닥 대웅전 지붕을 울리는 빗소리와 안개에 싸인 삼각산을 배경으로 법회는 시작됐다.

최근 도선사를 비롯, 서울 불광사와 부산 범어사, 대구 동화사 등 전국 각지의 유명 사찰에서 고승 초청법회가 열리고 있다. 이러한 법회는 재가 불자들이 일부러 먼 곳까지 찾아가지 않고도 큰스님들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흔하면 귀한 줄 모르는 것이 중생의 마음일까? 여러 법회를 찾아다니다보면 "전에 하셨던 말씀이잖아" "스님들 법문은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라는 생각이 들어 귀 기울여 듣지 않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저 '큰스님'을 가까이서 뵈었다는 사실 하나로만 만족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스님들의 법문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들어야 하는지를 스님께 먼저 여쭈었다.

법문 들을 땐 분별심 버려야

"보조 스님은 <초발심자경문>에서 법문을 듣는 데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부류는 '아무리 법문을 들어봐야 나는 깨달을 같은 높은 경지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한 부류는 '밤낮 들어봐야 그 말이 그 말이다' 하며 법문을 가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법문을 듣는 것은 생각을 가다듬어 마음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때문에 법문을 들을 때는 마음을 비우고 이렇다 저렇다 분별하지 않아야 합니다. 법문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나 염불도 모두 같은 이치로 해야 합니다."

스님의 법문은 자연스레 '기도하는 법'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졌다.

"요즘 경제난이나 입시문제다 해서 절을 찾아 기도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도 도선사에서 '7관세음 33일 기도' 정진을 하고 계시니, 관음기도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요즘 말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싶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로 보고, 바로 듣는 것이 바로 불성(佛性)의 작용입니다. 불성이란 어디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자람 없이 보고 듣는 것이 불성인 셈이죠. 제 이야기를 듣고 '불성이 그렇게 간단한 거야?'라고 의심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셨지만 우리는 같은 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 판단대로, 본대로 느낀대로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곱다 밉다…, 쉴 새 없이 차별과 분별을 합니다. 시쳇말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지요. 흔들리는 마음으로 보니 만사를 바로보지 못하고 판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씀입니다.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에요.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고, 구하는 바가 있어 기도를 하면서도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기도만 해도 가피를 입을 수 있는 것일까' 하고 자꾸 의심을 하게 됩니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건강정보 수험생에게최고 은행석온열복대
선물로도 최고 건강에도 최고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은행석 온열복대는 70℃이상의 강한 열과 생육광선이 발산되어 원적외선 "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다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아서 가볍게 두들겨 주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및 소화불량, 만성위염, 생리통, 허리디스크, 고관절, 어깨결림등을 자연적 치유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베게속에 넣고 평생 사용으로 늘~건강하고 편안한 잠자리
건강을 나누는 (주)금강닥터에서 북한 3대명산품으로 소량만 생산되며 일부 고위층만 사용하는 세계희귀의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제조한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은행석 베개블, 은행석 목걸이를 개발하여 화제가 되었으며 선풍적인 인기와 함께 판매되어 사용자들에게 좋은 반응과 기적같은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은행석을 베게속에 넣고 주무시면 평생 뇌졸증, 중풍, 치매, 고혈압, 천식등이 예방되며 기억력이 살아나고 혈압이 떨어집니다. 또한 하얀얼굴로 미백효과도 뛰어나요.
하루에 다섯시간만 주무셔도 여덟시간 잔것과 같은 숙면을 해 머리가 맑고 상쾌하며 늘~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24시간 착용하는 은행석 목걸이와 같이 사용하시면 어깨, 목의 뻐근함을 부드럽게 하며 그 효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습니다.
※ 오랫동안 기도를 하시는 분이나 의자에 장시간동안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허리교정, 디스크 치료 및 부족한 기력회복 ※ 허리통증 완화 ※ 하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 수면이부족한 수험생 (특히 여학생에게는 필수적입니다.)
문의전화(주)금강닥터(02)3210-3170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합격기원 디지털불경 룸비니
2000만 불자님의 필수품
부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불경역시 내 마음속에 있어야 합니다.
세계최초로 탄생한 디지털 불경 재생기 '룸비니'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시 부처님의 자비로 합격의 영광을
최고의불경! 선물로도 최고!
룸비니는 담배 곽 크기만 하고 가벼워 휴대하기가 편하다. 불자라면 누구나 사찰,높은 산 등 언제 어디서든 테이프나 CD가 없어도 듣고 싶은 불경을 마음대로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수험생을 두신 부모님께서는 합격기원을 위하여 기도 정진시 디지털 불경 룸비니와 함께 기도정진 하시면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의 자비로 수험생에게 합격의 영광을, 불자님에게 대광명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불자님의 심금을 울린 효동선각 스님의 독경을 듣다보면 모든 근심 걱정 번뇌가 소멸되며 일념무아 됩니다.
합격기원 300set 한정 특별할인판매


룸비니에 관음도가 있으므로 늘 휴대 하시면 수호신역할도 하며 소원성취 할 것입니다.
(규격 8.5×5.2×2.0cm) 가격 58.000원

독경 :효동선각스님
테이프 : 8ea set
가 격 : 20.000원

C D : 2ea set
가 격 : 10.000원
● 패키지1: 디지털불경 룸비니, CD2개 테이프 8개, 특별가 58.000원 (패키지1에서 테이프 3개시 50.000원)
● 패키지2: 디지털불경 룸비니 CD 1개 특별가 39.000원
● 문의전화: 02)3210-3178
● 입금계좌: 농협(1143-12-049474 송명화)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수험생 北韓의 세계적인 神秘와 靈驗의 金剛念珠
합격의 영광을 금강 필승 염주
합격척척


▲ 108염주, 손목염주 160.000원
선물로도 최고! 성불에도 최고!
시험준비를 하는 수험생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의 안정이다. 시험준비를 하는 동안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 금강필승염주를 수험생방 또는 거실에 걸어놓으면 금강의 밝은 지혜와 강한氣로 신기하리만큼 마음의 안정을 주며 필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험준비를 방해하는 모든 잡귀들을 다 쫓고 합격의 행운을 안겨주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필승염주입니다. 북한의 세계희귀 금강약석이 주성분이며 60여종의 미네랄 원소와 93%의 높은 원적외선, 강한음이온 등이 발산되어 건강에 최고이며, 북한 3대 특산품으로 평안도 명산에서 소량이 생산되는 금강염주입니다.
※ 수험기간에 금강염주1set를 구입한 분에게는 은행석 배개블 1인용 및 디지털불경 룸비니를 추석명절 기념으로 10월 30일까지 증정합니다.
•12단주, 108, 손목염주 225,000원
•108염주,12단주 195.000원
•12단주,손목염주 110.000원
※ 별도 구입시 가격표 ※
•108염주 135.000원
•12단주 85.000원
•손목염주 38.000원
❖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분 ❖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
❖ 사업이 안되어 고민하고 계신 분 ❖ 고시준비 하시는 분
❖ 법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분 ❖ 결혼배필을 찾고 계신 분
❖ 승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분 ❖ 중환으로 투병중인 분
❖ 자녀가 없어 고민하고 계신분 ❖ 건강(氣)이 약하신 분
금강염주는 사용할 본인이 점안식후 사용하세요.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합니다. 신용카드로도 분할구입 가능 합니다.
◆ 농협 : 743-02-563237 정해철
문의 및 신청전화 (02)723-0909
金剛念珠社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 대형 B/D 406호
전국대리점모집 사찰매장, 불교용품점, 개인사업자

법문 청하면 전국 어디든 찾아가 부처님 말씀 전해

인환 스님은 "이왕 신문에 낼 거면 크고 예쁘게 내줘요."

취재청탁을 드리자 밝게 웃으며 흔쾌히 응해주시는 인환 스님은 장난기 많은 개구쟁이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엄한 스승 같기도 하다. 오랜 기간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노하우 덕분일까? 스님의 법문은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요점을 정확히 짚어주는 것으로 유명하다. "아무리 불법이 거룩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알아들어야 쓸모가 있다"는 스님은 "쉬운 법문이라고 해서 낮은 수준의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한다. 74살이라는 세수에도 불구하고 법문을 청하는 자리라면 전국 어디를 마다 않고 찾아가는 것도 '불자들의 근기에 맞는' 법문한 구절이라도 더 들려주기 위해서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시간 동안 경전 독송과 참선, 108배 참회수행을 하는 인환 스님은 1931년 평남 원산에서 태어났다. 1·4 후퇴 때 부산으로 내려간 스님은 한 할머니의 손에 이끌려 52년 부산 선암사로 출가해 원허 스님을 은사로, 석암 스님을 계사로 득도했다. 56년 해인사 금강계단에서 구족계를 받았고 6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71년 일본 고마자와(駒澤)대 대학원 박사과정을, 75년 스님의 신분으로는 국내 최초로 도쿄(東京)대에서 문학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72~76년 조계종 재일홍법원 부원장을 역임했고 76~81년 캐나다 토론토 대각사를 창건해 해외포교에 앞장섰다. 82년 귀국해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선학과 교수를 맡아 96년 정년퇴임 때까지 후학 양성에 매진했으며, 교수 퇴직금과 월급 등을 장학금으로 쾌척하는 등 후학들의 귀감이 됐다. 현재 서울 경국사에 주석하며 전국의 법회 현장에서 법음을 전하고 있다. 저서로는 <신라불교연구> <한국불교계율사상연구> <저기 도망가는 달마 잡아라> 등이 있다.

기도의 3단계

① "도와주세요" 절박한 마음
② 타인 위해 기도하는 마음
③ "기필코 깨달음 얻겠다"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가짐으로 기도를 하다보면 삼매에 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하는 인환 스님.

다. 이제 이러한 의심을 내려놓으시고 지금 일러드리는 세 가지 단계를 자신의 기도와 견주어 하나하나 짚어보십시오.

기도를 하는 첫 번째 단계는 어린아이가 배고프고 불편하면 울음을 터트리듯,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부처님을 찾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처님 어려운 일을 해결해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심정으로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상황에서 불·보살님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도를 계속하면서도 밤낮 이 생각만 하는 것은 아이가 덩치가 큰 후에도 힘든 일만 있으면 울며 부모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잡념 생기면 화두로 마음 돌려야

이럴 때 두 번째 단계로 기도가 이어져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소원을 비는 것에서 벗어나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일체중생을 조건 없이 제도해주시는 관세음보살님과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만 잘되겠다, 우리 아들만 좋은 대학 가야된다, 우리 가족만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과욕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대중들 모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중생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 보십시오. 그 기도는 자연히 자신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성취하는 기도가 되는 단계입니다. 경계에 따라 흔들리는 마음을 안으로 거두어 내 마음을 부처님과 똑같은 깊고 바른 반야(般若)의 마음으로 돌려 놓는 것이 올바른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다 어느 순간 진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그 순간 과거도 미래도 떨어져나가고 오직 그 순간만 남게 됩니다. 바로 이 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는 것이 참된 기도입니다.

물론 초심자들은 "~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 기도를 시작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원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한 번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자신의 소원을 중얼중얼 되뇌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보살님이 소원을 못 들었을까봐 자꾸 되뇌는 겁니까?(대중 웃음) 이러한 것은 일종의 번뇌요 망상이요 기도의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오직 '관세음보살' 할 뿐, 거기에 어떤 단서나 조건을 붙이면 방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또한 기도를 할 때의 큰 방해꾼이 있으니, 잡념과 졸음입니다. 물론 초심자들에게는 잡념과 졸음이 끊임없이 덮치게 마련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쉴 새 없이 번뇌 망상을 피워왔으니까요.

하지만 잡념이 일어나더라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그때마다 얼른 호흡이나 화두로 마음을 돌려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마음을 정념(正念)으로 돌리고 또 돌리다 보면 한 곳으로 집중하는 순간이 오게 되고,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필코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다보면 '무념(無念)'의 상태가 됩니다. 곧 일념(一念)이 가득 찬 무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풍기가 빠르게 돌아가면 날개가 보이지 않듯, 번뇌 망상이 끼어들 틈이 없는 상태인 무념으로 들어가면 부르는 나도, 불리는 관세음보살도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일념으로 가득찬 무념 기도 하세요

이 때 비로소 내가 바로 관세음보살이 되고 관세음보살이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이를 삼매(三昧)라고 하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면 기도삼매, 염불을 하면 염불삼매, 독경을 하면 독경삼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삼매에 드는 기도법을 알았으니 바로 알고 바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느 법회보다 많은 웃음과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온 법문이 끝나자 불자들은 밝은 얼굴로 자리를 털고 일어난다. "이제 다시 한 번 발심해 진정한 기도 정진을 하겠다"는 간절한 발원과 함께.

글=여수령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법현 스님의
스님이야기
혜공 스님 (上)



혜공(慧空) 스님은 태고종총무원의 부원장 소임을 맡아 잠시 나누어졌던 마음을 모으고 종단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스님은 태고종의 종정을 역임한 백암 스님의 친아들이다. 항상 온화한 얼굴로 종무직원들을 대하고 자상한 미소로 후배스님들의 자문에 응하기 때문에 늘 찾는 이가 많다. 원칙을 중시하는 스타일이면서도 어우러짐의 미학을 발휘하여 해결책을 제시하는 합리적인 인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태고종이 조계종의 종명을 사용하고 있던 시절에 관할했던 수많은 절을 다 내어주고 종단이라는 이름도 쓰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단지 3개의 사설 사찰만으로 종단을 등록해 오늘에 이른 종단이기에 집중력과 재정구조가 약한 것을 걱정하던



그림 · 문병성

백암 스님께서 종단에 희사금을 많이도 내셨다. 그래서 종도들이 칭송을 많이 했는데 그 소중한 기금이 특별하게 의미있는 곳에 쓰이기보다는 그저 총무원의 운영기금으로 쓰이기 일쑤였다. 공찰에서 살 때는 종단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면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는 어려움을 감수해야 하니까 잘 따랐지만 사설사암 체제로 들어선 종단구조에서는 소유권이나 운영권에서 100퍼센트 자율권을 주다보니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아 종무원들 월급주기에도 바빠 총무원 재무부장을 맡으면 월말에 돈 구하러 다니느라 코피가 쏟아지기 일쑤였다. 그러다보니 목적 사업보다도 일반 사업이나 운영비로 쓰일 수밖에 없었다.

그것을 속 모르고 말하기 좋아하는 종도들은 비판적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10여년 전 중앙종회에서 종회의원들이 나서서 총무원을 질책했다. 그 때 혜공 스님이 일어나서 말했다.

"저도 저희 스님께서 희사하신 성금이 그렇게 쓰여진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종단의 형편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또한 이해하고 있습니다. 덕암 큰스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970년도에 우리 종단을 처음 문교부에 등록할 때 신청서에 3개 사찰을 집어넣었는데 뒤에 한 사찰 주지가 조금 보완할 서류가 있다고 돌려달라고 하더니 그 서류를 다시 가져오지 않아서 꼭 있어야한다고 설득하느라 혓바닥이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스님도 오죽했으면 그랬겠습니까? 당시 경찰이나 구청에서 태고종에 등록하면 손해가 많을 것이라고 협박하는 듯한 정보를 주어서 그랬던 것 아닙니까? 그 때 3개 사찰에서 이제 2천 5백여 곳이 되었지만 작은 사설사암이 대다수이고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다 보니 형편상 그렇게 된 것이지 무슨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을 조금 더 내고자 합니다."

정작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더 뜻있는 곳으로 쓰이기를 누구보다도 더 원하고 있을 혜공 스님은 백암 스님의 뜻을 이어서 종단운영기금으로 많은 돈을 더 희사하겠다고 발표하여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들이 역시 그 문손답다고 칭송하였다. 스님은 또한 태고종 스님들이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 있는 중요한 사찰중의 하나인 북한산 태고사에 있는 태고보우국사 부도 주변의 땅을 사

원칙 중시하면서도 자상 주변엔 늘 사람들로 북적

서 성역화할 수 있도록 종단에 기증하였다.

혜공 스님이 이렇게 종단을 향한 지극한 마음을 낼 수 있었던 기연(奇緣)이 있다. 백암 스님께서 동화사에서 동진출가해 열심히 수행하던 시절을 보내고 양진암, 내원암 등에서 소임 살다가 태고종에서는 법난이라 하고 조계종에서는 정화라고 하는 승단분규를 겪으면서 다 내어 주고 대구 시내에 내려와 살다가 동화사 시절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나서 동화사 뒷산인 팔공산을 다 뒤져서 갓바위부처님을 찾아내었다. 그때의 신심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당시 갓바위부처님은 소나무와 칡넝쿨이 우거진 속에 숨어(?) 있었다. 요즘엔 갓바위부처님을 친견하려고 전국에서 신도들이 몰려들어 발디딜 틈이 없을 지경인데 당시에는 산을 오르내리던 사람도 없고 신도도 없었기 때문에 수행에는 안성마춤이었지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려도 아침에 밥을 지어서 불기에 담아서 올라가면 다 식어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주변을 정리하고 땅을 일부 파내 움막을 지어 기도를 하였다.

혜공 스님은 연세가 드신 백암 스님 보다는 자신이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랫절에도 내려오지 않고 열심히 기도정진하였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뒤가 묵직하고 힘이 빠지더니 하혈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였더니 직장암이라는 것이었다.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서 다른 종합병원을 몇 군데 더 다녔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계속)

■ 관악산 자운암 상임법사

마하몰에서 알찬 추석선물용품을 만나보세요

마하몰 eTrust 6년연속 인증기념 특별감사이벤트
이벤트 하나, 모든 구매고객에게 열반의 미소 CD를 드립니다. (9월 30일까지)
이벤트 둘, 10만원 이상 구매고객에게는 불교캐릭터액자를 증정합니다. (9월 30일까지)

건강식품
■ 홍삼액(60포) 120,000원 · 함량 : 홍삼 71.58%(국산) (홍삼 70%, 흑미삼 30%) · 80g × 60포
■ 농협홍삼정과(900g) 177,000원 · (400g) : 79,000원 · 홍삼(국산 4년근 이상)100%
■ 홍삼진액(40포) 88,000원 · 5년근 홍삼근 99.01%(국산) (홍삼 20%, 흑미삼 80%) · 100g × 40포
■ 홍삼정 골드 178,000원
■ 홍삼정(120g) 70,000원
■ 홍삼정(240g) 140,000원
■ 홍삼절편(200g) 46,000원
■ 홍삼무설탕캔디 25,000원 · 200g × 3ea
■ 홍삼유가 16,000원 · 850g × 2ea

전통식품
■ 향적원 선물세트 1호2종 35,000원 · 혼합장아찌 1kg, 고추장 1kg
■ 향적원 선물세트 3호3종 30,000원 · 청국장가루 200g × 3개
■ 향적원 선물세트 6호2종 50,000원 · 상황버섯고추장 1kg, 상황버섯된장 1kg
■ 향적원 선물세트 4호2종 50,000원 · 더덕장아찌 1kg, 매실장아찌 1kg
■ 향적원 선물세트 5호5종 48,000원 · 청국장가루 200g × 3개, 청국장환 200g × 2개
■ 상황버섯된장(1kg) 28,000원 · <고추장 제조 기능보유자>인 한명순씨가 직접 만든 <된장>

건강용품
■ 숯매트(1인용) 150,000원 · 전기없이 따뜻한 느낌을 주는 매트 · 참숯백탄 5kg
■ 수행화 40,000원 · 검정, 회색
■ 희담석 어깨찜질팩 66,000원 · 표피: 무독성 PVC sheet (항균 99.9%의 금가루 첨가) · 내용물 : 희담석가루, 물, 수지
■ 숯베개(음이온800) 40,000원 · 후두부, 목, 어깨의 혈액순환 원활촉진 · 뇌신경 안정으로 숙면할 수 있음 · 수면중 공기정화효과
■ 숯방석 35,000원 · 통기성확보, 원적외선방사 · 흰색, 검정
■ 천연연꽃비누 15,000 (개당) · 세트(12개) 150,000원 · 고급식물성 오일과 천연재료를 첨가
■ 희담석 찜질팩(신형) 39,800원 · 기존제품의 두배반 이상의 희담석원료 사용
■ 37°기(氣)베개 60,000원 → 40,000원 · 체온만으로 원적외선을 방사하는 기(氣)암석(Life Soul)이 부착 · 아이보리, 하늘색

마하몰에서 알뜰 쇼핑하세요..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서 삼성,신한,LG, BC카드로 5만원이상 결제시 무이자할부 혜택을 드립니다.
● 삼성 : 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신한카드 : 2~3개월 무이자할부(2004. 12. 31까지) ● LG카드 : 3개월 무이자할부(2004.9.30 까지) ● BC카드 : 2개월 무이자할부(2004. 9. 30까지)
※ 마하몰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과 동아일보사, 한국경제신문사, 전자신문사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업자원부가 후원하는"eTrust 인증제도"인증 심사결과, 인증업체(우수전문몰 부분)로 6년 연속선정되었습니다.

불교문화상품 전문쇼핑몰 마하몰 Mahamall.co.kr
주문전화 02-732-1520

인터넷 마하몰(www.mahamall.co.kr)에 오시면 3,000여종의 불교문화상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006-01-0785-361 / 우체국 010041-01-012219 현대불교신문사 / 농협 053-12-113210 하동규

한가위 나눌수록 풍성해요


"송편 드시고 힘내세요". 금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이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복지단체, 소외이웃에 송편 나누기 · 추석 물품 후원 · 놀이마당 제공

"추석? 뭐 좋을 거 있다고…."

서울역 주변 '쪽방' 밀집지역에 살고 있는 독거노인 김 할아버지(78). 달력에서 성큼 다가온 추석을 확인하며 담배를 꺼내 문다. 남들은 명절 분위기에 들떴는데 할아버지는 추석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단다. 등 돌린 자식들, 먼저 가버린 아내. 할아버지의 뒤척임에 쪽방은 더 비좁아진다.

풍성한 추석상과 한가위 밝은 달을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따스한 손을 내미는 단체들이 있어 김 할아버지의 명절이 외롭지만은 않을 듯하다.

불교계 및 각 지역 복지단체들이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 송편 나누기, 추석 물품 후원, 명절놀이 등을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추석행사의 백미는 뭐니뭐니해도 송편 만들기. 신길사회복지관(관장 공상길)은 9월 24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쌀도 모으고 송편을 만들어 어려운 지역 이웃을 찾아간다. 의정부시 곰두리네집(소장 김순연) 장애우들도 손수 송편을 빚어 서로의 온정을 확인한다.

신나는 명절 분위기를 선사하는 복지관도 있다. 구미 금오사회복지관(관장 법등)은 인근 공단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초청, 전통무용과 스포츠댄스 공연을 펼쳐 보인다.

서울은평노인복지관(관장 고재욱)은 지역 독거노인들을 찾아 이발 · 목욕봉사 프로그램을 준비, 한가위의 '가위 소리'를 배달한다.

서울 옥수사회복지관(관장 상덕)도 다도(茶道) 체험 기회와 다식 만들기 프로그램을 마련, 달동네 아동들에게 '특별한 추석'을 선물한다.

이밖에 서울시립노인요양원(원장 김요탁)은 9월 24일 치매로 돌아가신 노인들을 추모하는 '위령제'를 열어 '경건한 마음'을 갖는 시간을 보낸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각 복지관 추석 행사 현황

복지관	행 사	일 정	연락처
송편나누기			
과천복지관	송편 전달 등	9.23~24	02)507-6319
우산복지관	소년소녀가장세대 송편 전달	9.23~24	062)266-3853
모전복지관	송편 빚기, 선물증정	9.23~24	054)555-0108
궁동복지관	송편 배달 등	9.24	02)2613-9367
송파노인복지센터	무의탁노인 송편 배달	9.22	02)421-7858
신길복지관	송편 만들기	9.24~25	02)831-2755
역삼노인복지센터	송편 및 한가위음식 독거노인세대 전달	9.24	02)564-9294
안양노인복지센터	송편 배달	9.21	031)455-0551
더불어 살기			
송광복지관	선물전달, 생필품 지원 등	9.23~25	062)941-8248
낙동복지관	물품지급(쌀 20kg등), 후원금전달 등	9.22	051)271-0560
보현의 집	추석 당일 합동차례, 독거노인 급식	9.25~28	051)506-0146
원종복지관	차례용품 나누기	9.24	032)677-0108
냉림복지관	후원 물품 지원	9.20~25	054)532-5687
본동복지관	쌀모으기, 바자회 등	9.15~16	02)817-8052
노인복지관	도시락 특식 배달 등	9.23	033)255-8866
한가위 잔치			
장애인복지관	공연 및 장기자랑	9.17	054)776-7522
금오복지관	외국인 노동자 한가위 잔치	9.19	054)458-0230
도봉서원복지관	치매노인 나들이, 송편 빚기 등	9.23~24	02)3494-4755
성북노인복지관	한가위잔치, 송편나누기	9.22	02)929-7950
금천노인복지관	요리 경연대회, 퀴즈대회 등	9.23	02)804-4080
서울시립노인요양원	위령제, 노래자랑	9.24	02)939-6176
은평노인복지관	이동목욕, 이 · 미용, 쌀 나누기 등	9.6~24	02)385-1351
문수복지관	차례지내기, 사물놀이 등	9.24	061)652-4242

불교TV · 불교방송 추석특집 프로그램

불교TV 황우석 교수 등 명사 초청 특강

불교방송 25일 '생방송 고향 가는길'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불교방송과 불교TV가 추석특집 프로그램을 다채롭게 마련했다.

불교TV는 추석특집으로 명사초청특강을 기획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생명복제 기술과 불교'(27일 14:30), 선재 스님은 '음식이 성격을 만든다'(27일 20:30), 방송인 엄앵란 씨는 '가정에서 행복찾기'(28일 14:30), 탤런트 강부자 씨는 '생활 속 행복찾기'(29일 14:30)를 주제로 특별강의를 펼친다.

불교TV스페셜은 '법만 스님과 함께 하는 법문 가요'(24일 22:10)로 추석특집을 꾸민다. 부처님 말씀을 대중가요 가락에 담아 포교하는 법만 스님의 노래를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 이밖에 진리의 빛 석등(17:30), 국악교성곡 붓다(28일 19:30), 붓다의 땅에서 만난 달라이 라마(22:10) 등이 눈길.

불교방송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질의응답 형식의 신행상담실을 '특집 길을 묻는 사람들'(10:00)로 마련했다. 기존의 상담 가운데에서 불자들의 관심을 끌만한 흥미로운 에피소드들을 모아 콩트로 엮었다.

귀향길을 즐겁게 할 '생방송 고향가는 길'(25일 12:20), 귀경길을 반길 '생방송 Music Highway'(29일 12:10)도 각각 9부작으로 준비돼 불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불교문화를 음미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동행'(27 28일 17:05)도 기획했다. 1부 향가, 2부 사찰학춤의 세계를 조명한다. 강지연 기자

한문 통해 동양문화 배워요

예학당, 10월부터 도덕경 · 논어 · 소학 강좌

고전문화회의 예학당(학장 신상철)이 10월부터 도덕경 및 논어, 소학 등 한문 학강좌를 연다. 강좌는 고전한문과정과 교양한문과정으로 나눠 열리며, 고전한문과정은 도덕경과 논어를 배우는 시간으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20분, 교양한문과정은 소학과 한문학국사 위주로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 20분까지 진행된다. 예학당 신상철 학장과 김용남 박사(성균관대 유학철학)가 강의를 맡는다. (02)742-9145

클릭! 불교문화상품
불교전문쇼핑몰 mahamall.co.kr
백년차 선물세트



깨끗한 백련잎을 여러번 덖고 찌고 비비며 만든 연꽃잎차. 그윽하고 은은한 향이 일품인 잎차와 연꽃잎차 특유의 맑은 색이 돋보이는 귀알무늬다기 세트. 가까운 지인 및 친지들을 위한 선물용으로 좋다. 원료:백련잎 100%, 용량:25g 1인다기 2벌세트, 가격:3만2천원. (02)732-1520

전시

경암 스님 선서화 · 도예 서울 · 부산 · 일본 등 순회전시


경암 스님의 선화 'on time'.

미국 워싱톤에 위치한 조계종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이 불교국제총림 건립기금 마련을 위한 선(禪) 서화 · 도예전을 열고 있다.

9월 13일 서울에서 시작한 전시회는 21~26일 부산 범일동 현대백화점 현대아트갤러리(051-667-0880), 10월 1~7일까지 서울 종로구 견지동 본화랑(02-732-2366)에서 잇따라 개최된다. '산사에서 부는 바람'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코끼리와 독수리, 닭, 학 등을 추상적으로 그린 담백한 선서화가 주를 이룬다. 또한 스님이 미국 포교활동을 하면서 틈나는 대로 그려온 병풍과 가리개, 서화, 도자기 등 180여 점의 작품도 함께 선보인다. 내년 2월부터는 일본 오사카 보현사를 시작으로 미국 시카고, 텍사스, 워싱턴 D.C, 캐나다 토론토 등 각국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20여년간 미국에서 한인교포와 현지인을 상대로 국제포교를 해온 경암 스님은 1981년 미국으로 건너가 3년 뒤 보림사를 창건하였고 현재는 미주불교신문 발행인을 맡고 있다.

공연

'야단법석' 도리사 간다

10월 1일 야외무대서 타악 퍼포먼스


작년 울릉도 회당문화축제 때 관객들의 큰 호응을 받은 '야단법석'의 공연모습.

가을철을 맞아 신라불교의 발상지인 천년고찰 구미 도리사에서 독특한 산사음악회가 열린다.

도리사가 불교문화를 대중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타악포퍼먼스 '야단법석'의 공연을 10월 1일 사찰 야외무대에서 열기 때문. 타악포퍼먼스 '야단법석'은 음악을 좋아하는 스님들의 좌충우돌 수행기를 담은 작품으로 불교적 깨달음의 세계를 한국적인 공연양식으로 풀어내 타악 뮤지컬의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단법석의 신명나는 몸짓과 함께 사찰에서 흔히 보는 법고와 목어, 요령, 죽비 등 갖가지 사찰 불구들이 악기로 활용되는 모습도 색다른 즐거움이다.

도리사 주지 법등 스님은 "한국 문화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불교문화를 전통타악기 속에 담은 야단법석의 회향을 통해 불교 사찰이 대중 속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함음법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054)474-3737

극장가


꽃피는 봄이 오면 / 드라마 / 128분
개봉예정일: 9월 23일
감독: 류장하
출연: 최민식, 김호정, 장신영 등
등급: 12세 이상

트럼펫 연주자 현우(최민식 분)가 강원도 도계중학교 관악부 임시교사로 부임한다. 교향악단 연주자를 꿈꾸던 미래가 쉽지 않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선택한 길. 낡은 악기, 찢어진 악보, 빛바랜 트로피와 사장들이 초라하기만 한 관악부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하지 못하면 강제 해산할 위기에 처해있다. 과연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해나갈 것인가.


카르멘 / 드라마 / 119분
개봉예정일: 9월 24일
감독: 비센테아란다
출연: 빠즈베가, 레오나르도스바라글리아 등
등급: 18세 이상

19세기 중반 스페인이 영상 속에 되살아난다. 팜므파탈의 원형으로 자리잡고 있는 카르멘을 향한 한 남자의 집착적인 사랑을 그리고 있다. 카르멘은 감정이 이끄는 대로 남성을 유혹하고 사랑하지만, 지속적인 구속은 거부하는 여성상으로 남성을 종속시키면서 파괴시키는 '치명적 유혹'의 이미지다.


맨 온 파이어 / 액션 / 147분
개봉예정일: 9월 24일
감독: 토니 스코트
출연: 덴젤 워싱턴, 크리스토퍼 워큰 등
등급: 15세 이상

덴젤 워싱턴이 이번엔 보디가드로 분했다. 前 CIA 전문 암살 요원 존 크리시(덴젤 워싱턴)는 과거의 아픔으로 알코올에 의지하며 산다. 그런 그에게 멕시코 사업가의 아홉 살짜리 딸 피타를 보호하는 보디가드 의뢰가 들어오는데. 크리시는 피타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상처입은 한 남자가 어린 소녀와의 만남을 통해 웃음을 찾아가는 감동을 맛볼 수 있다.

게시판

공부합시다

문예창작반 흑석동 달마사 달마문예대학이 10월 첫째주 금요일부터 문예창작반을 운영한다. 문예창작반은 시반과 수필반으로 나눠 지도교수의 강의와 습작기조 등으로 이뤄진다. 수강료 3개월 10만원. (02)813-7425

불교어학연수 불교원전 전문학림 삼학원이 10월 1일부터 불교어학연수과정을 진행한다. 불교어학연수는 범어초급과 티베트어 연습, 빨리어 강독 등으로 진행되며, 강좌는 허일범 교수(진각대)와 이자랑 강사(동국대) 등이 맡아 진행한다. (02)765-9602~3

함께 해요

관음사 출가학교 대구 영남불교대학 관음사가 9월 30일 독신남자들을 대상으로 출가학교를 연다. 출가학교는 새벽예불과 발우공양, 참선, 108참회 등으로 진행된다. (053)474-8228

대성사 산사음악회 옥천 대성사가 10월 10일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음악회는 가수 최은혜의 노래교실과 김태곤의 산사음악회, 민요전수자 라은주의 민요공연, 장승깍기 퍼포먼스 등으로 꾸며진다. (043)732-5560

장애아동 부모교육 구로 궁동종합사회복지관이 9월 22일 장애아동 학부모 및 관련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장애아동 성교육을 실시한다. 프로그램은 아이의 초기 성교육부터 결혼생활까지 아이들의 성생활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02)2613-9367

도륜 스님 사진전 대구가톨릭대학교 예술학과가 갤러리 예술사랑 2학기 첫 기획전으로 부석사 도륜 스님의 사진전을 9월 25일까지 대구카톨릭대학교 조소관 갤러리 예술사랑에서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는 경주남산의 불상사진 10여점과 백련, 부석사의 사계 등 36점이 전시된다. (053)850~3929

재활운동치료 금천 노인종합복지관이 뇌졸중, 뇌손상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서울시에 거주만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재활운동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치료교실은 근력 및 신체기능 증진 목적으로 일상생활동작들을 운동하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02)804-4058

어린이 독서감상문대회 부산 몰운대종합사회복지관이 지역 어린이들의 독서 생활화를 위해 '제6회 몰운대 어린이 독서감상문대회'를 연다. 대회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어린이도서를 읽고 200자 원고지 5~10장 이내로 감상문을 작성하면 된다. 접수는 10월 24일까지. (051)264-9033

노인취업박람회 경기도가 고령 구직자들의 취업 알선을 위해 10월 7~8일 수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노인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한다. 도는 이번 박람회에 2000여명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박람회는 도내 거주 55세 이상 구직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031)249-2569

즐겁게 떠나요

달빛신라역사기행 신라문화원이 경주 불국사에서 2004 달빛신라역사기행(사진)을 9월 25일 진행한다. 행사는 국악공연과 다례시연, 탑돌이 등으로 다채롭게 열린다. 성인 1만 5천원, 학생 1만 3천원. (054)774-1950



3사 성지순례 청주 관음사가 10월 7일 동화사, 파계사, 갓바위 등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신청은 6일까지. 동참금 2만원. (043)256-6254

강화도역사기행 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이 9월 26일 강화도역사기행을 떠난다. 기행은 부근리 고인돌과 고려궁터, 전등사, 광성보, 갑곶돈대 등을 탐방해보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성인 4만원. 학생 3만 5천원. (02)725-1284

20면 상식 퍼즐 정답

중	생	계		탈		
추		학	수	고	대	
가			감		세	
절	수				지	방
	정		옻			약
	과	거	칠	불		무
		인		발	행	인

신행수기

새 인생 주신 부처님 〈하〉

이묘노 (고양시 탄현동)

부처님과 스님, 불자들이 아니 계셨다면 저는 이 글마저 쓸 수 없고 저 세상 사람이 됐을지도 모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부처님 은혜에 술도 끊었습니다. 화를 부르는 술이 구정물에 불과했지만 이를 극복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부처님이 정말 계시다면 일지화가 술을 끊게 해주십시요 하고 매일매일 발원했을 정도니까요.

부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한 존재를 사람답게 거듭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남을 이해할 수 있고 이웃에게 친절할 수 있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나도 봉사라는 단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기쁘답니다. 나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그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습니다.

취미 생활도 합니다. 엽서를 만들고 밤새도록 부처님과 할 수 있는 노래도 열심히 지어봅니다. 저는 오늘도 내일도 엽서를 만들어서 불자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못 쓰는 글이고 문장이건만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나뭇잎이 하나 둘 떨어질 때 책갈피에 넣어뒀다가 만드는 엽서. 그것을 만들 때 그 마음은 아무도 모릅니다. 나만이 알 수 있는 즐거운 마음을 실어 오늘, 내일도 일터에 갈 때 좋은 마음입니다. 우체국에 갈 때도 참으로 좋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수라장 같고 무질서한 질서, 욕심 빼면 시체 같은 불자들도 많이 보입니다. 젊은 불자들을 위해 많은 포교가 필요합니다. 저 역시 사위, 딸, 남편을 모두 절로 이끌었습니다. 완고했던 남편도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에 꼭 도선사에 갑니다. 우선 가족부터 포교해야 합니다. 집에서 내가 앉는 방석이 법당의 방석이라고 여기고 실천합니다.

또 불법을 만나서 어려운 단어 때문에 막힐 때 스님께 질문합니다. 너무나 좋습니다. 부처님 법 만나는 일이 참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때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인생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매일매일 바쁘게 돌아가고 시간도 돌고 돌아 내일도 힘겹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는 밥 먹는 시간이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잠자는 시간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세월은 흐르는 강물처럼 잡을 수 없습니다.

이 세월 속에 이내 고개고개 넘어갑니다. 가을의 향기가 넘치는 맑고 높은 하늘에 기러기가 날아가듯이…. 달이 밝은 밤빛 아래서 부처님 부처님, 노란 셔츠 입은 부처님…. 부처님 빛과 같이 복많이 짓기를 발원합니다.

이렇게 인생살이가 험하고 가시밭길 같아도 3일 기도, 7일 기도, 21일 기도, 백일 기도, 천일 기도로 기도는 늘어갔습니다. 하심으로 이어가는 기도가 힘들지라도, 공짜는 없습니다. 불자들이 온 정성을 다해 열심히 기도하시길 저는 바랍니다.

한 때 불자들과 함께 모여 불법의 모임을 이어갔으면 했던 일지화는 배운 강의내용을 오래도록 함께 나누기를 바랐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습니다. 주부들은 모이면 대부분 쓸데없는 수다쟁이가 되기 때문이죠.

항상 사랑안에서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는 과거엔 구제불능이었지만, 절에 나간 이후에 집안에서도 "부처님 믿더니 사람 됐네, 사람이 달라졌네" 하면서도 과연 제대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전 오로지 부처님을 믿고 따랐습니다. 갈 날도 멀지 않았는데 남은 여생 어떻게 불자들에게 회향할 지를 고민합니다. 궁금한 것도 너무 많아 공부도 많이 합니다. 〈법화경〉 사경도 합니다.

업이 많은 일지화 아무쪼록 물에 씻긴 함박눈 처럼 업이 녹여지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일지화에게도 부처님 지혜가 터지면 좋겠습니다. 지혜가 없어 오늘도 내일도 열심히 기도하며 일터에 갑니다. 일터에서도 찬



그림 · 김홍인

"부처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오늘도 웃는 생활

불가를 흥겹게 부르며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어 생활이 안정됐습니다.

천일 기도를 하면서 사위도 생기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살고 있습니다. 높은 빌딩은 없어도 우리 부부 싸움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도선사를 다니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경전을 읽을 때는 반대하는 남편이 너무 무서워서 3년간 가로등 밑에서 읽었을 정도니까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따뜻한 방에서 경전 읽을 날이 언제일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흘러 지금 이 시간은 따뜻한 방에서 부처님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도 열심히 합니다. 도선사로 향하는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사촌 올케가 항상 건강하기를 발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많이 편찮으시답니다. 일지화를 부처님 곁으로 이끌어주신 언니와 함께 건강한 모습으로 도선사에 가고 싶습니다. 억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들꽃처럼, 저는 보고 배운 것이 없을지라도 혼자서 오뚝이 마냥 일어선 것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이 될 수 있을까 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이 눈물이 참회의 눈물인지 가슴에 묻은 자식이 보고 싶어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이 펑펑 쏟아지는 눈물, 너무 많이 흘리다보니 눈가는 늘상 벌겋고, 내일은 울지 않으리라 다짐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모든 존재들이 항상 평온하고 행복하기를, 만복이 구름처럼 일어나고 액난은 눈처럼 녹아지길 기원합니다. 조그마한 깨달음일지라도, 하루하루 가는 세월에 주름이 가득해질지라도 미소 품은 이 얼굴로 오늘도 환하게 웃습니다. (끝)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만 꼭꼭 담아두었던 감동깊은 신행체험들을 진솔하게 적어 보내주십시오. 연중 접수한 신행수기 가운데 우수작은 소정의 고료를 드리고 신문에 연재하며, 연말에 최종 심사를 거쳐 시상합니다.

- 주제: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A4용지 4장)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릴레이 수행일기 〈상〉



윤승기
선덕여중 교사

수행(修行)이라….

그동안 나는 내 삶과 수행을 연관지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내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연유, 그리고 살아온 이야기도 구도의 여정이 아닐까 하며 지나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1988년 당시, 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매우 고통스러웠고 혼란스러웠다. 아니 그 때만이 아니라 살아오는 동안 늘 마음속엔 잡다한 욕구불만 등으로 내면의 모습은 몹시 화가 나 있었고 마음 바탕엔 우울함이 깔려있었다. 그러던 중 손 위 시누이가 능인선원 저녁 반에 등록을 시켜 놓았다. 초등학교 1, 2학년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나는 직장에 다녔지만 마음은 늘 그 쪽으로 향했다. 가정과 직장의 일보다 나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더 급했던 것 같았다.

선원에는 학교에 처음 입학한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다니게 되었다.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다 놀라웠고, 그 말씀들을 통해 생활에 절어 있던 마음의 아픔을 달래기 시작했다. 그러

'근본'에 대한 의문 불교귀의해 탐구
인도 배낭여행 구도행의 큰 전환점

자 매일 그 시간이 기다려졌다.

그러면서 가끔씩 청화 스님(2003년 입적)이 계시던 태안사로 발걸음을 해 큰스님의 은은한 미소와 그 분의 향기에 젖었다. 나중에는 염불선을 나름대로 실천하면서 집 앞에 있는 마하연이라는 포교원에 적을 두게 되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제대로 된 공부가 무엇인지 몰라서 나침판 없는 배처럼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다. 이것 저것 책도 보면서 세월을 보냈지만 마음은 무엇인가를 늘 찾아 다녔다. 그 와중에도 불교를 만난 것이 얼마나 큰 행운인가를 되새기며 마음 한편으론 늘 감사했다.

어느 날 나의 내면에 '법등명 자등명(法燈明 自燈明)'이라는 글귀를 새겨준 분, 조용히 맨발로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시며 사람들을 일깨우신 분, 그분이 태어나고 깨닫고 법을 설하고 열반 하신 곳,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기로 하였다. 1996년 12월 겨울 방학을 맞아 학교 선생님 두 분과 같이 30일간의 인도 배낭여행을 다녀왔다. 인도에서의 30일간의 여행을 무엇이라고 말할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 인간과 동물이 구분이 없었고, 각자 모습만 다른 중생일 뿐이었다. 처음엔 그들에 대한 눈물과 충격으로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인도 정부에 대해 화가 나서 욕설을 퍼부었다. 그들이 굶주리고 병들어 죽어가는데 무엇이 소용 있단 말인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이 내뿜는 당당함과 편안함 속에 나도 같이 동화되었다. 기차의 연착을 기다리며, 동물들이 자유로이 지나다니기도 하는 기차역 바닥에서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도 있었으니까…. 인도, 그곳은 나를 감싸주고 편안함을 주고 나를 돌아보게 해준 곳이었다. 이곳은 하나의 완성된 세계이자 수행처였던 것이다. 각자의 역할로 아름답게 율동하는 생명체라고 할까? 이곳 뿐이 아닐 것이다. 사람 사는 세상 아니 우주의 모든 곳이 다 그럴 것이다.

인도 성지순례는 내 구도과정에 큰 전환점이었다. 마치 새로운 탄생을 위해 숨죽인 누에고치처럼 나는 하염없이 쉬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법(法)을 잊어버리기로 하였고 그냥 평범하게 나의 역할을 하며 살기로 하였다. 가끔씩 하는 좌선도 독서도 하지 않고 생활 속에 묻혀 지냈다.

그러던 98년 6월 어느 날, 다시 좌선할 기회가 생겼다. 좌선에 들어가자 너무 힘이 들었다. 오래간만에 해보는 일이라 다리가 아프고 속이 메스껍고 토하고 쓰러질 것 같고 조금만 참자며 눈을 감아버리고 한계를 보자며 버티었다. (계속)

불교의식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10월 6일(목) 오후 3시 개강

본 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불교의식 수강생을 모집하오니 뜻이 있으신 분은 많은 동참바랍니다.

과 정

㉮ 기초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① 목탁, 요령타법
② 도량석, 종성, 조석예불, 사사불공

㉯ 중급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삼신이운, 49제 및 천도의식 일체

㉰ 작법반 (3개월)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3시 30분 ~ 5시 30분
● 사물, 천수바라, 승무(나비춤)

※ 구 비 서 류 : 주민등록등본 1통, 명함판사진 3매
※서 예 반 : 매주 수, 목요일 오후 1시 ~ 3시

실기 교육은 원장스님께서 직접지도 함

포항 자명선원 부설 불교의식교육원
신청 문의
포항시 남구 대도동 86-31번지
054)337-4572 / 017-516-8730
011-544-9777 / 019-509-9448

제39회
3000배 철야정진

◆ 날 짜 : 9월 25일(토) 저녁 9시~ 일요일 오전 7시
(절하는 법 교육: 저녁 7시~9시, 3000배 시작하기전)

◆ 준비물 : 동참비 2만원
기도포(큰수건), 수건 2개(땀 닦을 용도), 두꺼운 면양말 2켤레, 면티 2매, 수련복(하의) 2매, 간단한 간식, 물병
▶9월 25일 당일 저녁 공양을 준비 하지 못합니다.
머리는 순간 맑아지고, 몸속의 노폐물은 폭포처럼 빠져나가며, 위장과 간은 청소되어 피로회복과 컨디션 조절에 탁월한 효과가 있고, 우주의 맑은 氣가 꽉 찬 기능성 차를 마시며 3000배 정진을 하면 그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 하게 됩니다. 특히, 운전, 등산, 수험생, 싸우나에서 효과를 본 많은 체험사례가 있습니다.

◆ 장 소 : 분당 이매역 태안사 대법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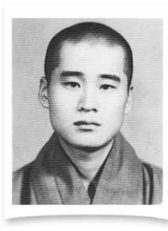
◆ 찾아오시는 길
• 전철 : 분당선 이매역 1번 출구 앞, SK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분당선 : 2호선 선릉역, 3호선 도곡역, 8호선 복정역 이용)
• 버스 : 1116(잠실역), 9413(구 1110번: 삼성역) 분당으로 직통연결 농업기술센타 앞에서 하차 후 SK 주유소 옆 도보로 5분거리

소리산참선캠프 법왕정사가 속해 있던 소리산이 매매되는 안타까운 일로 중단 되었던 3000배 정진을, 수행환경이 아주 좋은 분당의 태안사 대법당 에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동참하시어 업장소멸과 소원성취의 기쁨을 누리시고, 호흡에 맞춰 절하는 비법으로 몸속의 노폐물과 나쁜 기운을 가장 빠른 시간내에 배출하는 효과를 즉석에서 체험하는 21세기 인류 최고의 건강법인 3000배의 테크닉을 체득하시길 바랍니다.

법왕정사 서울 군자법당
☎ 전화문의 : 02)456-4994 456-0035

양평 소리산 법왕정사
☎ 전화문의 : 031)771-7745 771-67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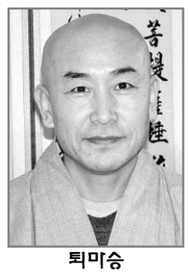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빕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재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승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그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효한 치료법**을 어렵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임상에서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타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서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2동 서울약령시장(경동시장) 내
효성약초 사암침연구소
TEL. 02) 965-2724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영험도량



퇴마승

불보살님 가피력 받는사람

참회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 갖는사람

누구나 4차원 파장을 받을 수 있으며 음(陰)을 양(陽)의 기운으로 바꾸어 주면 육체, 마음 고통에서 벗어납니다.

- 중병은 70~80% 4차원 장애
- 육체, 마음 고통은 4차원 장애
- 기타, 인생사 4차원 장애

▶ 인연기도로 가피를 받은 사례 ◀

낙태 경험이 있는 사람 둘 중에 한사람이 고통을 받고 가족에게 영향을 주며 기도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물질, 금전욕, 애착, 그리움, 미움을 갖고 살아가면 사후에 구천을 떠도는 파장이 되어 직계 가족에게 영향을 준다

해 원 사
초 하 루, 18일 법회
신중참회기도
031-736-3734 · 732-3790

"인사동 차 문화공간 찾아가 볼까" 차 문화의 중심지라 할 수 있는 서울 인사동에는 30여 곳에 달하는 전통찻집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찻집에서는 말 그대로 '차 한 잔' 마시는 것 외에 문화공연을 보거나 차 관련 정보를 얻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최근 문을 연 '전통선차연구소'와 차 문화 '흙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은 단순한 '찻집'이 아닌, 인사동을 찾는 내외국인들에게 우리의 차 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옛 거리 풍경속 茶 한잔 어때!



우리 선차(禪茶) 문화의 맥을 이을 가교 역할을 해나갈 한국전통선차연구소. 이곳에서는 다양한 차 상품과 다서들을 만날 수 있다.



공연 무대와 인터넷 시설 등을 갖추고 차 관련 문화공연을 펼쳐나갈 '흙이랑' 내부 모습. 주말마다 차를 마시며 공연도 즐길 수 있다.

"한국 선차 종합안내센터 역할 기대"

한국전통선차연구소

"우리나라의 차 문화는 불가(佛家)에서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일본이나 중국의 차문화에 묻혀 정작 우리의 '선차(禪茶)' 문화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차 문화의 원류를 밝혀내고 그 맥을 이어가기 위해 연구소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동방차문화연구소 박희준 소장은 최근 인사동에 국내 최초의 차 전문 서점 '다유락'과 한국전통선차연구소를 개원하고 '선차 문화 알림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인사동에 마련된 연구소도 그 이름이 주는 딱딱함 대신 아기자기하고 푸근하기 그지없다. 1층에서는 다양한 차와 향을 만날 수 있고, 2~3층에서는 박 소장이 직접 우린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실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꾸며져 있다.

"선차란 특별한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스님들 사이에 이어져 온 자연스러운 차 생활 전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차 한 잔을 마시며 마음자리를 다잡는 것이죠. 제가 하게 될 연구도 오늘날 불가의 생활규범 속에서 차의 정신을 찾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복원해 낸 발우를 이용한 차 음용법인 '운수선차(雲水禪茶)'와 '일완다례(一碗茶禮)'를 중국에서 발표한 것도 우리 선차 문화 세계화를 위한 행보의 시작인 셈이다.

지난 봄,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차 관련 서적을 수집하며 우리 차문화의 '뿌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됐다는 박 소장. 그는 "'우리 차를 마시자'며 시작된 70~80년대 차 문화 운동의 초발심으로 돌아 가야한다"며 "생활 속에 차가 깊이 자리 잡는 것이 차의 정신과 본질에 좀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길이다"고 강조한다. (02)723-8155

차와 문화가 공존하는 편안한 쉼터

흙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들

지난 9월 1일 문을 연 '흙이랑-효월과 문화유산이 만난 사람들(이하 흙이랑)'은 효월수제차(대표 이기영)와 (주)씨피엔문화재방송(대표이사 구지영)이 마련한 차 문화 공간이다.

겉으로 보기에 이곳은 여느 전통찻집과 크게 다르지 않다. 나무결이 그대로 살아있는 다탁(茶卓)과 소박한 다기, 하회탈과 장구 같은 전통적인 소품, 외국인을 위한 테이블 등으로 꾸며진 공간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흙이랑'만의 특징을 금세 발견할 수 있다. 다례시연이나 차 문화공연을 할 수 있게 마련된 무대와 컴퓨터, 빔프로젝트 같은 시설이 그것이다. '흙이랑'은 앞으로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매주 한 번 씩 문화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흙이랑'의 자체 공연 외에, 차 관련 단체들도 이러한 시설을 이용해 공연이나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차를 마시며 차분한 마음으로 책을 읽거나 문화에 대한 정보도 나누며 편안히 쉬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주력했다"는 구지영 대표는 "인사동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 그 중에서도 차문화를 알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한다.

효월수제차의 녹차와 백련차, 매화차를 비롯해 '흙이랑'이 직접 만든 수정과와 구절초, 송화밀수 등을 맛보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다.

"앞으로 '흙이랑'은 차와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사랑방이 될 것입니다. 차 한 잔에 문화공연도 즐기고 싶다면 언제든 찾아주세요." (02)736-6076

글=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차 품평대회', 차문화 모임으로



지난 7월 17~1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가 차문화 교류 모임으로 거듭난다. (사진)

차품평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여연)는 9월 8일 서울 운현궁에서 '제1회 대한민국 차 품평대회 사후 행사'를 개최하고, 심사위원단과 수상자들을 아우르는 차 문화 모임을 발족했다. 이날 행사에는 대회장인 김의정 명원문화재단 이사장과 조직위원장 여연스님(일지암 암주), 심사위원장 정영숙 교수(부산대)를 비롯해 우수품질상을 수상한 봉황다원 허정홍 대표와 우수상 수상자인 천보다원 문평식 대표, 품질상 수상자인 예전농원 전상연 대표, 다우제다 이승관 대표, 조태연가 조성호 대표, 햇차원 이기남 대표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여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차 품평대회'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차인들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장이 되길 바라는 뜻에서 모임을 결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제다업체와 연구소, 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함께 차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차 품평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던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도 함께 이뤄졌다.

'氣가 있는 궁합다기 전시회'

차 판매점 '노블티(Noble Tea, 대표 유병주)는 '9월 22일부터 30일까지 현대백화점 부천 중동점 가네트홀에서 '노블티 초청 氣가 있는 궁합다기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중국 자사호(紫沙壺)를 비롯해 일본과 우리나라의 다기 100여 점이 선보인다.(032)527-4414

우리 사찰 차 모임 —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차교육 통한 문화포교에 진력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 회원들이 8월 29일 열린 칠석예술제에서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있다.

매월 양력 초하루, 삼광사(주지 도원) 지관전에 가면 다도시연이 펼쳐진다. 문화 포교에 각별한 관심을 가진 도원 스님의 취임 이후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회장 박만옥) 회원들이 3년째 이어오고 있는 행사다. 그동안 염불선차, 접빈다례, 말차시연, 연차 시연 등으로 차의 대중화를 이끌어왔다. 38회째를 맞은 9월 1일에는 지난 8월 29일 열렸던 칠석예술제에 선보였던 헌다 시연을 다시 열어 칠석예술제에 참석하지 못한 신도들의 관심을 모았다.

법회 · 템플스테이 등 행사 때 헌다및 다도 강의

다도 시연이 끝난 뒤엔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을 위한 차 시음회도 연다. 처음엔, 차 맛을 몰라 마시기를 꺼려했던 노보살들도 이제는 차의 깊은 맛과 향을 알아 이 날을 기다리게 되었다. 이렇게 되기까지 법회 때마다 차의 효능과 차 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온 도원 스님의 차 사랑도 큰 몫을 했고 차문화연구보존회 70여명 회원의 노력도 남달랐다.

큰 법회가 열리는 날이면 이른 새벽 절에 와서 부처님 전에 올릴 차를 다려 헌다하고 육법공양물을 준비했으며 최근에는 법회 날마다 찻집을 운영하며 차와 차문화 보급에 팔을 걷었다. 이 밖에도 템플스테이에 참가한 외국인을 위한 다도 강의, 사명대사 열반재 헌다 등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활동 영역은 날로 넓어지고 있다.

다양해진 활동과 비례해 다도 교육도 심화되고 있다. 신입회원을 대상으로 열리는 강옥희 선생의 강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기존 회원들을 위해서 원광대학교 평생교육원에 1년 과정의 삼광다도대학을 열고 있다. 이 과정을 수료하면 전통차 예절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으며 차에 대한 심도있는 교육으로 한층 더 성숙된 다인(茶人)으로 거듭나게 된다.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김정남 부회장과 조들련 총무를 비롯한 회원들의 각오도 새롭다.

"각박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은근한 차 맛을 알려서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겁니다."

인터뷰 — 박만옥 회장

차의 현대화 · 대중화 위해 노력



"삼광사 다도모임이 다른 모임의 모범이 되도록 우리 전통차 보존과 일본차, 중국차 연구와 배움에 힘쓰겠습니다."

박 회장은 삼광사 차문화연구보존회의 수준을 끌어올리고 회원수를 늘이기 위해 삼광다도대학 활성화와 더불어 일본차, 중국차 특강을 구상중이다.

또한 "차를 우리고 마시는 행위자체가 수행"이라고 강조하며 차문화 보급뿐 아니라 기도주간의 철야기도에도 결코 소홀함이 없다. 다도와 수행의 합일을 꿈꾸는 회원들의 정진덕에 차의 현대화, 대중화가 한발 앞당겨지고 있다. (051)808-7111 천미희 기자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



차(茶)를 좋아하신다구요?

차가 궁금하시다구요? 차에 가까이 계시다구요?
그럼 매달, 월간『다도(茶道)』한 권 쯤은 보셔야지요.
차생활 전문지 월간『다도』에는 차 한 잔에 담긴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우리차의 역사, 세계의 차문화, 다도구의 미학, 차생활 속의 감동 에세이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도를 접하는 순간, 일상은 한층 더 풍요롭고 아름다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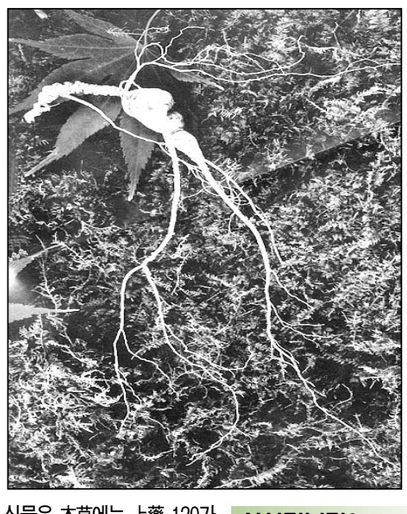
*권당 가격 6,500원. 1년 정기구독 65,000원. 문의 : 02-722-7777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농산물품질관리검정필(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山蔘

지켜보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

(491호에 이어서)

▲질문자1: 희망찬 새해에 스님의 강녕(康寧)을 빌면서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온 모든 불자들은 자성본래불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중생들이 부처라면 어떤 까닭에 무명에 가려서 자성불을 볼 수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스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성본래불이란 근본을 말하는데, 즉 말하자면 근본 죽은 움죽거리지 않고 냐냥 힘만 가합니다. 그러나 돌아가는 자체는 천차만별로 돌아갑니다. 근본에 의존해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업식들이 그냥 곱게 가게끔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다스려서 한군데 놓고 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볼 수가 있는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질문자1: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불도를 닦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스님께서도 좌선이니 참선이니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선의 방법으로 숨고르기라든가 좌선하는 이러한 것을 선방에서는 대단히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스님께서는 한 번도 좌선이라든가 숨고르기에 대한 권유를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스님: 그런데 좌선이라는 것이 모두 마음의 도리기 때문에 좌선 아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 따로 좌선이다 좌선이 아니다 이럴 필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게 좌선이다 좌선이 아니다라는 거를 가지고 가르치다 보면 참선은 영할 수가 없고 좌선도 할 수가 없고, 자기를 발견하기란 뭐 백 년, 천 년, 만 년이 가도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요.

▲질문자1: 그리고 스님, 여러 가지 공부하는 방법을 많이 지도해 주십니다마는 저희들은 지혜라든가 자비에 대한 두 가지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경전에 의하지 않고 여러 가지로 불쌍한 중생들에 대한 아픔을 이렇게 어루만져주시고 하시는데, 그러다보니까 과연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이 머리 속에 남은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시도를 해야 될지 그것이 의문입니다.

▲스님: 진짜로만 믿으신다면, 자기가 지금 말하고 듣고 보고 행하고 가는 그 자체를 잘 뒤집어서 자기를 볼 수 있다면, 진짜로 지혜로워야만이 자비도 나오고, 자비할 수가 있어야만이 내가 둘이 아닌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루만지는 것도 자기요, 어루만지는 걸 받는 자도 자기요,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무슨 까닭이냐 하면요, 내가 항상 얘기해드리죠. 전깃줄을 하나만 가지고는 도저히 불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마저 쥐고 서로 연결하고 행하는 자와, 즉 말하자면 어루만져주는 자와 만져지는 자가 마음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서로 믿고 말을 할 때는 말입니다. 믿지 않든 믿든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게 되면 이게 하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깃줄과 전깃줄이 한데 합치면 그냥 불이 들어올 뿐이지 합쳤다 안 합쳤다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루만지는 자비로서만 베풀고 지혜는 가르치지 않는구나. 또 경전도 보지 못하게 하는구나.' 이러지 마시고요. 경전을 보되 경전이 나를 보지 않게 하고 내가 경전을 보지 않게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올바로 경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전을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보되 보지 말라 이 소리죠. 경전을 보고 또 경전이 나를 본다면 글자 풀이만 해나가는 거지 내면세계의 그 백지에 들어 있는 천차만별의 뜻은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 책을 보는가? 네가 보고 있잖어? 그러니 나는 그냥 봐주는 겉눈과 겉손으로만 심부름 해줄 뿐이지 보는 건 주인공 네가 봐!' 하고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것은 말을 안 해도 자기가 보는 거죠. 그런데 껍데기 자기가 본다고 생각하고 다만 글자 풀이로만 나가니까 이거는 경을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을 보는 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없는 자기가 경 아닌 경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소립니다.

▲질문자1: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마음공부를 한다고 해서 '놓는다 믿는다' 하면서 저희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또 그 경계를 파악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그러한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충동이 일어납니다. 그러한 것을 확인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공부 방법인지 설명해주십시오.

자기 아닌 자기가 경 아닌 경을 볼 수 있어야

▲스님: 그것은 확인을 하되 확인을 함이 없이 확인을 해야 하는 도리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공부를 했다고 해서 주인공에서 말을 하란다고, 하고 싶다고 해서 마구 내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잘못되는 공부입니다. 왜냐하면 속에서 보이기도 하고 또 들리기도 하고, 어떤 걸 알려주기도 하고, 남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내 마음 속으로 한번 실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서 실험해보겠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실험을 해보는 거고 체험을 하는 거지 바깥으로 발설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어보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해나가라는 뜻이지 이거를 냐냥 묵인하고 그냥 '실험해보지도 말라, 그냥 놔버려라'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발전이 없죠. 마음의 발전이 없어서 자기 능력을 자기가 계발할 수도 없고 얼마만큼 됐는지도 모르죠. 이건 남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를 알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잖습니까? 나를 발견하기 위해서 한 번 죽어야 하고, 둘 아닌 도리를 알기 위해서 죽어야 하고, 또 둘 아닌 나툼을, 일체 만물만생의 나툼을 알기 위해서 또 죽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실험해보려면 아무도 알지 못하게 그냥 실험해보는 거지, 어떻게 말을 바깥으로 하고 실험을 합니까? 그리고 체험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도반들끼리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갈 때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첫째 당신에게 누가 되고, 둘째는 스님들에게 누가 되고, 셋째는 부처님의 뜻에 누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 것을 제시해주고, 속으로 자기가 실험하고 체험하게끔 일러주고 하는 것이 도반의 도리입니다.

▲질문자1: 예, 지금 스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열심히 공부 잘 해보겠습니다.

▲스님: 또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세요. (컵에 든 물을 드시며) 요것도 소금을 조금만 더 탔으면 아주 감칠맛이 있을 텐데, 싱겁게 탔으니까 싱겁지. 그러니까 모든 것이 적당해야 돼요. 아주 적당해야 돼! 인간이 살아나가는 데도 적당하게 그 정(定)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죠. 그래서 혜(慧)도 정(定), 계(戒)도 정, 모두가 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질문자2: 저는 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인공 임신중절에 대해서 스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육도윤회 중에 인간으로 태어나는 과정인 태아의 단계에서 행해지는 법적으로 허용된 인공 임신중절 다섯 가지하고,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율적 인공 임신중절이 있는데 경전에 의하면 인공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큰 죄라고 했는데 현시대에서 이에 대한 스님의 고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스님: 사람이 좁게 생각하면 한없이 죄가 되고요, 넓게 생각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태어난 사람을 이미 떼려고 했다면 거기에 태어나도 그렇게 큰 사랑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봤어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욕을 할지는 모르지만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얼른 옷을 벗고선 좋은 데로 천가가 됐으면 하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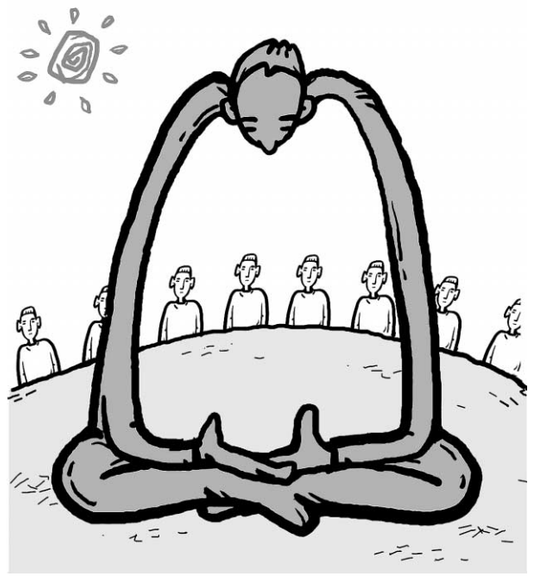
그래서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 공부를 배워야 고생할 사람은 고생을 덜 하게 해주고, 또 태아가 잘못돼서 불구로 나온다 이럴 때는 빨리 천도해서 다시 좋은 결과를 보게 하는 것이 무명을 씻고 다시 나오게끔 하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하는 일이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한 사람에게는 죄가 붙을 것도 아무것도 없지만 또 살려준 자체도 없고 죄 될 자체도 없고 이렇지마는 그런 도리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즉 무의세계인 정신세계의 50%를 모르는 사람에 한해서는 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도리를 충분히 알아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자2: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은 헌혈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해주십시오.

▲스님: 헌혈에 대해서도 뭐 꼬집어서 말할 수 있나요? 사람들이 피가 너무 많은 사람, 스스로 피를 생산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헌혈을 해도 좋고, 또 생산이 충분하지 못할 때는 헌혈을 해서는 아니 되고 그런 거죠. 또 헌혈을 해가지고 남까지 괜히 고생시킬 그런 피라면 안 하는 게 좋고요. (대중 웃음) 하하하.

▲질문자2: 알겠습니다.

▲질문자3: (편지 봉투를 스님께 올리면서) 합격증 가져왔습니다.


그림 · 최주현

다스려서 한군데 놓고 가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공부

▲스님: 네?

▲질문자3: 합격증 가져왔습니다.

▲스님: 합격증이요? 예, 감사합니다.

▲질문자3: 지난번에 스님 친견하고부터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잘 됐는데요, 안양까지 저는 전기 가설을 많이 해놨는데 전류가 제대로 흐르는지 좀 한번 점검해주세요. (대중 웃음)

▲스님: 하하하. 전력이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그거를 의심치 마세요.

▲질문자3: 예.

▲스님: 어디고, 어디고! 전력은, 즉 광력은 레이저 광선은 어디든지 어디에서든지 멀고 가까움이 없이 끌어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의심치만 않는다면 말입니다.

▲질문자3: 네, 감사합니다.

▲스님: 또 질문할 사람 있어요?

▲질문자4: 스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그런 중생입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왔습니다. 그러니 어찌하겠습니까? 스님께 좀 몸을 매달리고 말기러 왔죠. 그래서 왔습니다.

▲스님: 나한테 매달리지는 마세요. 내 모습한테 매달리진 마세요. 왜냐하면 당신을 끌고 다니는 당신 주인공만이 당신을 고칠 수가 있어요. 당신의 몸뚱이니까.

▲질문자4: 너무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니까 나쁜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달리다가 찾아왔습니다.

▲스님: 그러니까 그 이름에 마음이 죽지 마시고요, 그건 이름일 뿐이다 하시고 '나를 끌고 다니는 주인공만이 나를 건강하게, 내 몸을 건강하게 끌고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진실하게만 갖는다면 오늘 저녁부터라도 괜찮죠. 그럼, 또 없습니까?

▲사회자: 원하는 대로 질문을 다 받으시면 한 달이 가도 다 못할 테니까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스님: (질문을 하기 위해 걸어 나오는 다음 질문자를 가리키시며) 저기 나오시는 분, 아, 나오시다 들어가면 민망스럽잖아요?

▲질문자5: 저는 체험담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옆집에 제 손자가 살고 있습니다. 외손자인데, 며칠 전에 딸내미가 밤중에 전화를 해서는 애가 자꾸 울고 전혀 잠잘 생각을 안 하니 어떡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럼 내 갈께." 이렇게 말하고 옷을 입고 갔더니 전화를 놓자마자 잠을 자더랍니다. 그래 거기에서 제가 한참 이야기를 죽 해줬

☞30면으로 계속


그림 · 최주현

모든 것이 定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29면에서 계속

습니다. 마음도리, 한마음을 관하는 도리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제가 이 관하는 공부를 하기 전에 선도 공부를 좀 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잘못 봐가지고, 지금 한마음 공부 하는 이 자체도 좀 삐뚤어지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제는 바로 생각할 수 있고 바로 볼 수가 있을 텐데 저 혼자만 자꾸 애를 태우고 있다가 이런 기회에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좀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 저녁에는 거기서 잠을 잤습니다. 거기서 자면서 애를 바로 옆에 눕혀놔 놓고, 이제 금방 돌 지나간 앤데 잘 자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있으니까 또 잠을 안 잔다고 우리 집으로 애를 데리고 왔습니다.

▲스님: 하하하. 그 애도 스승이네요.

▲질문자5: 예. 아예 우리 집에서 잠자려고 데리고 왔는데, 그래 우리 집에서 자니까 또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또. 그래 그날 자고 또 그 다음날도 우리 집에 와서 또 잠자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한마음이라는, 너와 나의 마음의 선이 있는데, 나는 자꾸 선을 전류를 갖다 보내고 있는데 너는 거기서 다차단을 하고 있으니까 너한테서 차단이 돼가지고 자꾸 그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 마음의 도리를 바로 네가 배우라고 지금 애가 자꾸 그렇게 보채고 그러는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말을 처음에는 모르더니 자꾸 큰스님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하니까, 선과 선을 연결시키면 불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치의 얘기도 하고, 우리 전체가 한마음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니까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더니 알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놓고는 딸네 집으로 보냈는데 그 이후부터는 그런 일로 집에 전화하는 예도 없고, 또 아이가 잘 잤느냐고 제가 전화하면 잘 잤다고 합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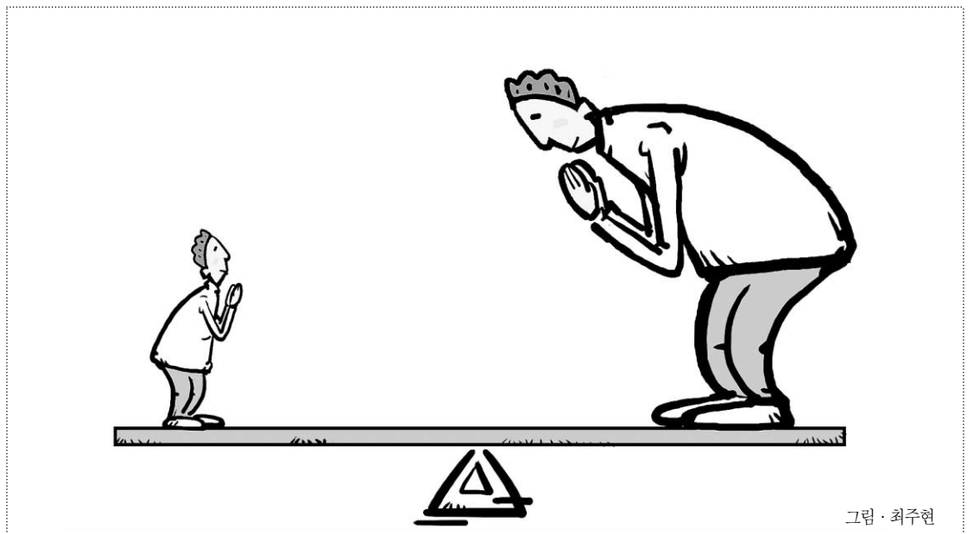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좁게 생각하면 한없이 죄가 되고
넓게 생각하면 죄가 하나도 없어

▲스님: 허허허. 그래서 어떠한 애고라든가 병고가 좀 낫다가도 도로 그러는 것도 알고 보면 그게 병이 아닙니다. 공부를 완전히 가르치기 위해서지, 믿음을 완전히 주게 하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그것을 콧방귀 뀔 수 있어야 됩니다, 콧방귀! 하하하. '이거쯤이야, 뭐. 네가 다 그러는 건데….' 이렇게 콧방귀 뀔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멀고 가까운 게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건 레이저 광선보다 더 빠릅니다. 빛보다 더 빠른 거니까요. 벌써 옷 입기 전에 전화를 받으시고 "어, 내가 갈께." 했으니까 '내가 갈께.' 하는 동시에 그냥 간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도 둘이 아니요, 중생도 둘이 아니요, 마음도 둘이 아니요, 빛보다 더 빠른 것도 두루두루 같이 전달을 하고 돌아가니 이게 우주간 법계 아닙니까? 하하하.

▲질문자5: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가정도 참 온화하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참, 감사합니다.

▲스님: 예. 꼭 그렇게만 자꾸 실험을 통해서 아시고 체험을 하고 이렇게 가신다면 가정뿐만이 아니라 세세생생입니다.

▲질문자6: 저는 지금 스님 법문을 듣다가 뒤에서 너무 몸이 못 견뎌가지고 앞으로 나오게 됐는데 스님 앞에 막상 나오니까 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남편은 원래 보신탕을 좋아하는데요, 제가 못 먹게 말리면 더 먹으려고 합니다. 저는 그게 싫기 때문에 항상 안으로 돌려놓는다고 놓아도 잘 되지 않습디다, 스님.

▲스님: 그래요? 그 마음의 줄이 또 내 마음의 줄과 더불어 같이 닿는다면 남편 마음의 줄에도 닿겠지요. 그러니까 하여튼 남편이 먹기 싫어 구역질이 나야 안 먹을 테니깐. 하하하. (대중 웃음) 아, 먹기 좋고 아주 맛있고 그래야 먹지, 구역질이 나는데 어떻게 먹습니까? 알았으니까 하여튼 공부나 열심히 잘 하세요.

▲질문자6: 예, 감사합니다.

진짜로 믿고 의심치 말고
모든 것을 놓고 감사할 줄 알아야

▲질문자7: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질문을 드리기 위해 나온 것이 아니라 스님께 감사한 마음과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한마디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작년에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합격하여 이제 2학년이 되는 학생인데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것이 다 모두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저는 부모님을 통해서 한마음선원과 인연을 맺게 되어 큰스님 법문을 듣기 위해서 셋째주 일요일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왔습니다. 그리하여 주인공이 무엇인가를 저 나름대로 어렴풋이 알게 되었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내가 나를 죽이는 법은 없다'는 것이 가장 제 마음에 닿았습니다. 그리하여 시험 보기 전에는 주인공을 믿고 할 수 있다는 다짐을 여러 번 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을 보게 되었는데 시험 보는 날 어떤 문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당황하자 저도 모르게 '주인공, 큰스님, 부처님!' 하는 소리가 마구 나왔습니다. 급하니깐 저도 모르게 주인공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순간 답이 떠올랐고 또 그뿐 아니라 제가 공부한 것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었던 것도 다 주인공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에게 이것만은 말하고 싶습니다. 주인공의 존재를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어려울 때는 주인공을 믿고, 또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주인공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큰스님께 감사드리며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대중 박수)

▲스님: (박수를 치시며) 아이구, 장하구나! 하여튼 여러분이 지금 저 학생처럼 열심히, 자기를 끌고 다니는 자기의 주인공을 진실히 믿고, 이건 대의적으로도 쓰이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것을 알고 본다면 모든 것이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니깐 주인공입니다. 그러니 진짜로 믿고 의심치 말고 모든 것을 거기에다 놓고 감사할 줄 알고 거기에다 놓고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제시한다면, 그리고 지켜보고 체험한다면 그것이 참선이요, 나를 발견하는 첫걸음이요, 아주 좋은 결과입니다. 뭐 거기서 와선이다 입선이다 뭐 좌선이다 할 것도 없고, 그냥 즉발 참선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생활하기도 복잡한데, 종교를 믿는 것조차 복잡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발견하고, 복잡하지 않게 가정을 이끌어나가고, 복잡하지 않게 나를 내가 제도시키는 방법이 바로 그거라고 일러주는 거 아닙니까? 그냥 생활 자체가 종교예요. 뭐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불교라는 자체도 항상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일체 만물만생의 영원한 근본 자체가 바로 불(佛)이라고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데서나 보이는 데나 서로가 말하고 교환하고 통신하고 서로 같이 돌아가면서 살고 이러는 자체가, 공생 공용 공체 공식화 하고 돌아가면서 말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敎)란 말입니다.

그래서 '관세음' 해놓고 '보살' 이러죠. 이것이 어떠한 개인의 존재를 말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의 근본 자체를 그냥 이름 지어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어떠한 모습이나 어떠한 형상을 보고서 찾지 마세요. 만약에 그 형상을 보려면 색경을 보시면 알 겁니다, 관세음보살이 어디 있는지요. 하하하.

그럼 이만 그치겠습니다.

※위 법문은 대행스님 법어집 『한마음』의 내용 중에서 64호를 발췌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나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토르말린, 수정석, 맥반석 등의 천연광물이 뿜어내는 그 시원하고 후끈후끈한 열기, 이것이 바로 이열치열!"

원적외선 불가마

형식승인번호(안전인증번호) : HU07305-2001A

5분 충전! ▶▶ 3시간 연속찜질!



딱 한번만 무료체험해 보십시오!
후끈후끈한 원적외선 열찜질!
몸 속 깊이 침투하는 그 시원함!
정말 놀랍습니다.

추석효도선물 목초수액시트 30매 증정 특별가 13만원

●불과 5분 충전으로 3시간동안 연속찜질 OK!
●전원차단으로 무선찜질, 유해전자파 걱정 NO!
●언제, 어디서나 휴대할 수 있는 편리성 YES!

저렴한 가격으로! 경제성도 그만!

◎ 제품의 특성
● 최신 특수공법에 의한 견고한 제품
● 수많은 실험으로 안전성, 기능성 확보
● 인체공학적 설계로 몸의 어느부위에도 밀착성 우수
● 내부 발열온도 135℃, 표면온도 60~70℃
● 원적외선과 음이온 다량발생
(원적외선 방사율 약 90% 음이온 182/cc)

◎ 주요 용도
● 노약자 보온용 및 무릎, 어깨, 관절 찜질
● 여성의 아랫배, 손발을 따뜻하게
● 학생이나 직장인의 목, 어깨 찜질 또는 베개대용
● 아픈곳이나 다친 곳의 찜질
● 낚시, 등산, 야영, 야외 작업시 보온용
● 춥고 습기찬 곳에서의 보온용

■ 자매품 : 청즙(3g 30포) 45,000원, 크로렐라 (200ml 1600정) 75,000원

www.bb21.com • 상담실 : 02)969-8080

관상학 특강반 모집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12시)
▶ 지선법사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사주로 볼 수 없는 찰색 ! 특강반에서는 기초와 이론을 속성강의
완벽한,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88m
현재 미달 접수 3명만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8

사주학 특강반 모집

매주 수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12시, 오후 4시 ~ 6시)
▶ 신기문 선생과 송강선생 직강 ◀ (현재 방송국에서 강의 중. i-TV. SBS 출연함)
평생 직업 ! 특강반에서는 직접 영업할 수 있게 속성강의
오행의 기초부터 완벽한 이론 및 실제 감정 완전 정복
(자격증, 취업보장) "ARS 대동정보통신에서 후원"
사단법인 한국기문미래 연구학회

전철 5호선과 7호선 환승역 군자 3번 출구 조흥은행 옆
미달 접수 5명 제한. 접수 연락처 02)454-3369
지선법사의 운명 특별상담 접수 中
특별강의 : 기문둔갑



'떡의 변신' 한가위 처럼 풍성

웰빙 타고 '퓨전떡' 신세대 입맛에 '꿀 떡'

달지 않고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가 모두 들어있으며 칼로리까지 낮은 '떡'이 웰빙 바람을 타고 인기다. 신세대 취향에 맞게 망고나 치즈를 넣은 떡들도 나오고 있다. 옛날엔 명절 때나 먹던 귀한 음식이었지만 이젠 분쇄기와 스테인레스 찜기 등을 이용해 집에서도 쉽게 만들수 있는 떡. 고구마나 녹차를 넣고 케익처럼 만들어 차례상에 올리거나 한가위 차례를 지내고 난 풍성한 율곡으로 가족과 함께 색다른 떡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추석 때마다 만드는 송편도 모양을 내면 일류 카페에서 파는 퓨전식 떡 못지 않다. 다음은 인터넷 카페 운영하고 있는 모은영씨가 추천한 '온 가족이 함께 만들 수 있는 떡' 이다.

이은비 기자 renv@buddhapia.com

– 도움주신 분 : 네이버 카페 '떡만드는 여자' (cafe.naver.com/koreacake.cafe) – 모은영

■ 고구마 떡케이크



필요한 재료
멥쌀가루 500g, 고구마 찐 것 150g, 설탕 5큰술

만드는 방법
1. 고구마는 찜통에 푹 쪄서 껍질을 벗겨 굵은체에 내린다.
2. 쌀은 깨끗이 씻어 5시간 이상 불린 후 소쿠리에 건져 물기가 빠지면 빻아 놓는다.
3. 고구마, 설탕과 함께 멥쌀가루를 넣고 고루 섞는다.
4. 김 오른 대나무 찜기에 젖은 면보를 얹고 ③의 가루를 넣어 20분 정도 정도 찐 후 5분간 뜸을 들인다.

■ 꽃송편

필요한 재료
흰 멥쌀가루 200g, 쑥색 멥쌀가루 200g, 호박 멥쌀가루 200g, 참기름 · 솔잎
송편 소 : 1. 밤 7개, 꿀 · 계피가루 약간, 햇콩 1/2컵, 소금 1/5작은술, 깨소금 1/2컵, 설탕 1큰술

만드는 방법
1. [삼색 쌀가루 준비하기] 쌀은 5시간 이상 불린 후 빻아 흰 멥쌀가루를 만든다. 각각 데친 쑥 20g 찐 단호박 30g을 불린 쌀과 함께 빻은 녹색 노란색 쌀가루도 준비한다.
2. [소 만들기] 계피가루, 꿀로 반죽한다. 햇콩에는 소금을 뿌리고 깨소금은 설탕이나 꿀로 버무린다.
3. ①에 끓는 물을 넣어 익반죽한 뒤 송편을 빚는다.
4. [장식꽃 만들기] 이쑤시개로 반죽을 눌러 꽃모양으로 낸뒤 송편에 붙인다.
6. 찜통에 솔잎을 깔고 찐다. 송편 위로 김이 오르면 20분 정도 더 쪄낸 후 찬물에 헹군 뒤 참기름을 바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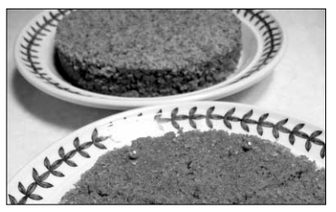
■ 거피팥메시루떡



필요한 재료
멥쌀가루 500g, 거피팥고물 300g(거피팥 80g, 소금 1/2작은술), 밤 5개, 대추 10개, 물 2~4큰술, 설탕 5큰술

만드는 방법
1. [고물 만들기] 거피팥을 불려서 껍질을 모두 벗겨 낸 뒤 찜통에 면보를 깔고 안쳐 푹 찐다. 찐 거피팥에 소금을 넣고 빻은 다음 굵은체에 내려 고물을 만든다.
2. 쌀가루에 물을 넣고 섞은 후 중간체에 내려 설탕을 골고루 섞는다.
3. 밤은 껍질을 까서 반으로 자르고 대추는 씨를 빼고 돌돌 말아 놓는다.
4. 대나무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고물의 반을 안치고 쌀가루의 반을 편 후에 밤과 대추를 사이사이에 놓는다.
5. 남은 쌀가루와 고물을 순서대로 얹는다.
6. 가루 위로 김이 골고루 오르면 뚜껑을 얹어 20분 정도 찐 후 5분간 뜸을 들인다.

■ 녹차설기



필요한 재료
멥쌀가루 500g, 녹차가루 1큰 술, 물 2~4큰술, 설탕 5큰술

만드는 방법
1. 쌀은 깨끗이 씻어 5시간 이상 불린 후 빻아 놓는다.
2. 쌀가루에 녹차가루 불린 물을 2~4큰 술 섞어서 손으로 잘 비빈 후 중간체에 내린다.
3. ②에 설탕을 넣고 고루 섞는다.
5. 대나무 찜기에 젖은 면보를 깔고 쌀가루를 위가 편편하도록 만들어 안친다.
6. 가루 위로 김이 골고루 오르면 뚜껑을 얹어 20분 정도 찐 후 5분간 뜸을 들인다.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로 명절보내요

갑사·자광사등 특별 프로그램 준비

'사찰에서 마음의 휴식 취하며 차례를 지내볼까' 대전 자광사와 공주 갑사, 부산 홍법사, 충남 무상사, 경기 강화사 등 템플스테이 지정운영 사찰들은 내외국인을 위한 '추석맞이 템플스테이'를 준비하고 있다. 연휴기간 귀성길 인파에 시달리는 대신 정신건강을 위한 템플스테이에 참가해보는 것은 어떨까.

각 사찰마다 차이는 있지만 2박 3일 혹은 3박 4일 일정동안 스님들의 수행생활을 따라하며 마음의 휴식을 취할 수 있고 염주 만들기나 발우공양도 체험할 수 있다.

특히 이번 템플스테이는 명절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차례를 지내지 못하거나 마땅히 계획이 없는 내외국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기획되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인 추석의 풍습들을 '햇곡식 발우공양' '사찰에서 배우는 차례풍습' 등으로 사찰문화와 접목시킨 것.

갑사에서는 '보름달 보며 고구마 굽기', '가족 민속놀이 게임' 등의 특별 프로그램을 준비했고, 자광사에서도 '한가위 맞이 송편 빚기 행사'를 마련했다. 한편 무상사는 추석연휴를 '집중 참선수행기간'으로 지정, 주지스님이자 선원장인 무심 스님과의 공안시간을 갖는다.

9월 추석맞이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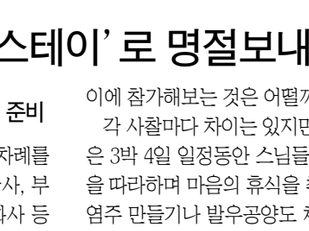
지역	사찰명	일정	기간	대상	인원	홈페이지	문의처
대전	자광사	9월 27일 ~9월 29일	2박 3일	내외국인	20명	없음	042)822-9220
충남공주	갑사	9월 24일 ~9월 29일	1박/2박/3박/4박 자율선택	내외국인	60명	www.gapsa.org	041)857-8981
부산	홍법사	9월 27일 ~9월 29일	2박 3일	내외국인	30명	www.busanbuddhism.com	051)508-0345
충남계룡	무상사	9월 25일 ~9월 28일	3박 4일	내외국인	40명	www.musangsa.org	042)841-6084
경기강화	강화국제 연등회관	9월 25일 ~9월 29일	1박/2박/3박/4박 자율선택	내외국인	20명	없음	032)937-7033, 019-9410-1024

김재덕 역학교육원
역학, 음양오행, 인성컨설팅 강사
주간지 Goodday 365 "미용역학 삼정의 인연법,사주에어" 고정연재중
월간뷰티패션 "역학풀이" 연재중
실력있는 역학인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모집과정 : 수시모집
강 의 : 주 2회(화,수요일)
사주통변이 부족하신 분, 책을 보고 독학하신 분
사주통변이 자신 없는 분
사주통변 및 작명법, 인연법 : 김재덕선생
관상학 (특강 월2회 화요일) : 신기원선생
신청문의 02)567-4833
011-9702-2237

사찰, 법당, 앰프 설치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아무리 먼 곳이라도 출장비는 받지 아니합니다)
소리공양 실적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yukosound.com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비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 코 음 향 연 구 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1-8284 팩스 (02)2695-9676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

간(肝)이 간염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055) 963-9583 · 상담문의: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가격 수요증가로 시중품과 가격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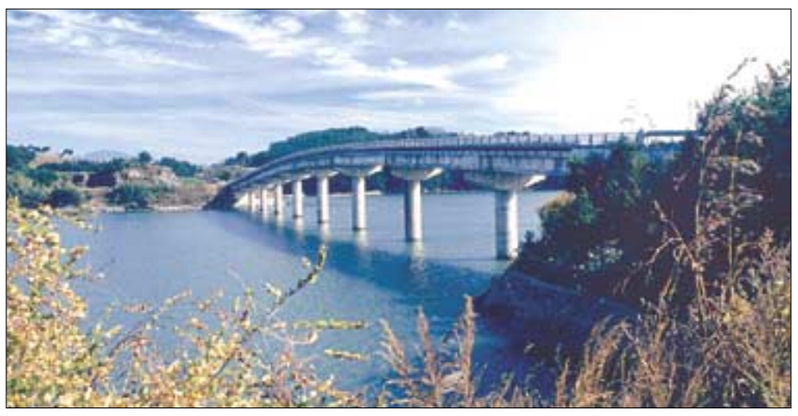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각지역 대리점 모집

서원기전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녹음테이프로 공부하는
太極四柱가 나왔다
(사주배우기가 너무 쉬워졌다)
중국 命理學을 완전 압도하는 새로운 太極四柱가 나왔다.
太極四柱는 이론이 간단명료해서 누구나 쉽게 배우고 속성으로 완성하며 자신있게 개업할수 있다.
中國四柱인 命理學은 10년을 공부해도 끝이없고 올바른 판단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太極四柱는 배우기가 매우 쉽고 자상하며 간단명료해서 구체적이고 논리가 정연함으로서 차분하고 능소 능대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생생하다.
누구나 이해하고 터득하도록 실례를 들어 흥미 진진하게 설명하므로서 질문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
녹음테이프를 하루 한시간씩 독학으로 2개월이면 완성하고 인간만사를 정확하게 판단한다.
20여년간 강의하고 연구개발한 太極四柱는 오판과 실수가 없다.
中國命理學과 는 하늘과 땅 차이이다. (안내서 무료 배부)
※ 그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 주문방법 : 아래 계좌로 송금하시고 전화하면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테이프(14개)와 교재 代金 30만원
▶농협 : 100080-56-022361 (손선영)
※ 스님 및 포교사 특별할인 (20만원)
學術團體 韓國陰陽學會中央會
(053) 324-2468 / 326-4585
釜山支部 : (055) 384 - 2303
大邱支部 : (053) 641 - 2334
龜尾支部 : (054) 465 - 2642
慶南支部 : 016 - 274 - 3170
慶北支部 : (054) 553 - 5145



빨갛게 물든 단풍과 국수 자락을 걸어놓은 듯한 폭포가 가을 정취를 물씬 느끼게 하는 영동의 물한계곡.



옥정호의 기암괴석과 호반을 가로지르는 운암대교가 빼어난 가을 풍광을 연출한다.



청명한 가을 그윽한 법향 '가슴 설렌다'

관광공사 추천 가볼만한 우리땅

쪽빛 바다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경남 사천 일대 다도해의 풍광은 관광객들의 발길을 오래 머무르게 한다.



가평 현등사에 걸린 풍경이 초가을 바람에 흔들려 맑은 소리를 전한다.

청명한 가을빛이 완연한 9월이다. 가을은 호수와 계곡, 산 등 어디를 가도 다 좋다는 느낌이 든다. 떠남 그 자체가 우리를 설레게 만드는 계절이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한국관광공사는 가을 정취를 만끽할 우리 땅 4곳을 선정했다. 인근에는 가볼만한 사찰도 있어 가을의 정취와 함께 그윽한 법향도 맡을 수 있다. 자, 가을 속으로 가족과 함께 들어가 보자.

김주일 기자

▲전북 임실 옥정호

6 km의 맑은 계곡 사이로 가을 단풍 일품

전라북도 동남방에 위치한 임실은 여태껏 관광지로서 무대 전면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도심의 번잡함을 벗어나 때묻지 않은 산과 물이 있는 청정지역으로 유명하다.

특히 국사봉을 오른쪽에 두고 옥정호를 감아 돌아가는 길은 연인들을 위한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 섬진강 상류 물줄기 따라 돌거북이 수 없이 강물에 노니는 구담계곡의 맑은 물은 지친 몸을 식히기에 충분하다.

또 영화 '아름다운 시절'의 촬영지인 구담마을은 그 아늑함으로 길손의 발길을 잡는다.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고향 장산마을 앞에서부터 천담계곡을 따라가는 약 10km 정도의 '걷고 싶은 길' 이라 명명된 자갈길은 우리들을 먼 추억으로 안내한다. 아침안개 드리운 옥정호와 안개 속에 뜬 운암대교의 어울림은 어느 미술관에 전시된 풍경화를 연상케 하는 임실만의 아름다움으로 꼽힌다. 임실군청 문화관광과 (063)640-2224

찾아가는 길 호남고속도로 전주 IC에 진입-전주 시내 동부우회도로를 관통-17번 국도를 타고 남원 방향으로 약 30Km(승용차로 40분 정도)지점

▲경기 가평 조무락 계곡

시 읊으며 연인과 함께 '걷고 싶은 길'

숲이 울창해 산새들이 조무락거린다(재잘거린다의 사투리)고 해서 '조무락'이라 붙여졌다. 호랑이가 웅크린 모습을 한 복호등폭포, 똬리를 튼듯 폭포수가 돌아 흐르는 골뱅이소 등이 이채롭다. 조무락 계곡 인근에 가평 8경 중 하나인 용소폭포와 무주채 폭포도 놓쳐선 안될 볼거리다. 그 외에도 경기도의 5대 악산으로 가평에서 가장 빼어나다고 불리는 '경기의 금강' 운악산은 등산로가 비교적 잘 정비돼 있어 가족 단위의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다. 가평군청 문화관광과 (031)580-2065

인근사찰 현등사 = 천년고찰 현등사는 신라 법흥왕 때 창건되고 고려 희종 때 보조국사 지눌이 재건한 사찰. 경내에는 경기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3층석탑과 봉선사종,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지진탑(보조국사 사리탑), 부도 등이 있다. 특히 매표소 입구에서 '현등사 문화유산해설사'를 만날 수 있어 해박한 설명과 함께 여행의 즐거움을 더할수 도 있다.

찾아가는 길 구리시-46번 국도(춘천 방향) - 청평 - 가평 - 75번 국도(목동 방향) - 목동(북면)에서 좌회전 - 가둘기 - 도대리 - 적목리 - 용수목

▲경남 사천 비토해변

어촌의 정겨움 느끼며 바다 일몰 감상

쪽빛 바다위에 그림처럼 펼쳐진 섬들. 남해안 일대에서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풍경이다. 하지만 사천 일대에서 감상하는 느낌은 사뭇 다르다. 삼천포 일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삼천포대교를 중심으로 동으로는 코끼리 바위로 유명한 남일대 해수욕장, 서로는 아직 찾는 발길이 드문 실안 해안 일주도로에서 일몰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서포면 비토도는 끝없이 펼쳐지는 갯벌과 아기자기한 주변섬 그리고 한적한 어촌마을이 너무나 정겹다. 사천시청 문화관광과 (055)830-4000

인근사찰 다솔사 = 다솔사는 신라 지증왕 4년(503) 연기조사가 창건해 영악사(靈岳寺)라 불리다가 선덕여왕 5년(636)에 지금의 이름으로 개칭됐다. 특히 최범술 스님은 다솔사에서 60년 동안 절 뒤쪽 비탈에 차밭을 일구며 반야로차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다인들 사이에는 다솔사가 '다사(茶寺)'라는 별칭으로 불려지고 있는데 바로 이 반야로차 때문이다.

찾아가는 길 서울-대전통영고속도로-사천IC-곤양IC(남해고속도로) - 톨게이트 통과후 좌회전시 비토섬, 우회전시 다솔사

▲충북 영동 민주지산

병풍 두른듯 절경, 빽빽한 원시림에 흠뻑

1,100m~1,200m의 고산들이 병풍처럼 둘러싸 태고의 신비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충북 영동의 민주지산. 경북과 전북이 만나는 충북의 남쪽 끝자락에 있는 이 산은, 한 번 와 본 사람이면 감탄사를 연발할 정도의 명산(名山)이다.

물이 차다(寒)고 이름 붙여진 물한계곡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빽빽한 원시림과 함께 의용골 폭포 등 수많은 소(沼)가 어우러져 산과 계곡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시원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숲속의 집과 산림문화휴양관 등 8개동을 갖춘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가볼만하다. 영동군청 (043)740-3211

인근사찰 황룡사 = 1972년 창건된 황룡사에는 대웅전을 비롯해 요사 2동과 산신각이 있고, 경내에는 대웅전 앞에 석등 2개, 7층석탑 2개, 연화대 석조입불상 등이 있다.

찾아가는 길 경부고속도로 황간 IC에서 나와 영화 '집으로'의 촬영장소인 상촌면을 지나 물한 계곡까지는 자동차로 약30분 소요된다.

우 · 리 · 절 · 은 · 불 · 자 · 여 · 러 · 분 · 을 · 사 · 랑 · 합 · 니 · 다

◆ 교통편
1. 강변역 → 광주 → 곤지암 1113-1
2. 잠실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1
3. 양재 → 모란 → 광주 → 곤지암 500-2

곤지암 우리절

천도재 기도도량 · 대비주 기도도량 우리절!

우리절 정기기도 · 법회

요 일	시 간	법 회 명	강의내용
매주일요일	10-14시	일요가족법회	자경문강의
매주수요일	10-15시	목련사랑법회	화엄경강의
〃	10-15시	수능자녀기도	〃
〃	10-15시	지장경독송회	〃
매주목요일	10-15시	대비주기도회	예참문강의
셋째화요일	14-17시	부산 · 동선회	주제별특강

◆특별기도
2005학년도 수능특별기도 :
2004년 8월 8일-
11월 17일(만101일간)
기도성취도량 우리절에서 마음에 뜻하신 바 반드시 이루십시오.

◆우리절개산대제
오는10월7일 목요일은 이토록 아름다운 태화산에서 우리절이 문을 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한지 꼭 9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오전10시부터 법회를 봉행하오니 우리절을 사랑하시는 불자가족 여러분, 부디 오셔서 축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신 불자님들과 함께 한국불교의 미래를 설계하고 싶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곤지암 우리절주지 일원동봉 합장

대한불교조계종 우리절 http://www.urijeol.com / 우리절.com /우리절.net 우)464-881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상림리 178 전화 031)763-4674-5 / 팩스 031)763-2150